금주의 법구–〈아함경〉
타인은 곧 나이고
나는 곧 타인이다.
남에게 상처주지 마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2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2월 1일)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급감하는 해외 사찰 10년사이 절반 수준

[진단]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10년

1. 해외사찰 감소현황과 원인
2. 대안과 과제
3. 모범 해외사찰 사례
4. 대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2009년과 2020년 편람 비교
11년 만에 142곳서 82곳으로
이후 창건사찰은 11곳에 불과
2011년 법제정 후 되레 감소
美 동부만 유지 성공에 '눈길'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올해는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다. 해외특별교구법은 2011년 3월 한국불교의 국제화와 해외포교 체계화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처음 제정됐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을 통한 종단적 노력과 별개로, 조계종 해외사찰들이 감소추세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이 전수조사를 토대로 발간한 '해외사찰 편람'에 따르면, 해외사찰은 지난 11년새 142곳에서 82곳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계종이 지난 2020년 12월 발간한 '해외사찰 편람'과 2009년 '해외사찰 편람'을 비교한 결과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화와 이메일로 전수조사를 주도한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상당수 사찰이 세월이 지나면서 폐사하거나 조계종과의 연관성이 희미해진 것으로 분석한다. 사찰 내부사정에 의해 현황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계종 해외사찰 명단에서 제외를 요청한 사찰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해외라는 물리적 특수성에 기인한 조사과정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통계상 11년 전에 비해 57%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감소추세는 명확하다.

문제는 이 같은 감소세가 2011년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이후 드러난 현상이라는 점이다. 해외특별교구법은 2011년 3월 10일 한국불교의 국제화, 해외포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등을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종단은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해외사찰은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 진력해야 한다는 기본방침도 명확하다.

그러나 정작 법 제정 2년 전인 2009년에 비해 해외사찰 수가 되레 감소했다는 점은 법제정에 따른 성과가 미비함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해외사찰 편람에 따르면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국가는 일본과 중국, 필리핀이다. 일본의 경우 2009년 7곳이 운영됐으나 2020년 2곳만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국 역시 2009년 10곳에서 2곳으로 감소했다.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2009년 각각 운영됐던 2곳, 총 4곳 모두 2020년 편람에서 자취를 감췄다.

다른 국가도 사정은 비슷하다. 캐나다는 10곳에서 4곳으로, 브라질과 인도, 독일은 각 3곳에서 1곳으로 감소했으며, 멕시코는 2곳에서 1곳, 뉴질랜드는 4곳에서 2곳, 1곳 사찰만 존재했던 스리랑카와 스위스는 2020년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편람에 따르면 해외사찰 가운데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현황변화에서 중서부와 동부간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주목된다.

중서부의 경우 2009년 43곳 사찰이 운영됐으나, 2020년 편람에는 24곳으로 확인됐다. 2009년 이후 중서부지역에서 새롭게 창건한 사찰이 5곳임을 감안하면 반 이상이 편람에서 제외된 셈이다. 특히 중서부지역의 경우 현재 사찰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조계종과의 관계성이 희미해지거나 내부 사정으로 편람에 포함되길 꺼려한 사찰도 일부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동부지역은 2009년 29곳에서 23곳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새롭게 창건된 사찰은 2곳으로 확인됐다. 기존 운영되던 사찰이 다른 국가나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이는 미동부에 최초의 조계종 해외특별교구(현 미동부지부)가 설립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미동부지역은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이후인 2012년 전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조계종 해외특별교구가 설립됐고, 종단 차원에서 교구장을 임명한 곳이다. 2017년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에 따라 현재 해외지회 형태로 운영 중이며, 이후 미국 중서부 지역에도 지회가 출범했다. 조계종 사찰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체계가 갖춰진 지역이라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 왼쪽)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언택트 신년인사회에서 "상생과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은 언택트로 진행된 신년인사회의 모습. 사진제공=조계종 홍보팀

원행 스님 "상생 · 화합으로 새 희망을"

청와대 주최 언택트 신년인사회서 신년 덕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년인사회에서 "상생과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신년덕담을 전했다. 올해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대국민 신년인사의 형태로 공개돼 주목된다. 특히 매년 새해 각 분야별 대표단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됐던 청와대 신년간담회가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언택트 방식으로 열린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7일 여야 정당 대표와 정부인사, 경제계 대표 등 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온라인 신년인사회를 진행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이기도 한 원행 스님은 종교 · 문화계 대표자격으로 참석했으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설치된 모니터 및 영상기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새해 덕담을 전했다.

이날 원행 스님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상생과 화합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희망으로 하나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스님은 "대한민국은 어떤 국난이나 위기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대통령님을 비롯한 여러분과 힘을 모아 종교계도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종교로서 우리 사회의 고통과 함께하겠다는 다짐과 위로도 전했다. 스님은 "종교계는 국민들이 위기에 지치지 않고 일상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인사에서 국민 일상의 회복과 마음의 통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와 경제위기 앞에서 의료인은 물론, 노동자와 기업, 자원봉사자와 화합 · 희망의 정신을 북돋아 준 종교계까지 많은 분들이 스스로 촛불이 되어 어둠을 밝혀주셨다"며 "올해는 회복과 통합과 도약의 해로 삼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와 관련 "다음달부터 코로나 백신접종을 시작할 방침이며, 국내기업의 치료제 심사도 진행중"이라며 "철저한 방역과 백신, 치료제를 통해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다음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국민 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크게 강화될 방침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다. 서로 존중하고 우리의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COVER STORY 숨겨진 성보 '마애종' 아시나요

국보 · 보물급 성보 '마애종'에 관심을

안양시를 대표하는 불교문화재는 단연 보물 제4호 중추사지 당간지주다. 이를 통해 통일신라 시기 안양에 중추사라는 사찰이 건립됐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이 자리에 고려 태조가 안양사를 세운다. 그리고 안양이라는 지명이 형성된다.

지금도 안양예술공원에는 중추사지 당간지주와 삼층석탑, 안양사의 금당지 등이 남아있다. 이 근처에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불교문화재가 있다. 바로 '석수동 마애종'이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2호인 '석수동 마애종'은 일반 마애조각상과는 다르다. 승려가 범종을 타종하는 모습을 조각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구를 통해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국내 · 외 유일 타종하는 마애상"이니 "지방문화재가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 보물)로 지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젠 숨겨져 있는 성보문화재 '마애종'이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고 보호 조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추사-안양사로 이어지는 일대 사격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관련기사 4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21년
4대 사업 공모 및 대원아카데미 학생 모집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2021년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진흥을 위해 2021년 상반기에 4가지 사업의 공모 및 대원아카데미 학생 모집을 실시합니다.

1. 제11회 원효학술상 공모
접수 기간 : 2021년 2월 1일(월) ~ 2월 26일(금)

2. 제2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 공모
접수 기간 : 2021년 1월 4일(월) ~ 1월 29일(금)

3. 제2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공모
접수 기간 : 2021년 2월 1일(월) ~ 2월 19일(금)

4. 제3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
접수 기간 : 2021년 2월 15일(월) ~ 3월 12일(금)

평생교육기관
대원아카데미
(구, 대원불교문화대학)
2021년 3월 개강
접수 기간 : 2021년 2월 1일~2월 26일
불교심리상담사,
명상지도사 자격 취득 가능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상세 공모 내용은 홈페이지(www.kbpf.org)
문의 : 02-719-2606, 1855

“부산시장, 소통·공감력 갖춘 민주적 인물 적격”

특별인터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올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박형준 동아대 교수의 ‘독주 체제’가 두드러졌다. 박 교수는 민주당 후보군과의 1대 1 가상대결에서도 모두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부산과 부산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2~3일 18세 이상 부산시민 1007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서 ‘여야 후보를 모두 포함한 부산시장 적합도’는 국민의힘 박형준 교수가 26.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박 교수가 후보군 중 유일하게 20%대 중·후반 지지율을 기록해, 다른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리며 1위로 치고 나가, 선거 초반 강세가 두드러졌다. 신년을 맞아 친불자로 알려진 박형준 후보를 만나 선거공약과 부산의 발전방안, 모태신앙인 불교관 등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정리=김주일 편집국장,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일자리 없어 청년 인구 줄어 심각…산학협동만이 해결책

북항랜드마크 지역에 해양 신산업과 스타트업 기업 유치할 터

‘부산형 15분 건설’ 공약, 짧은시간에 생활 가능한 도시 재구성

가덕도 신공항, 남부권 전체를 위한 물류 허브 공항 역할 필요

“불교는 모태신앙…부친 초량 천수사 불사 후원 돈독한 불자”

좌우명은 외유내강…포용과 통합의 정치 위해서 필요한 덕목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1960년 부산서 태어났다. 서울 숭덕초등학교, 동국대사대부중, 대일고를 거쳐 고려대를 졸업했다. 중앙일보 기자를 거쳐 1991년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로 임명됐다. 2004년에는 제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09년~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으며, 2011년에는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을, 2014년~16년에는 제 29대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은바 있다. 현재는 부산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교수로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서 출마 선언을 밝히셨는데요. 특히 북항 재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산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부산의 미래를 스스로 바꿔 갈 상징적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항 재개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현재 부산은 안타깝게도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돼 버렸습니다. 청년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없는 도시로 전락됐기 때문이죠. 청년에게 미래를 열어 주는 핵심 전략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부산이 새로운 산업 메카가 되어 기업 투자가 몰려들고 새 산업 육성 기반을 만들어야 가능한 일이죠. 22년 전 제가 부산서 시민운동할 때 정보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지역이 아파트와 상가가 많아지게 되면 실패할 수 있다고 단언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예상대로 거의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파트와 상가에 밀려 정보산업단지는 조금 밖에 형성이 안 됐죠.

북항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항 랜드마크 지역엔 해양 신산업과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몰려들게 해야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또한 마이스(Mice) 관광이 연결된 복합 관광 마이스 스타트업 기지로 만들어진다면 북항서 즐기고 보고 느끼고 쇼핑도 할 수 있는 메머드급 정보산업 관광단지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1년에 부산에는 500척 정도의 크루즈 배가 들어옵니다. 크루즈서 내리는 사람들이 부산서 몇 시간 안 머물고 돌아가지만 북항 개발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적어도 1박2일 동안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도시로 탈바꿈 될 것입니다.

▲시장에 당선되신다면 부산을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으신지요. 박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부산에 대한 미래 비전에 대해서 들려주시지요.

=제 비젼은 부산 전역을 새로운 산업혁명도시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담는 산학협력도시를 저는 ‘데우스밸리’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데이터와 제왕 제우스를 합친 용어입니다. 신산업 신기술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데이터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개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스터플랜은 당장 실현하기 어렵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에 우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부산 지역의 대학부터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대학이 죽으면 절대 산업을 키울 수 없죠. 연구개발, 취업 측면만 보더라도 산업혁명의 도시로 안 만들면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산은 굉장히 입지환경이 좋은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인 요즈마그룹과도 협약을 맺었는데, 스타트업 콤팩트 시티를 만드는데 투자 주도자로 참여하겠다는 계약입니다. 상징적인 스타트업 플랫폼을 몇 개 정도 만들면 부산서 기업하기 쉽다는 인식이 확산될 겁니다. 영상·미디어 등 문화 콘텐츠와 관광·마이스 분야에 특화된 스타트업 플랫폼도 만들 수 있고, 또 해양·물류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청년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지셨으니, 그래도 유권자들은 표를 던지기에 앞서 선거공약에 큰 관심을 둘 것입니다. 주요 선거 공약이 궁금합니다.

=‘부산형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 3대 전략으로 △동아시아 최초로 혁신적 교통수단 어반루프 추진을 통한 15분형 도시 조성 △15분 내 주거-문화-건강이 연결되는 생활권 조성 △탄소 중립형 전환도시 기반 구축 등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적 교통수단 ‘어반루프’는 초음속 진공을 활용해 도시와 국가를 이동하는 하이퍼루프(Hyper-Loop) 기술을 도시 내 이동여건에 맞게 적용한 최첨단 도시 교통 수단으로 5년 이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가 1280km에 달하는 하이퍼루프를 도심에 적용한 ‘어반루프’를 통해 신공항과 에코델타시티-북항-동부산을 잇는 약 55km를 연결하거나, 신공항-북항-동부산을 잇는 약 47km를 연결한다면 신공항과 북항 도심을 15분 내외로 주파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5분 안에 직장과 생활근린시설, 쇼핑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도시 구조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산의 중점 현안으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29.5%)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찬반 설문서도 찬성이 54.8%, 반대가 35.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2월 임시국회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히 부산만을 위한 공항이 아니라 남부권 전체를 위한 물류 허브 공항이죠. 가덕도신공항으로 인해 남부권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산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남부권이 수도권과 점점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허브 기능을 하는 곳이 수도권인 영종도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이예요. 98% 항공 물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도 항만이 있고, 세계 6위의 물동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옆에 항공 물류 허브가 있으면 환적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가덕도를 여객 공항이 아닌 물류허브 공항으로 만들자는 이유입니다.

▲‘부산 청년’이 고향에 등을 지고 있습니다. 잇따른 청년 정책 시도에도 20대는 일자리, 30대는 집을 찾아 떠밀려 가듯 부산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청년 감소율이 지난 10년간 20.6%로 7대 특·광역시 중 1위. ‘청년 소멸 도시’라는 불명예를 벗고 부산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입니다. 심각한 현실에 직면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은 앞으로 해양 신사업과 물류, 문화콘텐츠, 영상미디어 등 청년 일자리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몇개 있습니다. 관광 마이스 등 여러 분야를 특화해서 산업혁명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청년들이 안 떠나는 것 뿐아니라 부산 지역 대학들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출사표를 던지기 전부터 신년들어 현재까지 각종 차기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출연한 각종 TV 토론 프로그램들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를 대표적인 중도 보수 논객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동아대 교수로 부임한 이래 30여 년 동안 부산서 지내면서 시민운동도 하고 부산 수영구서 국회의원도 지내면서 시민들과 소통 역할을 했던 효과들이 쌓여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는 끝날때까지 절대 방심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4월 부산시장에 당선되시면 잔여 임기가 1년 2개월 정도인 내년 6월 30일에 끝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은 3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금 앞서가는 질문입니다만 연임에도 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번 부산시장에 당선되면 내년 재선에도 도전할 생각입니다. 준비한 정책과 공약들 중에는 부산의 미래를 바꿀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실행되어야 부산이 변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나아진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기에는 보궐 시장 임기인 1년 2개월은 짧다고 봅니다. 이왕 부산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나섰으니, 당선되면 부산을 위한 정책과 공약들이 실현되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재선에 도전할 것입니다.

▲부산시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후보가 시장에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일단 현정권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무능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 않는 정치에 대해 대다수 유권자들이 염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뒤집으려면 이제는 유능하고 혁신적이어야 되겠죠. 현안을 푸는 데 너무 이념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고, 혁신적 리더십을 갖춘 분이 시정을 이끄는 시장으로서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민주적인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리더십이지요.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부친께서 부산에 절을 창건하실 정도로 친불교적이라고 들었습니다. 평소 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불교와의 인연담이 있으시면 들려주시지요. 특히 중학교는 조계종립학교인 서울 장안동에 위치한 동국대 사대부중을 나오셨는데요.

=불교는 저에게 모태신앙입니다. 특히 부친께서는 불심이 돈독하셔서 초량에 있는 천수사를 지을때 불사 후원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 서울서 동국대부속중학교에 다닐때 불교학생회 활동을 했죠. 20대 때도 절에 많이 다녀서 친한 스님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공주 계룡산 신원사에는 방학만 되면 찾아갔고, 설악산 사찰에도 찾아가 머물며 템플스테이를 했습니다. 저에게 불교는 단순히 종교라기 보다는 삶의 철학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데 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인 셈이죠. 불교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뛰어난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정해 놓고 신앙인으로 충실히 생활하지 않기에 불자라고 말씀드리기엔 부끄러운 점이 있지만, 저의 행동과 삶 속에는 분명 불교적 가르침이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불도 부산이란 말처럼 부산경남권에서는 불교적 신심이 뛰어난 불자들이 많습니다. 만일 부산시장에 당선되신다면 불교를 위해 더 나아가 각 종교계의 화합과 균형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요.

=17대 국회의원시절 문광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불교는 종교적 차원을 떠나 한국의 전통문화와 결부된 성보 문화재와 공공재 성격이 짙은 유산들이 많습니다. 흔히 불도라고 하는 부산에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좋은 절과 성보 유산들이 많기에 불교국제교류사업에도 큰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요즘은 성탄절에도 조계사에 성탄트리를 만드는 종교 화합의 시대인 만큼 불교는 물론 각 종교들이 서로 화합하며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를 하시면서 좌우명으로 삼고 계신 글귀나 말씀이 있으시다면 소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우명은 외유내강하자는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에서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기본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의사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며 행위이죠.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임무인데, 이 공동체가 맨날 싸우고 갈라지고 적대적인 갈등속 환경에 놓여 있으면 구성원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잘 이끌어서 구성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공화주의 사상으로 보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포용과 통합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조계종 해외사찰 열람에 수록된 82개 사찰 현황. 박스는 미주지역에 위치한 해외사찰 분포도.

개인원력에 의존…종법 · 현실간 괴리도 문제

해외사찰 감소추세 원인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어느 분야든 포교는 쉽지 않다. 그 중에서도 한국불교 세계화를 이끌 토대로 인식되는 해외포교는 손꼽히는 난제다. 인종과 국적, 문화, 법체계 등 모든 것이 다른 타국에서 한국불교를 홍포하는 과정은 매순간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해외사찰이 해외포교의 첨병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그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 해외사찰의 감소추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편집자주〉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지난해 12월 22일 발간한 해외사찰 편람은 조계종이 종단 역사상 두 번째로 시행한 해외사찰 전수조사의 결과물이다. 조사는 3월부터 11월까지,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진행됐다. 결과는 참혹했다. 2009년 첫 전수조사 이후 11년새 57%가 감소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성공 스님은 "이번 해외사찰 현황조사 취합에 연락이 닿지 않아 미수록된 사찰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1차 현황조사 결과 분석과 함께 해외사찰 현황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해외교구활동과 사찰 지원을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는 조계종 해외사찰 첫 전수조사의 결과물인 2009년 편람에 수록된 142곳 사찰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찰이 20곳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지속됐던 코로나19 사태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후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오차 범주의 수치인 셈이다.

문제는 사찰과 연락은 닿았지만 조계종 해외사찰 편람에 수록되길 거부한 사찰들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각 사찰의 상황은 천차만별이지만, 실제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현황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조계종 소속임을 드러내길 거부한 사찰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해외사찰의 종단 연관성이 단절됐거나 희미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2011년 해외포교 체계화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해외특별교구법의 실효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해외특별교구법은 해외포교 관련 종책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지만, 입법취지와 다르게 실질적인 성과는 미비하다. 20여년간 해외사찰들과 교류해 온 한 관계자는 "해외특별교구법이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지만, 아직 이렇다 할 역할을 하거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사찰이 처한 현실과 법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스님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계종 종법에 따른 사찰 · 법인등록의 문제다. 조계종 스님

해외포교 첨병, 해외 사찰
다른 법세계 · 문화로 장벽
사찰 등록 등 어려움 존재
스님 입적 후 와해 되기도

이 해외사찰을 창건해 법인화한 경우, 조계종법에 따라 종단에 이를 신고 · 등록해야 하지만 정작 해외사찰의 경우 그 필요성이 모호한 상황이다. 상당수 해외사찰들은 현지 교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한국을 떠나 현지에 정착한 교민들에겐 사실상 사찰의 종단 정체성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사찰등록시 혜택이나 지원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실무자는 "한국의 경우 사찰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지 스님 등 스님을 중심으로 신도들과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구조라면, 외국은 교민사회에 사찰에 창건되고 상당수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종단이 의미가 없고 스님과 신도간 관계형성 과정도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무엇보다 개인 원력으로 사찰을 창건해 세월이 흘러 현지에 완전히 정착한 스님일 경우에는 딱히 조계종 승적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욱이 현지법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되는 해외사찰의 특성상 이사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신도들에게 사찰의 종단 등록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논란 혹은 반발이 생길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현지 교민들이 창건한 사찰에 조계종 스님을 초빙한 경우에는 신도들이 사찰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사들의 동의가 일종의 창건주 권한에 준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히 스님 역시 신도들과 동등한 법인 이사로, 사찰운영상의 권한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포교에 오랜 시간 매진해 온 조계종 前국제특보 정범 스님도 '미국불교 전법 현황과 포교전략' 보고서에서 해외사찰의 종단등록 및 주지인사제도 미비점을 지적한 바 있다.

스님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해외사찰 50곳이 종단에 제출한 현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종단 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사찰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필요성을 못느낀다' 는 답변이 8%, 필요하지만 현지 조건 등으로 등록이 불가하다가 16%, 나머지는 등록절차가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범 스님은 "종단 행정의 기본은 승적관리와 사찰등록인데, 해외사찰의 경우 국내사찰과 사찰등록 방식, 운영방식이 큰 차이가 있어 해외사찰에 이를 적용할 경우 예외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해외에서 법인을 중심으로 설립되는 사찰과 개인 원력에 의존해 창건되는 사찰에 대한 종단의 영향력 미비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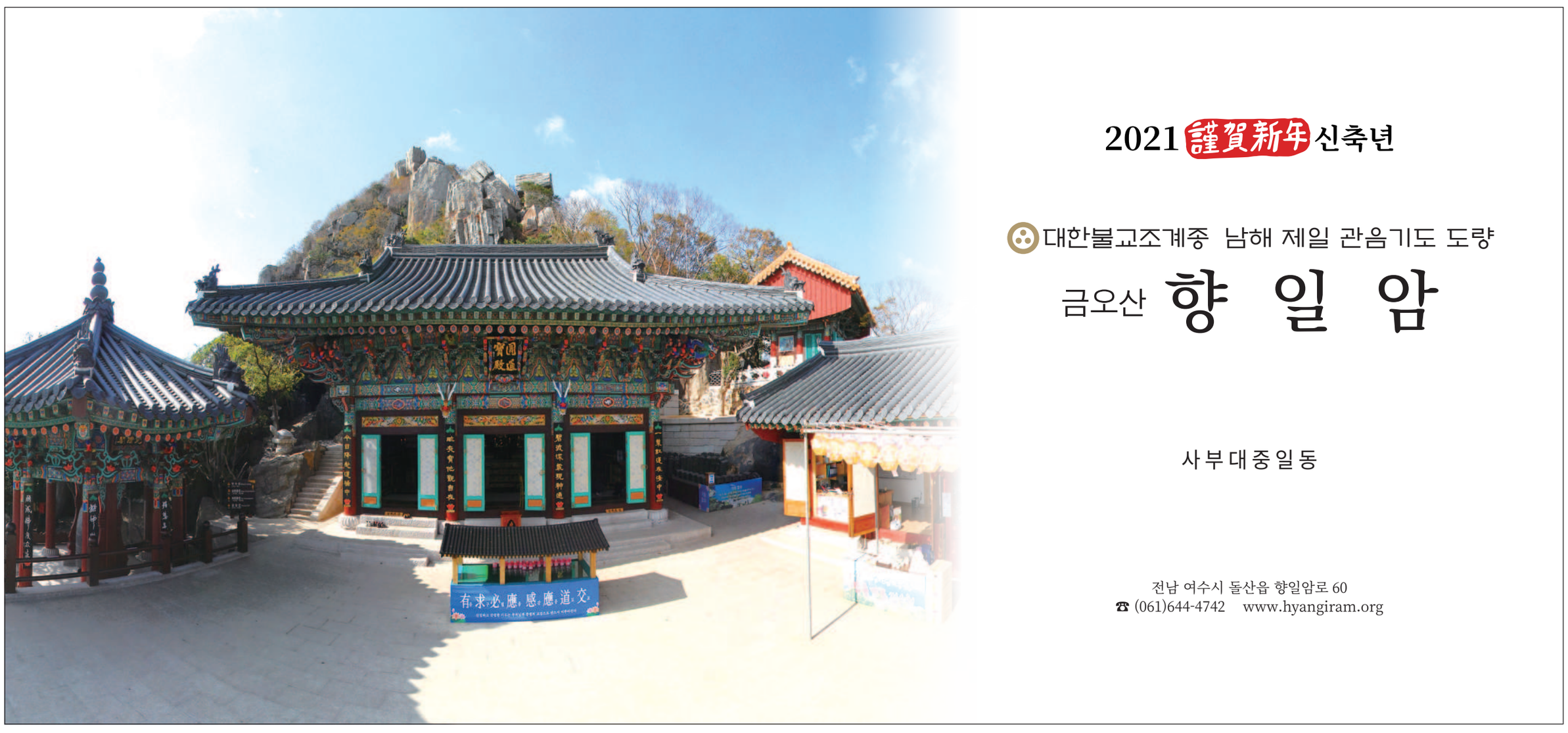
해외사찰에 대한 종단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 및 관리의 미흡함도 문제로 지적된다. 종무행정상 부서별로 관련업무가 분산돼 있고, 해외사찰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거나 교류하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은 2017년 해외특별교구법을 개정, 2018년부터 국내에 해외특별교구 사무국을 두고 해외지부 및 거점사찰 지정 형태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골자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업무 일원화를 꾀할 해외특별교구 사무국 등 전담부서는 부재한 상황이다. 해외포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종무행정의 범주에서 해외사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2011년 8월 미국 동부에 첫 해외특별교구가 출범했다. 사진은 현판 개막 장면.

해외사찰 감소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개인원력으로 사찰을 창건하거나 운영해 온 스님들의 부재다. 1960년대 이후 해외사찰들이 순차적으로 창건된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사찰공동체의 구심점이 됐던 스님이 입적하거나 병환으로 귀국한 뒤 사찰이 와해되는 수순을 밟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극단적인 경우 후임 스님과 신도, 혹은 신도간 법적 분쟁으로 번져 '무주공산(無主空山)' 으로 전락해 폐사 수순을 밟거나, 신도들 중심의 사찰 운영 형태로 전환되면서 종단과의 연결고리가 단절되기도 한다. 이는 조계종 교구본사 등 국내 주요사찰의 지원으로 창건한 해외사찰의 경우에도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삼보정재 유실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윤영희 조계종 사회부 팀장은 "해외사찰을 중심으로 한 해외포교 분야는 스님 개인과 사찰의 원력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해외사찰 편람 발간을 계기로 종단 차원에서 그 원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시아 유일 '마애타종상' 국가문화재 지정을…

〈국보 · 보물〉

숨겨진 성보 '마애종' 아시나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기 안양시 석수동에 있는 마애종. 고려 11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고려로 이어지는 범종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이 어떻게 걸리고 타종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사진제공=안양박물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32. 안양예술공원 뒤편 1차선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보호각이 설치된 마애조각상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안양 석수동 마애조각상은 여타의 마애불보살상과는 다르다. 부처님과 보살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 아니라 승려가 범종을 타종하는 모습을 조각해 놓았기 때문이다. 해당 문화재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2호 '석수동 마애종' 이다.

마애종의 재발견

마애종을 중심으로는 남쪽으로 통일신라에 창건된 중초사지와 고려 태조 때 건립된 안양사지, 서쪽으로는 장석광 사지가 있다. 이밖에도 주위에는 염불사, 삼막사 등 고찰들이 있어, 예로부터 해당 지역이 불교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초사에서 안양사를 거치다가 16세기 이후 안양사가 폐사되면서 잊혀졌던 마애종이 다시 부각된 것은 1916~1917년 조선총독부가 경기도 일대 고적조사를 실시하면서부터다. 해당 조사를 통해 마애종과 중초사지 당간지주, 삼층석탑, 귀부 등이 처음으로 조사 · 소개됐다.

하지만 중초사지 · 안양사지에는 1960년대 ㈜유유산업의 안양공장이 들어섰고, 2007년 안양시가 부지를 매입하기까지는 일대는 제대로 된 발굴과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1980년 6월 석수동 마애종이 경기도 유형문화재에 지정되고, 2001년 늦었지만 보호각이 설치되고 2018년 보호각을 재정비하는 조치가 꾸준히 진행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마애종 문화재적 가치는

석수동 마애종은 5m정도의 정방형 암면을 고르게 다듬고 음각과 양각을 이용해 승려가 두 손으로 당목(撞木)을 잡고 종루에 매달린 범종을 타종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애종 조성 시기를 고려시대 11세기 전 · 중반으로 보고 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통일신라 범종으로부터 당좌(撞座)는 종신 앞, 뒤에 2개가 장신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4개의 당좌가 표현된 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마애종은 통일신라 작품이라기보다 고려시대의 종을 묘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범종 전문가인 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는 연구논문 '안양 석수동 마애타종상 조형과 편년' 에서 "석수동의 마애종은 새로운 고려 범종의 이행을 보여주는 4개의 당좌를 지닌 고려 전기의 과도기적 범종을 재현한 작품"이라면서 "종루(鐘樓) 안에 달린 2m 조금 넘는 대형 범종을 당시의 스님이 당목으로 타종(打鐘)하는 구체적인 장면을 생략과 강조를 적절히 조화시킨 고려 전기 마애조각의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 마애조각은 국내 유일 뿐 아니라 아시아 유일의 마애타종상"이라며 "하루빨리 지방 문화재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응천 교수의 주장처럼 전문가들도 여러 연구를 통해 마애종이 갖는 역사적 · 예술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내 · 외 유일한 마애타종상으로 고려 전기 범종의 과도기적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범종의 실제 타종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의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2019년에 발간된 〈안양 석수동 마애종 학술조사보고서〉는 "마애종은 암벽에 부조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평면의 구성에서 입체적으로 실감나게 고려 전기 범종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양식적 단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은 안양박물관 학예사는 "나말여초 시대의 범종은 남아 있지만 어떻게 범종을 쳤는지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마애종은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범종을 타종했는지를 확인시켜준다"며 "타종하는 당목이 절구모양으로 묘사돼 있는데, 고대 범종의 당목을 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석수동 마애종은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삼층석탑 등의 불교문화재와 함께 안양사의 사역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라면서 "안양지역 성립과 성장을 알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대 종루의 모습을 추론할 수 있는 국내에 가장 이른 사료적 가치도 있다. 〈안양 석수동 마애종 학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범종이 설치된 종가(鐘架)가 당시 종루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며 "동아시아 고대 평지 사찰이 사찰 전면 혹은 후면에 대칭으로 종루와 경루를 배치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마애종은 한반도 고대 종루의 모습을 추론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이라고 밝힌다.

안양시, 지정 시도 '잰걸음'

이처럼 뛰어난 가치를 지닌 성보문화재이지만, 국보 ·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시도가 없던 것은 아니다. 2008년 11월 당시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안양군포의왕지부와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가 공동으로 '제3회 안양세계 마애종 문화포럼' 을 열고 지방문화재에 머물러 있는 석수동 마애종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으나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후 15년이 지난 2019년 8월 안양시는 '안양 석수동 마애종의 가치와 보존 및 활용' 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석수동 마애종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에 나섰다. 이후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해 9월 현장 방문을 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에 건의하기도 했다.

국보 ·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마애종 보존에 있다. 1차선 좁은 도로로 사람과 차량이 함께 사용하며 성보를 참배해야 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인근 재개발로 인한 대형 공사 차량들로 인해 문화재 암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이다.

하지만, 마애종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최대 난관은 지역 주민의 정서다. 현재 석수동 일원은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마애종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될 경우 주민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마애종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중초사지 · 안양사지 일원 종합 정비과 함께 마애종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준비 중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작한 중초사지 일원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마애종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도 함께 추진된다. 중초사-안양사로 이어지는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마애종과 안양사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신청할 것"이라며 "현재 소유자는 불교안양원인데, 구두 논의한 결과 지정에 이견을 갖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재적 가치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중초사지 종합정비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도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면서 "국내 · 외 유일 마애조각 '석수동 마애종' 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해 불교계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양예술공원 인근에 위치
2008 · 2019년 지정추진돼
아직까지 구체적 성과 미미
안양시측 "장기적으로 접근"



석수동 마애종 탁본

타종 마애조각 유일한 사례
고대 종루 · 타종 확인 가능
고려의 범종 양상 잘 보여줘
"국보 · 보물 지정 가치 충분"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공고

Ⅰ.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Ⅲ. 전형일정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20. 12. 28(월) ~ 2021. 02. 19(금)	· 총무원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인터넷 교부.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 및 합격자 발표	2021. 02. 25 (목)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 입학식 및 학사일정 추후 공지

※ 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Ⅳ.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 **특전** : 본종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 시 선덕 법계 품수

Ⅴ.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접수방법
공 통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기본증명서 1부 4.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6.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7. 사진: 반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이메일(dongbang2030@naver.com), 우편 접수 ※ 문의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TEL 02)745-2030 HP 010-3089-9983

Ⅵ. 교육비

○ 전형료 : 5 만원 ○ 입학금 : 20 만원
○ 등록금 : 학기당 70 만원 농협 301-0212-6468-11 예금주 / 한국불교태고종 동방대불원

입학문의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www.dongbang.org
TEL 02-745-2030, 010-3089-9983, FAX 02-733-0728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112)

미등록사찰 · 법인 도제도 승려복지 혜택

조계종, 1월 5일 개정안 입법예고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구족승을 대상으로 한 승려복지제도가 앞으로는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 도제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부 확대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는 1월 5일 '승려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단 미등록 사찰 및 미등록 법인의 권리인 · 관리인 · 임직원 도제에 대해 승려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해 주목된다.

현행 승려복지법은 결계신고를 필한 종단 구족승 모두를 지원대상으로 하지만, 미등록 사찰과 미등록 법인의 관계당사자와 도제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됐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도제까지 승려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일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일부 조정했다.

총무부는 개정취지에서 "종도로서 종단 소속감 고취와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참여의식 증대를 위해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관리인 및 권리인의 도제라는 이유로 승려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승려복지 기본부담금을 납부하는 종단 승려의 경우 미등록 사찰과 법인 관계당사자의 도제라도 승려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승려복지회의 승려복지 기금에 대한 지출범위를 확대, 재원 확충을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승려복지회의 지출 항목은 △법에 따른 각종 지원금 △승려복지회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그동안 승려복지 목적에 따른 단순지출 용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승려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승려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매입 등 항목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총무부는 "승려복지제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계종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1월 24일까지 서면과 이메일(pjh65@buddhism.or.kr), 팩스(02-733-3603)로 의견을 수렴 한데 이어, 종무회의와 중앙종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공포할 방침이다.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한 전국 교구신도회장 및 신도회 임원들이 하트를 그리고 있다.

중앙신도회 '온택트 간담회'로 새해 소통

전국 신도임원 한자리서 만나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구랍 29일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신도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온택트 간담회를 열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는 구랍 29일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줌(ZOOM)을 활용해 '2020 온택트 신도조직 송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정연만 중신회 부회장, 최상원 직할교구신도회장 등 지역의 교구신도회장, 문홍식 체육인불자연합회장 등 50여명의 임원진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현장에는 주윤식 회장과 팀장만 참석했다.

주윤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사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도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해에는 백신이 배포되는 등 희망적인 내용이 많은 만큼 더 빨리 힘을 모아 그동안 못했던 활동을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은해사 차기 주지후보에 덕관 · 불산 · 성담 스님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차기 주지 후보에 덕관 · 불산 · 성담 스님이 입후보했다. 이에 따라 은해사 차기 주지는 1월 15일 예정된 산중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월 3~5일 은해사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 결과 중앙종회의원 성로 스님과 덕관 스님, 환성사 주지 성범 스님과 운부암 주지 불산 스님이 최종 후보로 등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2일 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쳐 차기 주지후보 자격심사와 구성원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은해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1월 15일 은해사 육화원에서 개최된다.

덕관 스님은 금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청하 스님을 계사로 1992년 사미계, 1996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재무국장과 감사국장 등을 지냈으며 충주 미륵세계사 주지, 강화 보문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으로 불굴사 주지다.

불산 스님은 법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4년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1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35안거를 성만했으며 동화사 금당선원, 도성암, 운부암 등에서 선원장을 지냈다. 현재 운부암 주지다.

성담 스님은 혜국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6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9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환성사 주지, 경산경찰서 경승 소임을 맡고 있다.

송지희 기자



신년 설경 동안거 중인 1월 4일 부여 무량사에 눈이 내려 아름다운 설산의 자태가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설경을 찍는 참배객들의 모습은 없지만, 시름을 저멀리 날려보내는 어디선가 맑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하다. 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부여군

"불교 본연의 역할로서 변화에 대응할 것"

조계종, 5일 온라인 시무식 진행

조계종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불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가운데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665(2021)년 중앙종무기관 시무식을 진행했다.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갑시다' 제하로 이어진 이날 시무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로 실시간 공유됐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신년인사를 통해 불교 본연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스님은 "올 한해는 불확실성이 넘치는 해"라며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 사회적 흐름인 만큼, 불교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그것이 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 전통문화를 현대화하고 세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며 "사찰의 중첩된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과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제36대 총무원 집행부가 임기 3년차를 맞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원행 스님은 "종단은 미래 세대에 전해줄 불교 유산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한편, 중점 핵심과제의 실질적 성과를 열매 맺는 한 해로 삼고자 한다"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공심을 가지고 함께 역량을 모아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종무원들은 원진영 재무부 주임이 대표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처님처럼 동체대비 마음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지혜와 자비의 길로 함께할 것을 발원하고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지희 기자

월서 스님, 동국대일산병원에 1억 원 기탁

구랍 28일 전달…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데 도움을"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조실이자 국제구호단체인 '천호월서희망재단' 이사장인 월서 스님<사진>이 구랍 28일 동국대일산병원에 1억 원을 기탁했다.



월서 스님은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생명의 소중함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고 있다"며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고 기부 뜻을 설명했다.

월서 스님은 2012년부터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라오스 등 동남아 불교국가에 학교건립, 장학금 지원 등의 교육사업을 지원하면서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여왔다.

또, 최근에는 서울 공덕동주민센터와 마포구청에 코로나로 고통받는 불우이웃과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허, 만공, 보월, 금오 선사로 이어지는 법맥을 이어받은 월서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원로의원 등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낙연 대표, "공동체 가르침 필요한 시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5일 신년 인사차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사진>



이낙연 대표는 "불교계가 모범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신년사에서 공동체의식을 강조하셨는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이다. 국민들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마음의 손을 잡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사회를 통합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도 큰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화합과 상생을 위한 정치를 펼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慶州 雲門寺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 복지 제도와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 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모집대상 _ 2021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편입가능)
모집인원 _ 사미니과 ○○명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 만의 착용) 2매(3×4)
모집기간 _ 2020년 12월 ~ 2021년 3월 18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가능)
전형방법 _ 서류심사(※코로나19로 인하여 서류심사로 대신함)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재학 중 입학금면제 · 병원비지원 · 전학년 교재 및 도서 지원 · 졸업여행비지원
3) 동국대병원과 MOU체결-매년 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

운문사 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율주 일진
학장 진광 · 주지 운산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모집대상 _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21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모집인원 _ ○○명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모집기간 _ 2020년 12월 ~ 2021년 2월 1일까지
전형방법 _ 서류심사(※코로나19로 인하여 서류심사로 대신함)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및 교재지원
3)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 전문 습의사
4) 종단 교육연수비 지원 5) 해외 연수비지원 6)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율주 일진 · 주지 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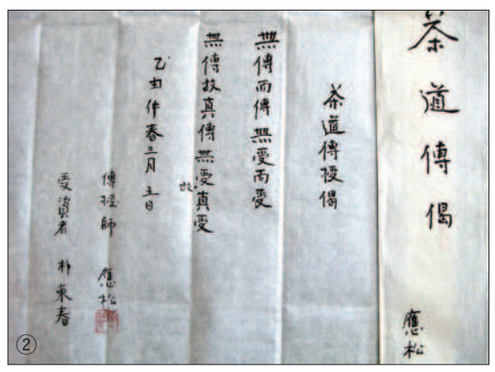
전화문의 054)372-8800, 054)370-7100 www.unmunsa.or.kr ※제출서류는 운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茶 본질은 '정화'…초의차 제다법 집필 원력



박동춘 소장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동국대학교 대학원 선학과에서 〈초의선사의 차문화관 연구〉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과 한국전통문화대학 겸임교수다. 주로 초의선사 관련 연구에 집중하며, 응송 스님에게 전수받은 초의선사의 제다법으로 차를 만들어 전통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작업 또한 병행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① 박동춘 소장은 1월 7일 국립광주박물관에 초의선사 관련 유물 일괄을 기증했다.

② 응송 스님이 박동춘 소장에게 내린 전다게.

③ ④ 초의선사가 사용하던 옹기다관과 일지암 인장 사진 등 기증한 유물의 모습

차인생 40여년 소장자료 기증한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이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 관련 고문서 등 169건 364점을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했다. 기증식을 하루 앞둔 1월 6일, 서울 운니동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에서 박 소장을 만났다. 맑고 청량한 '동춘차' 한잔 앞에 두고 초의선사에서 범해, 원응, 응송 스님으로 이어진 다풍을 계승하며 40여년 간 오직 차문화 복원과 계승, 연구에 매진해 온 그 인생에 담긴 철학을 들었다. 〈편집자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차의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초의선사 다맥을 이은 5대 계승자다. 28세 처음 차와 만났고 34세 응송 스님으로부터 전다게(傳茶偈)를 받았다. 이후 전통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한국차 복원과 체계적 정립을 위해 오롯이 한 길을 걸었다. 전통 계승의 원칙에 깊이를 더하는 경험과 학문적 연구는 '초의차 제다법'을 계승한 '동춘차'에 고스란히 쌓였다. 박 소장이 직접 만든 '동춘차'를 구매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판매를 하지 않는 것 역시 전통을 올곧게 지키기 위한 그의 신념이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올해로 벌써 42년이다.

박동춘 소장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다. 이론과 실증 연구를 통해 체득한 결과물들을 체계화해 대중에 회향하는 작업이다.

초의선사 다맥(茶脈) 5대 계승자
1985년 응송스님에 전다게 받아
'초의차' 전통, '동춘차'로 이어가

1월 7일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에서 진행된 기증식이 그 첫 걸음이다. 이날 박 소장은 그동안 소장해 온 초의선사 관련 고문서 등 유물 169건 364점을 일괄 기증했다. 응송 스님에게 전해 받은 초의선사 친필서책과 당대 지식인들과 교유한 서신 등이 주를 이룬다. 박 소장이 이후 연구과정에서 확보한 관련 유물도 함께다. 기증된 유물은 박 소장이 지난 40년간 내놓은 기초연구자료들과 함께, 초의선사의 차세계와 역사적 의미·가치를 보다 새롭고 폭넓게 조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박물관 측은 "기증유물은 19세기 초의선사를 비롯해 그와 교유한 인물들의 정황은 물론 조선후기의 차문화, 풍속, 종교, 문화 등을 풍성하게 담고 있어 우리 문화의 원형을 국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중요한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기증받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차 문화의 연원과 계보를 연구하고 동아시아 차문화 연구사업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가지 변화는 '제다법'의 결집이다. 올해 그는 초의차에서 동춘차로 이어지는 제다법을 정리해 세상에 내놓을 계획이다. 학문적인 분석과 연구, 전통에 기반한 제다경험 등 박 소장이 40년간 이론과 실전을 병행하며 정립한 제다 이론서다. 응송 스님과의 인연 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차를 만들어 온 박 소장은 지난 40년 세월을 담은 '동춘차'를 통해 그 제다법을 공고히 정립했다. 집필작업을 통해 사료에 근거해 익히고 체감하고 분석한 바를 모아, 초의선사를 시작으로 범해, 원응, 응송 스님으로 이어져 온 '제다 방법의 실체'를 현대적 언어로 서술하겠다는 원력이다. 매년 논문과 책을 통해 연구 결과물을 수없이 발표해 온 박 소장이지만, 정작 그의 담론을 세상에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소장은 "이론적인 정립이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실증과 연구적 차원에서 이제는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를 통해 후대에도 초의선사에서 이어진 전통 제다법이 체계적으로 계승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세월의 깊이를 더한 박 소장의 차세계를 일컬어 '전통문화 계승자로서의 경지'라고 평하는 이도 있다. 그럼에도 박 소장은 여전히 초심(初心)을 간직한 채다. 생애 처음으로 덖어 유념하고 재건한 '첫 차'의 강렬함이 그것이다.

"1979년 응송 스님이 소장한 고문헌 목록 조사를 위해 백흥암을 찾은 이듬해죠. 1980년 처음으로 차를 만들었습니다. 어둠이 겨우 가신 부엌에서 응송 스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뜨거운 가마솥에 다솔로 찻잎을 덖었지요. 공부만 하느라 부엌일은 해본 적도 없었는데, 놀랍게도 타지 않았더라고요.(웃음) 밤 12시쯤 응송 스님과 제가 처음 만든 그 첫 차를 마셨습니다. 향기가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숨쉴때마다 향이 솟아오르는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각인된 첫 차의 느낌이 지금까지도 제가 만드는 차의 기준이자 지향점이 되고 있죠."

백흥암에서의 삶은 단순했다. 매일 아침 차를 우려 마신 후 소장자료 목록조사를 하고 점심 후 또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스님의 자필 원고를 윤문했다. 스님은 학구열이 높은 박 소장에게 〈반야심경〉을 시작으로 경전 강설을 하며 불교사상을 전하기도 했다. 박 소장이 만들고 우려낸 차에 대해 응송 스님의 지적은 없었다. 다만 "맛이 좋다" "이 차 맛을 누가 알까" 독백을 하곤 했다.

그리고 응송 스님은 1985년 박 소장에게 '다도전수게(茶道傳授)'를 내렸다.

無傳而傳 無受而受
(무전이전 무수이수)
無傳故眞傳 無受故眞受
(무전고진전 무수고진수)

전함이 없는데 전했고, 받음이 없는데 받았네.
전함이 없으므로 참으로 전했고, 받음이 없는 고로 참으로 받았구나.

을축(乙丑: 1985년) 중춘 3월 5일
전수사 응송/수자자 박동춘

전다게는 우리나라 차문화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절 집안에서 내려오는 '다풍(茶風)'을, 재가자에게 계승했다는 점에서도 유일하다. 그랬기에 응송 스님은 가능한 가장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를 전승했다. 전다게와 함께 '무공(無空)'이라는 호도 내렸다.

"어렸고 공부와 차만 알지 세상물정은 몰랐죠.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받은 전다게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몰랐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스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유발제자인 제가 다맥을 잇는 것에 대해 후대에 혼란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스승의 헤아릴 수 없는 배려였습니다."

응송 스님은 전다게를 내리며 "초의스님 연구를 지속하라"고 위촉했다. 그리고 초의스님과 관련한 모든 소장자료를 박 소장에게 전했다.

박 소장은 스님의 친필저술을 책으로 출간하겠다는 원을 세웠고, 1985년 '동다정통고' 초간본을, 2015년 재간본을 발간해 이를 이뤘다.

1990년은 제다의 감각을 새롭게 깨달은 해다. 10년간 매년 응송 스님과 함께 차를 만들어 왔지만, 그해 스님의 입적 후 처음으로 혼자 차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백흥암을 나와 결혼해 살림을 꾸린 이후에도 초파일 전후엔 항상 스님과 함께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온전히 처음으로 만든 차였다.

"백흥암이나 극락암에서 스님과 차를 만들 때는 차를 따 가져오는 시간 때문에 항상 밤늦게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는 차밭 인근에서 차를 만들다보니 낮에 만들게 됐죠. 가마솥에서 찻잎의 색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첫차는 태우고 말았죠. 그다음엔 눈을 감고 온전히 감각에 의존해 차를 덖었어요. 감각이 살아나니 다시 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박 소장이 만드는 '동춘차'는 긴 세월 조금씩 변화했다. 처음엔 마치 찔릴 것 같은 맑음이었다. 이에 대해 한 시인은 "광목에 풀을 먹인 듯 하다"고 평하기도 했다. '동춘차'는 점점 따뜻하고 온화해졌다. 맑고 투명함을 장점으로 차를 만든 시기를 지나 온화함이 더해진 것이 6년 전부터다.

"차가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의 정점은 '정화'라고 봅니다.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좋은 차는 기본적으로 맑은 동시에 그 느낌은 온화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죠. 결국 온화함이 차가 닿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지라고 생각해요."

1월 7일 소장 유물 364점 기증식
초의선사 교유서신 · 육필저술 등
우리 차문화 계보 드러내는 토대

제다법으로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범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의식의 반영'이다. 결국 수행의 정도에 따라 드러난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차를 만드는 사람의 의식세계가 차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제게 있어 삶과 차는 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초의 선사와 응송 스님의 차 세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박 소장은 초의선사 차의 정수는 불이(不二) 사상과 원융(圓融)에 있다고 봤으며, 이는 응송 스님 또한 마찬가지였다.

"초의 스님의 〈동다송〉 마지막에 백운(白雲)과 명월(明月)을 같이 불러, 백운은 방석으로 삼고 명월은 촛대로 삼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만물의 세계이자 저것과 이것이 다르지 않으며 차를 통해 모든 만물이 원융됨을 의미한다는 생각입니다. 응송 스님은 이에 더해 차를 즐기는 수행승의 참맛을 늘 강조하셨죠."

박 소장의 길에 함께한 조력자들에게 감사도 전했다. 특히 최완수 간송미술관 미술연구소장은 전통의 계승과 대중화의 간격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때마다 차의 본질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줬다. 상업화를 통해 대중화를 해야 할지, 전통의 정체성을 고수하며 심화연구를 향해야 할지 혼란한 시기, 최완수 소장의 말은 박 소장의 중심을 세우는 하나의 원칙이 됐다.

"전통문화의 본질을 계승하는 사람은 마치 산에서 솟는 샘물과 같은 존재다. 그 물의 존재는 전통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대중화에 뛰어드는 것은 맞지 않다."

또다른 조력자의 "차의 진면목을 드러내려면 수행을 통해 경지를 넘어서야 한다"는 조언은 차의 세계를 더 명징하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며, 차가 가진 기운에 대한 식견을 열어준 인연도 있다. 박 소장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언들이 큰 힘이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동춘 소장에게 과거 전다게를 받으며 응송 스님과 한 약속에 대해 물었다.

"한해도 놓지 않고 논물과 저술을 통해 연구 결과물을 발표해 왔으니 현재까지는 스승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봅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그 약속을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에도 지극한 승보 공양 눈길

조계종부산聯, '찾아가는 승보공양' 진행

제 10회 성도재일 기념으로
1월 8일까지 승보공양 진행
인원최소화, 방역규칙 지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성도재일을 맞아 구랍 26일부터 1월 8일까지 '찾아가는 승보공양'을 진행했다.

매년 성도재일을 맞아 진행된 조계종부산연합회 승보공양법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찾아가는 승보공양으로 전개됐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는 성도재일을 맞아 구랍 26일부터 1월 8일까지 '찾아가는 승보공양'을 진행했다.

먼저 조계종부산연합회는 구랍 26일 혜원정사에서 '제10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법회 고불식'을 봉행하고 첫 출발을 알렸다.

고불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다. 고불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으로 시작해 육법공양과 공양물 불단 봉정, 발원문, 화동 꽃 공양, 공양물 전달,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공양물은 연합회 회원 사찰 소속 불자들이 십시일반 모았으며 장갑, 면도기, 마스크, 치약, 잣, 향로, 초콜릿. 스탠드, 조끼 등 다양한 물품으로 마련됐다.

이어 공양단은 스님과 재가불자로 구성돼 조를 구성했고 릴레이 승보공양을 진행했다. 먼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친견하고 공양물을 올렸으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주지 현문 스님, 조계종 전 교육원장 무비 스님,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 국청사 주지 계전 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안국사 주지 원범 스님, 화엄법계사 회주 도업 스님,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비구니 화엄회 묘선 스님, 순행 스님, 인지사 주지 법성 스님,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 전법도량 의장 만초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한마음선원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순으로 찾아가 공양물을 전달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부처님의 깨달으신 날, 성도재일을 성대한 행사로 축하하고 기념해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법회가 취소된 상황이지만 조계종부산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불자들은 승가의 거룩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의지를 더욱 굳게 세웠다.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은 법문에서 "재가불자는 수행자가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받은 수행자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수행해 다시 재가불자들에게 법으로 회향하는 것이 공양의 참된 의미"라며 "승보공양법회는 수행자와 재가자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성도재일 기념 '찾아가는 승보공양법회'는 BTN불교TV 다큐멘터리로 방영된다. 방영일정은 1월 20일 성도재일 특집 프로그램 및 2월 12일 성도재일 다큐설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한편, 승보공양법회 기념으로 선정한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상은 안병선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이 선정됐다.

부산광역시장상은 단체부문에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이 수상하며 개인부문은 백승완 부산보훈병원 병원장이 받는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신축 기념 도록 발간

소장유물 도록 〈범어사의 불화〉 발간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박물관 신축을 기념해 소장유물도록을 제작했다. 〈범어사의 불화(梵魚寺의 佛畵)〉는 범어사가 소장하고 있는 불화의 각 도상과 내용 그리고 가치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임진왜란과 화재 등 악재에도 지켜온 불교문화를 소개하고 신축 박물관을 통해 시민에게 불교문화의 가치를 유구히 전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범어사의 불화〉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주제는 전각의 탱화이다. 범어사 전각에는 불보살과 신중 등 불화들이 족자나 액자 형태로 걸려 있다. 범어사는 대웅전 '영산회상도'를 비롯해 17점 작품이 문화재로 지정 받아 중요도를 인정받았다.

2부 주제는 전각의 벽화이다. 범어사 대웅전에는 내·외부 벽체와 목조 부재 위에 많은 벽화가 남아 있다. 많은 사찰에서는 중창 불사 및 보수 시 벽화가 유실 되는 경우가 있는데 범어사는 현재까지 그 형태가 남아 보존되고 있다. 3부 주제는 야단(野壇)의 괘불탱이다. 사찰은 많은 대중이 모이는 특별한 법회 때 야외 괘불대에 대형 불화를 건다. 개산대재와 수계산림 등 불교 의례가 봉행될 때 야외에 걸어두는 대형 불화를 모아 소개했다.

4부 주제는 범어사 성보박물관 소장 불화이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범어사 및 범어사 말사 불교문화재를 보관, 전시, 연구하고 있다. 17세기 이후부터 근현대기에 이르는 소장 불화들을 소개하고 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박물관 신축을 기념하며 소장유물도록 집 제 3권 〈범어사의 불화(梵魚寺의 佛畵)〉를 발간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사찰은 종교인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또한 쉼 없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각 전각이나 박물관에서 불화를 자주 접한다"며 "반면 불화 속 주제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다소 어렵게 여겨지기에 이번 도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역사와 문화에 다가갈 수 있도록 불화의 도상과 내용, 그 가르침들을 소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범어사 성보물관은 신축될 박물관을 기념하며 시리즈로 도록을 발간 중이다. 2018년 첫 번째 도록 〈범어사의 전적(梵魚寺의 典籍)〉과 2019년에 두 번째 도록으로 〈범어사의 전각(梵魚寺의 殿閣)〉을 발간한 바 있다. 앞으로 불상과 공예품 등 항목별로 분류해 도록을 지속적으로 낼 예정이다. 한편,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올해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진성 스님, 전주시장 표창 수여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이 서민들의 악성부채해소에 대한 공로로 전주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구랍 28일 전주시민 39명의 부실채권 10억 6600여만원의 부실채권을 소각하고 후원에 참여한 종교계와 금융권 관계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장은 부실채권 소각에 도움을 준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과 원불교 전북교구 사무국장 김도영 씨와 박춘기 전북은행 여신관리부 팀장에게 전달됐다.

표창장 시상식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전주시는 2016년부터 4대종교단체의 후원을 받아 부실채권을 소각해왔다. 부실채권 소각은 빚에 허덕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을 저가로 매입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줌으로써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주시에 부실채권소각대금을 전달하고 있는 전북봉축위원장 성우 스님(사진왼쪽)과 진성 스님

올해에는 원금 2억 5400만원, 이자 8억 1200만원 등 총 10억 6600여만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또 올해까지 4대종교단체의 후원을 받아 383명이 빚 63억 9000만원을 탕감해 서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왔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이번 부실채권 소각이 채무불이행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더해져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빛이 돼 새로운 출발이 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전북봉축위원회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함께한 일인데 제가 상을 받게 되어 뭐라고 감사의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봉축위원회는 2016년부터 매년 부처님오신날에 '빛에서 빛으로'라는 슬로건으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전주시에 전달해 서민들의 악성부채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향일암 여수시에 연말연시 물품전달

여수 향일암(주지 지인)은 연말연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자비나눔의 쌀(백미 5,000kg)와 kf-94 마스크 1만장을 마련해 지난 12월 30일 여수시(시장 권오봉)에 전달했다.〈사진〉

신도들의 공양미로 마련된 백미 5,000kg(10kg 500포)은 돌산지역을 비롯한 읍면동 홀몸 어르신과 복지위기가구 300세대와 지역아동센터 40개소에 지원되며, 마스크 1만장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48개소에 골고루 전해질 예정이다.

주지 지인 스님은 전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힘들지만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은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는 것 같다. 작은 정성이지만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시기가 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향일암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돋이 관광명소인데, 코로나19로 모든 행사가 전면 취소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어려운 시기에도 나눔의 뜻을 펼쳐주신 향일암에 깊이 감사드리며, 사찰 스님과 신도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지인 스님, 화엄사 사회국장 해덕 스님, 권오봉 시장 외에도 이영희 향일암 신도회장, 강정순 총무, 박성미 시의원, 이미경 시의원, 이광일 도의원 등이 참여해 전달식을 축하했다.

한편 향일암은 굿월드자선은행 외 3개 단체 정기후원 등 매년 1억 원 상당을 후원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보현회, 결핵환자 건강과 포교 후원

구랍 27일, 360만 원 상당 후원금 및 물품 지원

부산 보현회 회원들이 결핵환자를 위한 포교와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자비나눔도량 보현회(회장 안성이)가 구랍 27일 보현정사에서 결핵환자 응원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사진〉

보현회는 매년 연말이면 결핵환자들을 위한 국립요양병원 마산병원을 방문, 후원금 및 영양제, 간식 등을 지원하고 포교와 환자 돌보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나눔은 코로나 19예방을 위해 보현정사에서 나눔식을 개최하고 의의를 전달했다.

이날 보현회는 환자들을 위한 영양제 약값 100만원과 마스크, 떡, 과일 등을 담은 선물(230만 원 상당)을 전달했



으며 결핵환자를 위한 포교원 관해사에 난방비 30만 원을 아울러 후원했다. 보현회는 관해사와 30여 년 동안 인연을 이어오며 결핵환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현재 관해사는 영양제 지급 및 정기 후원 활동으로 결핵환자 돌봄과 포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 대안가정 자운영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정종사, 방생 자비금 모아 백미로 회향

양산 정종사가 방생 동참금을 모아 백미 나눔으로 회향했다. 자비도량 정종사(주지 여해)는 구랍 28일 정종사 반야보전 앞에서 '자비나눔 쌀 전달식'을 봉행했다.〈사진〉

백미는 총2600kg(850만원 상당)이며 양산통도사 자비원에 전달됐다. 자비원은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백미는 자비원 서비스 대상 700세대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200여 가구를 선정해 전달됐다.

주지 여해 스님은 "보시바라밀이 최고 공덕이다"며 "정종사는 항상 투명하



게 보시금을 관리 공개하고 있다. 신도님들의 보시금을 모아 잘 전달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정종사는 보시 바라밀을 강조하는 신행으로 자비심을 개발하도록 돕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견강암, 팥죽 나누며 코로나 극복 응원

부산 견강암이 팥죽을 나누며 코로나로 지친 상인들과 시민들을 위로했다. 자비참회도량 견강암(주지 향공)이 구랍 18일 부산 사상구 모라동 일대에서 '코로나 19 극복 팥죽나눔'을 진행했다. 견강암은 다가오는 동지에 새 희망을 선물하고 코로나로 인해 지친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사진〉

팥죽 1000그릇을 마련하기 위해 견강암 자비나눔 봉사팀 정각원 회원들이 함께 동참했다.

주지 향공 스님은 "정각원 회원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며 모두가 팥죽 나눔



에 십시일반 동참했다. 회원들의 가족들까지도 묵묵하게 동참해준다"며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마음을 훌훌 털고 상인들과 시민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견강암은 매년 장학금 및 백미 전달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재주기자

"춥고 배고픈 이들 미소 짓게 하고 싶어"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

"코로나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웠습니다. 독거 어르신들과 소외 이웃을 위해 반찬을 통에 담고 손편지를 적었습니다. 정성과 마음을 함께 전달해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길 바랐습니다. 그 분들의 미소가 저의 보람입니다."

장유정 사단법인 미소원 이사장〈사진〉이 구랍 17일 부산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국무총리 표창장을 수상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상장 전달로만 대체되었으나 부산동구자원봉사센터는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표창장 수상을 축

하했다.

장 이사장은 "10년 전 미소원을 창립하며 저는 미소원에 출가를 했다고 생각했다. 그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인사, 혜암당 성관 스님 추모다례재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지낸 혜암당 성관 스님의 19주기 추모다례재를 구랍 31일 봉행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세민 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혜암문도회장 성법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사진〉

혜암당 성관 스님은 1920년 3월 22일 태어나 14세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7세에 일본으로 유학해 동양철학을 공부하던 중 조사어록을 보고 출가를 결심했다. 1946년 해인사에 입산해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계를



받고 1967년부터 해인사 소임을 살았다.

성관 스님은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가르침으로 후학들에게 수행정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스님은 해인사 주지, 원로의원, 원로의장을 역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달라이라마, 신년 메시지 '자비행'

1월 1일 유튜브로 공개돼
한국어 자막판도 전해져
이타행 · 배려의 삶 강조
한국불자와 언택트법회도

박영빈 객원기자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공식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달라이라마 공식 사무국은 지난 1월 1일, 유튜브를 통해 사전에 녹화된 공식 메시지를 전세계에 공개, 한국어 자막판도 함께 공개됐다.

영어로 신년 메시지를 전한 달라이라마는 먼저 새해를 맞이한 모든 이들에게 행복한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운을 띄웠다. 관저에서 녹화된 영상에서 달라이라마는 1월 1일 이에 대해 "우리의 몸은 또 한해 늙어가지만, 마음은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달라이라마가 전하는 새해 인사가 모두에게 행복을 전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달라이라마의 신년메시지.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에 대하여 달라이라마는 "새해 첫 날, 제일 먼저 지난 한 해를 보람차게 잘 보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남을 돕고 배려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되살펴 보며, 적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며 이타심이 충만한 삶을 살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삶을 보냈다면 새해 첫 날인 오늘부터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내 육신과 이름은 바뀌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마음을 바꿔 자비롭게 살 것이다. 보다 의미 있게 살 것이다.' 이것이 새해를 맞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이라고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새해를 맞아 파티나 모임을 갖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과음으로 새해를 망치지 말라는 농담을 섞어 "새해에는 보다 평화롭고 온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덕담을 전했다. 또한 이러한 발전은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매년 이리 되어야 할 것"이라며 새해 인사를 마무리 했다.

달라이라마의 새해인사에 대해 세계 여러 불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한 불자는 "나의 새해 목표를 무엇으로 잡을지 달라이라마께서 정해주셨다. 더욱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다짐을 댓글로 달아 많은 호응을 받았다.

러시아의 한 불자도 "올 한해도 더욱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널리 비추는 한해가 되길 서원한다"며 다짐을 굳혔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새 해 첫 온라인 법회로 1월 5일부터 3일간 여수 석천사 진옥 스님을 대표로 한 한국인 불자들의 요청에 따라 〈반야심경〉에 대한 법문을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이번 온라인 법회서는 한국인 불자 900여 명이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 동시통역 법문을 들었다.

갠지스 계곡서 고대 불교사원 터 발견

발굴팀장 "당나라 현장 스님 저서에도 등장"

인도 갠지스 계곡의 언덕 꼭대기에서 고대 불교 사원이 발견돼 놀라움을 자아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이 당나라 초기 고승으로서 우리나라에선 '삼장법사'로 잘 알려진 현장(玄奘) 스님의 책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도 등장한 바 있다고 보고 있다.

인도 매체 힌두스탄타임즈(The Hindustan time)는 1월 4일(현지시간) "인도 동부의 비하르(Bihar)주(州) 라키사라이(Lakhisarai) 지역에 위치한 랄파하리(Lal Pahari)에서 갠지스 계곡에선 최초로 언덕 위 불교 사원이 발견됐다"며 "예술 · 문화 · 청소년 관련 부처인 비하르 유산 개발 협회(the Bihar Heritage Development Society)와 서부 벵갈의 산티니케탄에 위치한 비스바-바가티 대학(the Visva-Bharati University)의 공동 협력 중 발견된 이 발견은 대승불교의 거대 중심지로 여겨진다"고 보도했다.

발굴팀장인 비스바-바가티 대학의 애닐 쿠마르(Anil Kumar) 박사는 "그동안 이 지역의 많은 곳에서 불교 사원이 발견됐지만, 언덕 꼭대기에 있는 불교 사원은 처음"이라며 "대승불교 신자들이 고요한 상태에서 수행하기 위해 번잡한 도시에서 떨어진 이곳에 사원을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사원의 이름은 '스리마다르마비하릭 마얍히크수상하샤'(Srimaddharmaviharik aryabhiksusanghasya)였다는 게 쿠마르 박사의 설명이다. 그는 "이 수도원의 발견은 현장 스님이 쓴 여행록의 내용을 증명한다"며 "현장 스님은 이 지역에 수많은 불교 사원이 있었으며, 심지어 부처님도 이곳에 머무르곤 했다"고 했다.


인도 동부의 비하르(Bihar)주(州) 라키사라이(Lakhisarai) 지역에 위치한 랄 파하리(Lal Pahari)에서 갠지스 계곡에선 최초로 언덕 위 불교 사원이 발견됐다.
사진출처=힌두스탄타임즈

이어 "이 지역은 '크리밀라'(Krimila)라는 이름으로 알려진다. 그 이름은 불교 문헌에서도 언급된다"며 "인도 팔라 제국(Pala period) 당시 이 지역은 거대한 무역지대이자, 통치와 행정의 중심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욱 괄목할 만한 점은 저명한 영국의 고고학자 알렉산더 커닝엄(Alexander Cunningham)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크리밀라에서 많은 불교 사원을 발견했다' 고 적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발굴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비하르 주정부는 당장 이 유적지에 대한 정교한 보존 계획을 수립했다. 장기간 풍화작용 이후 열악한 기상조건에 노출돼 발굴된 구조물들이 자연 붕괴될 위험이 높다는 게 주정부의 설명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日, 코로나 19 예방 새해 첫 참배 규칙 발표

日불교계 공동 메시지
'분산해 참배해 주세요'

새해에 들어서도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 종교계에 비상이 걸렸다. 신년의 소망을 기원하며 사찰과 신사를 참배하는 '하츠모데(初詣)'라는 전통풍습 때문이다. 새해를 맞아 귀성객이 증가하고 가족단위 참배가 많은 점도 고민거리다.

이에 대해 일본 불교계와 신토(神道)계가 함께 코로나 예방을 위한 공동 메시지를 발표, 지난해 12월 27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츄니치 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양 종교계가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을 주요 보도했다.

이번 메시지 발표에 함께 한 미카즈키 다이조 사가(滋賀)현 지사는 "보통 하츠모데를 위해 유명한 고찰이나 신사를 찾아 원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급적 지역 사찰이나 신사 등으로 분산하여 참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월 참배전통인 하츠모데를 앞두고 규칙을 발표하는 일본 불교계 인사들.

사가현 불교회 회장인 다케다 엔류 스님도 "참배시 행동양식을 알게 쉽게 정리하여 사찰측으로서도 최선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엔류 스님은 천년고찰이자 천태종 본산의 한곳인 사이쿄지(西教寺)의 관수(貫首, 한국의 방장)으로 연간 200만명 가까이 몰리는 하츠모데에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신토측 대표인 스미요시대사(日吉大社)의 마부치 나오키 궁사(宮司)역시 "전통적으로 정월이라 함은 입춘까지로 말해진다. 그 기간 동안의 참배는 모두 하츠모데"라며 사람이 몰리지 않는 시기를 맞추어 참배해 달라고 부탁했다.

스미요시 대사는 오사카에 소재한 대형 신사로 전국에 2,300개의 분사가 산재해 있다.

이번 공동메시지에선 일본어 '카키쿠케코(かきくけこ)'를 앞머리로 하는 5가지의 참배규칙이 발표됐다.

'1. 변함없는 기원을 위해(카)', '2. 거리는 유지하고(키)', '3. 입은 굳게(쿠)', '4. 경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하고(케)', '5. 혼잡은 피하자(코)' 로 정해진 참배규칙은 각 사찰과 신사에 포스터로 인쇄되어 배포될 예정이다.

일본 불교계는 하츠모데로 인한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장을 세우고 있는 한편, 코로나 19의 예방과 소외계층 구호를 위한 기도회와 모금활동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25일, 나고야시의 사암연합회는 구호금 123만엔(한화 약 1,300만원)을 시에 전달하였고, 미에(三重)현에서는 정월을 맞이해 각 사찰의 주지들이 모여 특별기도회를 봉행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국경 없는' 불교도, 코로나19 극복 '합심'

2020년 남중국해 불교 원탁회의 온라인서 진행

2020년 남중국해 불교 원탁회의가 지난해 12월 30일 열렸다고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이 1일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을 고려해 남중국 선전(深圳)시에 주요 거점을 설정하고, 사상 첫 온라인 회의로 진행됐다.

해당 매체는 "중국과 영국, 미얀마, 필리핀, 몽골, 네팔,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의 불교도들이 온라인에 모였다"며 "전 세계 불자들에게 코로나19에 맞서 인류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한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다"라고 전했다.

중국불교협회의 부회장인 윈슌(Yin Shun)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펜데믹은 세계적인 재앙"이라며 "남중국해 지역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전 세계 불교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GTN이 보도한 언택트 회의.

주최 측은 "이번 원탁회의는 자애와 친절, 협력이라는 전통적인 불교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통합, 계승하려는 의미"라며 "전 세계의 위기 속 민생과 사회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불교의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객원기자

전법사교육원 학생 모집 안내

대승교화종단인 한국불교태고종 전법사교육원에서 아래와 같이 전법사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전국 사찰의 교임, 관리인 및 전법사 수계 후 교육 미 이수자는 반드시 교육원 입학을 하시기 바라며,
전법사에 뜻이 있는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1. 모집학과 및 전형

학 과	모집인원	교학과목	교학기간	수강요일 및 시간	전형방법
전법사교육원	00명	① 불교기초교리 ② 불교의식	1년(2학기)	매주 목요일 오후 1~5시	서류심사

2.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구비서류	비 고
원서교부 및 접수	2021. 1. 4(월) ~ 2021. 2. 8(월)	① 입학원서(교육원 소정양식) ※ 총무원 교무부 교부, 접수 ※ 입학원서: 종단홈페이지(다운로드) (www.taego.kr)	사진 2매 (3×4cm)
합격자 발표	2021. 2. 19(금)	개별통보	

3. 응시자격

구 분	항 목	비 고
자격사항	① 전국 사찰 교임, 관리인 ② 전법사 수계 후 교육 미 이수자 ③ 연령 25세 이상의 전법사 희망자	

4. 입학 및 개강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입학식 및 개강	2021. 3. 4. (목). 오전 11시 ※ 장소 및 일시 추후 개별통보	입학식 후 개강

5. 등록금: 50만원(1학기)
※ 문의처: 총무원 교무부(02-739-3450)

한국불교태고종 전법사교육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6~1/1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코신 사랑	김원수	청우당
2	연기와 공 그리고 무상과 무아	홍창성	운주사
3	굿바이 분노 : 보리심 완성을 위한 실천 수행법	원빈스님	이층버스
4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 내려놓고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법	법륜스님	정토
5	요가 디피카(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6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7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8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9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10	조용헌의 영지 순례 : 기운과 풍광 인생 순례지를 알려주는 영지 23곳	조용헌	불광출판사

책세상

"깨닫고 난 다음은? 그래도 공부하라"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모든 것이다

임순희 지음
불광 펴냄/1만 65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스스로 자각할 뿐, 깨달음 누구 소유 아니다

깨달음에 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 중 하나는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는 믿음이다. 남성, 특히 출가해서 평생 홀로 수행한 사람만이 이를 수 있는 남다른 경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모든 생명에는 불성(佛性)이 있으며 누구나 깨달아 붓다가 될 수 있다는 대승불교를 배우는 이들에게조차 이런 시각이 팽배하다. 하지만 깨달음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석가모니 붓다가 말했듯 깨달음은 마음과 행위의 문제이지, 성별과 신분 등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여성 선지식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떡 파는 할머니에서부터 기녀, 왕비, 열두 살 소녀, 천민, 평범한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지와 환경에서 깨달음의 문을 연 여성들이다. 그녀들의 삶과 출가 인연 등은 제각각이지만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출발해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들에겐 지식의 높고 낮음, 재산의 많고 적음, 지위의 귀함과 천함 등 삶의 어떤 이력과 행적도 중요하지 않았다. 깨달음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깨달음은 본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다른 곳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다른 이름은 자각(自覺)이다.

나와 너의 깨달음이 따로 있지 않다. 남자와 여자의 깨달음이 따로 있지 않다. 모든 깨달음은 한 자리로 통한다. 모든 행위와 현상과 존재의 바탕으로서 그 자리에 깨달음이 있다. 자신의 삶과 세상에 관한 진지한 관심과 탐구에 따라 그것이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을 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정해진 자격과 조건은 없다. 이 책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나'라는 집착 고통 만든다 …타인은 지옥이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음까지 초월할 수 있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깨달음은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행위의 바탕이 되는 본성을 확인하는 일이다. 붓다의 말을 빌리면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은 항상 변해서 머물러 있지 않다. 모든 것이 마음 하나에서 일어나며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치를 온몸으로 체감하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실재가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만들어 낸 의식일 뿐임을 알게 된다. 그 사실을 알고 보면 괴로울 일이 없다.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나와 내 것이 따로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있으면 타인이 있다. 내 것이 생기면 내 것 아닌 것이 생겨난다. 욕심과 집착과 분별이 일어난다. 타인은 지옥이다. 내가 아닌 것들이 존재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린다.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란,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모른 채 끝없이 내 것, 대상을 갈망하면서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이 책에 나오는 선사들은 헛된 추구를 멈춘 사람들이다. 바깥을 향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아서 지금 그대로 부족함 없이 행복한 사람, 붓다의 제자들이다.

쉬어라, 애쓰지 마라, 그러면 저절로 드러나

마음공부에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배움의 대상이 따로 있지 않다. 내가 질문이고 내가 답이다.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 내는 분별과 집착만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저절로 환하게 나타난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로잡고 구속하는 모든 것을 비워내는 과정이야말로 참된 마음공부이다. 그래서 옛 선사들은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밖에서 구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네 마음을 들여다봐라' '생각을 쉬어라' '내려놓아라' 하곤 했다.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지 않음으로써 곧장 본질에 다가서는 법을 알려준 것이다. 이 책에는 이름난 선지식뿐만 아니라 저자를 비롯해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공부 여정과 깨달음 체험이 소개돼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으며, 거기에 이르는 길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다.

대선사 코 납작하게 한 여성 선사들 선문답

이 책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깨달음을 얻어 대자유의 길을 걸어간 39명 여성 선지식의 일화가 실려 있다.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깨달은 사람, 중국 선불교 전통 중 하나인 조사선의 가르침에 따라 깨달은 사람,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해진 이래 스스로 마음공부해서 도를 이룬 여성들이다. 이 가운데 이미 도를 깨친 선사들이 '하잘것없는' 여성들과의 선문답을 통해 다시금 득오(得悟)하는 장면은 선(禪) 수행의 본질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나 마음공부하는 현대인이 새겨들어야 할 송곳 같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다시 집착하지 말라. 마음공부하는 사람이 현상과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체험하면,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희열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다. 마음속으로 '이것이 깨달음이다' 하고 분별하고 집착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깥에서 안으로 대상이 바뀐 것일 뿐 집착이기는 마찬가지다. 진정한 깨달음은 어디에도 걸림 없이 자유로운 상태이기에 '깨달음'이라는 개념이나 말조차 남아 있지 않다.

둘째는, 깨달음을 가리키는 말에 집착하지 말라. 깨달음에 관해 붓다와 여러 선사가 남긴 주옥같은 말씀이 있다. 그것은 우리를 본성에 직접 가 닿게 하려고 '언어'를 방편으로 쓴 것이지 그 말 자체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방편에 매달리는 것은,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것과 같다. 말에는 도가 없다. 그래서 옛 선사들은 말에 현혹되는 일을 경계하기 위해 긴말 대신 고함을 치거나 매질을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했던 것이다.

셋째는, 깨달음은 현실을 떠나지 않는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매일의 일상에 있다. 밥 먹고 물 마시는 일 속에 있다. 또한 깨달음을 얻더라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먹고살기 위해서 계속 일해야 하고, 집과 사회에서 사람들과 만나 관계 맺고 살아야 한다. 이런 삶에서 흔들림 없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헛된 갈망과 추구를 멈춤으로써 부족함 없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깨달음의 참모습이다.

"화엄 바다에 핀 그대의 연꽃 어떤 향기 머금을까"



향수해

도정 스님 지음
담앤북스 펴냄/1만 4천원

향수해(香水海)는 화엄경에 나오는 '연꽃 피는 향기로운 바다'를 의미한다. 즉 연꽃은 우주를 하나의 꽃으로 상징화시킨 것이며, 모든 존재가 가진 각자의 고유한 세상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 도정 스님은 이렇게 묻는다.

"온갖 고통과 즐거움, 슬픔과 행복이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화엄의 바다에 핀 그대의 연꽃은 어떤 향기를 머금고 계시는가?"

도정 스님<사진>은 시를 짓는 시인이며, 부처님 말씀에 기대어 사는 수행자이다. 등단으로 여러 권 시집을 냈고, 산문집과 경전 해설서를 펴냈다. 글로써 마음을 내비치는 스님이자 시인으로 살아가는 도정 스님은 경전 한 구절과 삶 속 이야기로 책을 엮었다.

향수해. 제목으로나 불교 경전 구절이 드러나는 내용이나 독자에게 불교의 깨달음을 전달하는 듯하지만, 강요보다는 자연스러운 믿음을 갖기를 바라며, 그럴듯하게 꾸민 말 대신 진리로서 타인은 더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글이라면 차고 넘치게 써 봤지만, 경전에 빗댄 삶을 녹여내려니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수



경전 속 한 구절들과 삶 속 이야기로 '기쁨' '위로' '사랑' '외로움' '신심' 등 자신과 타인 연꽃 같은 존재로 칭해

행자의 삶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다. 그것은 책에서 '기쁨' '위로' '사랑' '외로움' '신심'으로 각각 나눴다.

"부처님께 복을 빌지언정 부처님께 복을 빌어주는 이는 얼마나 될까. 한 할머니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어린 손녀를 데리고 새해에 가까운 절을 찾아 부처님을 참배하였다. 할머니는 가족들이 올 한 해 모두 건강하기를 발원하고 자식이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원만하게 이뤄지기를 기도하였다. 그런데 어린 손녀는 할머니를 따라 "부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각 단에 돌아가며 절을 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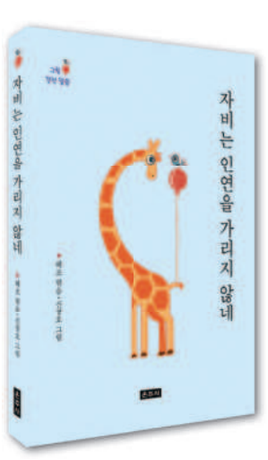
저자는 이처럼 우리가 당연시한 행동서 기쁨과 위로, 신심을 느끼고 깨닫는다. 혹은 "어떤 사회학자는 인간의 이기심을 생존 본능이라고 해석하지만, 이런 말들은 가뜩이나 팍팍한 우리네 삶을 더욱더 슬프게 만든다. 짓밟아야 높아지고 경쟁서 무조건 이겨야 성공한다는 생각은 얼마나 무자비한 행태인가. 오히려 '모든 사람이 내 자식 같다'는 부처님 말씀이 특별할 것 없는 세상이면 참 좋겠다." 허무감이나 부질없음을 뛰어넘어 일상이 순간이 소중한, 그저 특별할 거 없는 세상을 꿈꾸기도 한다. 저자 도정 스님은 자신과 타인은 연꽃 같은 존재로 칭한다. 연꽃은 고독하면서도 독립된 개체로서의 고유한 우주지만, 상호 연결된, 소통해야만 존재하는 연기적 생명체라는 것이다. 1장서 5장까지 갈래는 다섯 개지만 불자로서, 아니면 일반 독자로서 모두가 생각해봄 직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김주일 기자

그림 경전 말씀

우리 삶을 밝게 비추어주고
삶의 지혜를 깨우쳐주는 가르침!



자비는 인연을 가리지 않네



수행길에 있는 사람에게는 수행의 지남이 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삶의 이정표가 되는 가르침!

어느 곳을 펼쳐보아도 보석 같은 부처님 말씀과 재미있는 삽화가 가득! 누구나 가볍게 읽으면서 감동과 여운이 있는 책!

혜조 엮음, 신창호 그림/국판/컬러/248쪽/값 14,000원

티베트불교에서 종파를 초월하여
모든 수행자들이 반드시 배우고 수행하는 논서!

입보리행론 강해 1~3

대승불교의 핵심인 보리심과 공성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간명한 게송으로 전하는, 대성취자 샨티데바의 가르침!

『입보리행론』에 대한 가장 방대한 해설서!

진메이펑춰 린포체의 직간접 수행 경험과 수많은 대승 경론, 중국 고전까지 넘나드는 풍부한 해설은 강한 흡인력과 설득력으로 보리심을 불러일으키고 참된 보살행으로 이끌어 준다.



샨티데바 게송/진메이펑춰 린포체 강설/지엄 편역
신국판/양장/1권 668쪽, 2권 656쪽, 3권 680쪽/각권 값 3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신축년 새해 주목되는 학술서 3選

"정토신앙은 분명 불교다"



정토불교성립론

김호성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2만2천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김호성 교수가 자신의 정토신앙 논문 15편 중 9편을 모아 쓴 책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토신앙이 불교로서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정토신앙이 불교, 특히 대승불교의 한 신앙으로서 존재해왔던 바 새삼 정토신앙의 불교로서의 성립여부를 고찰한 까닭은 무엇일까. 저자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신앙이지만 현재 한국불교 안에서는 정토신앙을 불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흐름이 아직도 적지 않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로는 "우리의 불교에서 주류를 이루어온 것이 부처를 자기 마음 안에서 찾는 선불교였기 때문이고 불교 외적으로는 근대로 들어오면서 이성에 의해서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것만을 믿으려는 사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 불교 안에서 정토신앙의 자리는 아직 명확히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은 그러한 신앙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고뇌하면서,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학문적 반론을 통하여 정토신앙의 길을 모색하고자 했던 저자의 지난 십여 년 동안의 신앙적이고 학문적인 여정의 회향이다. "정토신앙 역시 불교이다. 어쩌면 정토신앙이야말로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말한다.

정토신앙이란 "나무아미타불" 염불(念佛)을 하면 내세에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往生)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한국불교 내에서 정토신앙의 자리는 아직도 명확히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연과학의 발달로 근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성(理性)에 의해서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것만 믿으려고 하는 시대사조로 인해 대승불교의 한 신앙인 정토신앙은 점차 그 성립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왕생의 전제 조건인 극락의 존재에 대한 회의 때문에 "만약 극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염불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비판을 불러온 것이다.



중국 맥적산 석굴 127굴 감실 벽에 도해된 '서방정토변상도'의 모습. 동진 승려 지도림의 〈아미타불상찬〉의 내용을 재현한 사례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통해 왕생하는 정토신앙은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저자 김호성 교수는 말한다.

정토 신앙 관련 논문 9편 모아
정토 신앙 불교 성립여부 고찰
합리·이성주의 반론에서 시작
〈아함경〉 〈무량수경〉 양립으로
'대승비불설'론 반론 이끌어내
중생 안심세계 정토신앙 세계

저자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근대에 이르러 나타나기 시작한 시대적 조류, 즉 합리주의·이성주의에 대한 반론에서 시작한다. 만해의 〈염불당 폐지〉(조선불교유신론, 1910)를 실마리로 해서 논의한 것이 제4부 첫 번째 논문이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라는 이른바 '대승비불설' 론의 논의를 "대승경전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치환한 뒤, 초기 경전인 〈아함경〉과 대승경전인 〈무량수경〉의 양립 가능성을 물어본다. 실제로 이 두 편의 논문이 제1부로 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1부의 두 번째 논문에서는 근대성의 연장선상에서 극락의 존재 여부에 대한 회의로 인하여 정토신앙을 멀리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현실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실제로 정토신앙의 역사에서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신앙상의 경지가 있었음을 소개한다.

제3부의 두 번째 논문에서는 우리 불교 역사 안에서 선이 갖는 주도권으로 인하여, 지금도 선과 염불이라는 두 수행법의 관계 맺음이 다시금 문제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한다. 이 논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정토신앙의 학적(學的) 차원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앙상의 길을 모색하고 정립하려는 몸부림에 가깝다. 이상 4편의 논문이 "정토신앙 역시 불교이다"고 말하는 핵심 논문이다.

제1부의 첫째 논문은 정토신앙의 핵심 내지 본질을 아미타불 법장보살의 본원에서 찾았고, 그러한 본원을 믿음에 의하여 중생들이 얻을 수 있는 안심(安心)의 세계가 정토신앙의 세계임을 신라 시대 광덕의 정토시(淨土詩) '원왕생가'의 재해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

제2부는 '정토신자의 삶은?'이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제2부의 글들은 모두 저자가 오래도록 천착해온 주제 중의 하나인 '출가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제3부 첫째 논문은 일본 정토불교에 대한 우리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일종의 연구사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일본 정토불교를 통해 정토신앙에 입문했다. 그 책이 바로 야나기 무네요시의 〈나무아미타불〉이다. 저자는 '일본 정토불교'에서 정토 공부를 시작했지만 '일본 정토불교'가 전부는 아니다.

저자는 우리 신라 시대 화엄종의 조사 의상(義相)의 저서 〈백화도량발원문〉을 통해 극락의 존재 여부에 대한 난문에 나름의 새로운 해답을 모색한다. 중생과 아미타불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자력과 타력이 둘이 아닌 세계(不二法門)를 그리면서 이원 대립을 넘어섬과 동시에 극락의 존재 여부라는 문제 제기를 해소한다.

佛·儒 대론 시원·과정·결과 규명

책 〈불교와 유교의 철학논쟁사〉는 한국 사상사의 대표적 철학 논쟁 중 하나이며, 한국 지성사를 한 단계 끌어올린 대론으로 평가받는, 여말선초 불교와 유교 간의 논쟁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불교와 유교의 논쟁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전개과정을 거쳤는지, 그 핵심 주제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 끼친 사상적·정치적·사회적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입체적으로 조망했다.

불교와 유교는 한국 사상사의 두 근간이 되었지만, 그 전개 과정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불교는 삼국 시대에 전래되자마자 융성했지만, 유교는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야 꽃을 피운다.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일반 민중들은 삶 속에서 윤리적 자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상적으로도 인문학적인 사유와 논리의 틀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불교와 유교의 철학 논쟁사

도웅 지음 / 운주사 펴냄 / 2만5천원

여말선초 불교·유교 교체 현상
상호대응 총제적·심층적 조명

책 〈불교와 유교의 철학 논쟁사〉는 다섯 가지의 주된 연구 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배불론의 핵심 쟁점이 되는 이단과 진호국가설의 사상적·종교적 시원을 알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인도 불교의 내용들을 검토한다. 둘째, 여말선초 불교·유교 교체 과정에 내재된 사상적 근거와 배경을 규명한다. 셋째, 여말선초 불교·유교 교체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중궁의 불교·유교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넷째, 여말선초 불교·유교 간의 철학 논쟁의 중심인물인 정도전과 기화를 중심으로 배불과 호불에 대해 규명한다. 다섯째, 여말선초 불교·유교 대론의 독자성과 그 의미 파악이다. 여말선초 불교·유교 논쟁은 여러 면에서 사상적 특징이 엿보이는데, 중국의 불교유교 논쟁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 논리와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며 철저해지고 있다.

책은 여말선초 불교·유교 대론의 시원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그에 내포된 역사적·철학적·문화적 의의를 살펴본다.

박재완 기자

춤추는 신라의 붓다 '원효'

〈삼국유사〉속 원효의 모습을 되살려낸 책이다.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 〈삼국유사, 자장과 선덕여왕의 신라불국토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의 고서(古書)에 박제되어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현대 언어로 그려냈던 정진원 교수가 이번엔 〈삼국유사〉 속에 실린 원효의 열 가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석학이자 신라의 붓다로 일컬어지는 '원효'의 모습을 다시 그렸다. 길고 긴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의 중생과 마찬가지로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그럼에도 내일을 향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신라시대 군상들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원효는 신라의 붓다로 불리며 7세기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중국을 넘어 세계적인 석학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원효는 훌륭한 학승으로 방대한 책을 남긴 저술가이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영혼의 대중예술가이기도 하다. 무애박을 두드리며 걸림 없는 노래와 춤을 추며 신라의 천촌만락(千村萬落)에 불교를 전했다.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

정진원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7천원

책 속의 10개 이야기 바탕으로
'일연이 바라본 원효'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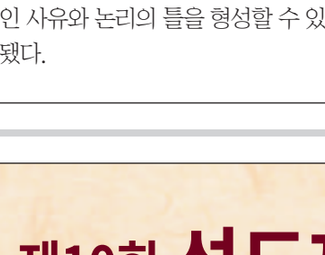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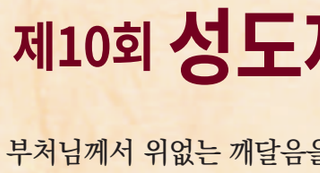
저자는 자장과 동시대를 살다 간 원효의 이야기에서 우리 불교의 특징인 회통불교를 〈삼국유사〉에 어떻게 남기고 갔는지 그 자취를 더듬어간다.

〈삼국유사〉 속에서 원효가 등장하는 연대는 이야기에 따라 들쑥날쑥하지만 617년에 태어나 686년 70세로 입적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그의 생애가 다채롭게 소개된다. 태종춘추공조 662년, 당나라 소정방이 보낸 '난새와 송아지' 그림을 해석하여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이긴 이야기 등 저자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순서와 '원효불기' 조를 통한 그의 생애를 중심축으로 삼고 다른 책의 이야기들을 섞어 '일연이 바라본 원효'라는 인물을 '정진원이 바라본 원효'로 재구성했다. 〈삼국유사〉를 보충해 줄 〈삼국사기(三國史記)〉, 〈화랑세기(花郎世記)〉, '고선사서당화상비(高仙寺誓幢和尙碑)' 와 〈송고승전(宋高僧傳)〉 등을 비롯한 관련 자료와 그의 저서들도 두루 다루고 있다.

박재완 기자

제10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대법회

부처님께서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신 성도재일을 봉축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대덕스님들께 불자들이 여법한 공양을 올리는
「승보공양대법회」를 준비했습니다.
금번 「승보공양대법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찾아가는 승보공양'으로 봉행하였으며 불자들이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BTN불교TV 편성시간 안내

[성도재일 특집]
제10회 성도재일 승보공양대법회
본방송: 1월 20일(수) 11시 30분, 20시
재방송: 1월 24일(일) 08시 30분

[설특집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인연 '찾아가는 승보공양'(가제)
본방송: 2월 12일(금) 19시 30분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사무국 051-501-7554

2021 謹賀新年 신축년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황악산 직지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www.jikjisa.or.kr
Tel (054)429-1700~3, 429-1713~15 Fax (054)436-3174



선지식 · 불교학 동향 등 주제 '다채'

주요 불교학단체, 신년계획 살펴보니

불교 학회, 만화 희찬 조명
구산선문 주제 학술대회도
'리캅스'로 시작한 불교학硏
불교평론, 세계불교학 분석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21년 신축년 불교학 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학술행사들을 준비 중이다. 특히 올해에는 한국선 전래 1200년을 비롯해 고승 조명, 세계불교학 동향 등 다채로운 주제의 학술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는 만화 희찬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16일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하반기에는 구하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5월 14일에는 '한국의 불교사상' 시리즈를 보다 확장해 논하는 학술발표회도 준비 중이다.

11월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선 전래 1200주년을 맞아 '구산선문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추진한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리캅스(Review KABS)'라는 새로운 학술발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미발표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토론하는 것으로, 연구회는 이를 통해 담론 형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승택 회장은 "기존 학술행사 숫자를 줄이고 깊이 있는 학술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 이를 통해 학계의 건전한 담론 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선학회는 새로 회장으로 취임한 정도 스님(동국대 종학연구소장)을 중심으로 선 전래 12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한국불교사학회는 보조국사 지눌과 선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추진하며, 지난해에 이어 불교 전공 교재를 분석하는 연찬회도 준비 중에 있다. 5월 중에는 이천 오층석탑 환수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한다.

세계불교학연구소는 '불교와 경제의 만남'을 주제로 3월 중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대 사회의 경제문제를 불교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논한다.

한마음선원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올해에도 대행선사의 선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6월 19일 개최한다. 또한 3월 중에는 연구원 학술지 〈한마음연구〉 등재지 지원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묘공학술상, 묘공학술장학생 공모도 진행된다.

불교를 대표하는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은 올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불교학의 동향을 분석하고 고찰한다. 봄호에는 '한국불교학 연구 동향과 비판'을 주제로 다루고 여름호에는 일본불교학, 겨울호에는 세계불교학 연구 동향을 다룬다. 만해축전 학술세미나를 다루는 가을호에는 인공지능 등 4차산업기술 전반에 대해 불교적으로 분석 · 논의할 예정이다.

대동영선 · 청주집 등 조선불서 한글화 완료

동국대 ABC사업단, 4종 3책 발간



조선 후기 불서들이 잇달아 현대 한글로 번역 · 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단은 "조선 후기 불서인 〈대동영선(大東詠選)〉(금명 보정/ 이상하 옮김), 〈청주집(淸珠集)〉(환공 치조/ 성재헌 옮김), 〈혼원집(混元集) · 초엄유고(草广遺稿)〉(혼원 세환 · 초엄 복초/ 윤찬호 옮김)를 출간했다"고 1월 7일 밝혔다.

〈대동영선〉은 송광사에 주석하던 금명 보정(1861~1930)이 우리나라 역대의 뛰어난 시들을 선집(選集)한 책으로, 시대적으로는 신라 최치원으로부터 구한말 〈조선불교통사〉를 쓴 이능화(1869~1943)에 이른다. 이 책에는 중국의 시와 게송도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작품 중에서 불교와 무관하거나 불교를 비판한 시도 포함된다. 〈삼국유사〉와 더불어 역대 고승의 문집에서 뽑은 승려들의 시가 가장 많으며 유학자의 시 역시 상당수 수록돼 있다. 대표적인 유학자로는 신라의 최치원, 고려의 이규보 · 정지상, 조선의 이황 · 이이를 들 수 있다. 중국 당송 시대 선승들의 시도 실려 있는데, 임종게(臨終偈)와 영찬(影讚)이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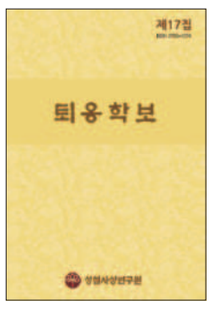
〈청주집〉은 환공 치조가 지자(智者)의 〈정토십의론(淨土十疑論)〉과 비석(飛錫)의 〈염불삼매보왕론〉 등 37종의 정토 관련 전적에서 염불수행인에게 도움이 될 중요한 구절 120칙을 선별해 엮은 책이다. 치조는 고종7년(1870) 여산 혜원의 백련사를 모델로 '정원사'라는 만일염불회를 결성한 후, 동참자를 확대하고 결사대중의 규약으로 삼고자 이 책을 편찬 간행했다. 치조가 제시한 120칙은 정토왕생의 요결이자 동시에 선종의 종지와도 일맥상통한 점이 특징이다.

〈혼원집 · 초엄유고〉는 그동안 한국불교사에서 존재가 희미했던 두 승려의 문집을 번역한 것이다. 〈혼원집〉은 조선 말기 승려 혼원 세환(1853~1889)의 문집으로 1권에는 5편의 서문과 8편의 기문이 실려 있다. 2권은 〈금강록〉 1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강산 유람의 세부 일정과 그곳에서 받은 감흥을 산문과 시로 기록해 놓았다.

〈초엄유고〉는 초엄 복초(1828년경~1880년대)의 문집이다. 유불도를 두루 섭렵했으며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대자유를 누리고 살았던 초엄의 생애가 시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삼화전(三花傳)'은 자전적 우의소설로 독특한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신성민 기자

중단된 백련불교학보 '퇴옹학보'로 복간돼

성철사상연구원, 17집 발간



지난 2006년 제16집으로 발행이 중단됐던 성철사상연구원의 학술지 '백련불교학보'가 '퇴옹학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복간됐다.

성철사상연구원(이사장 원택)은 최근 '백련불교학보' 복간호인 '퇴옹학보' 제17호를 발간했다.

'퇴옹학보' 제17호에는 △퇴옹 성철의 불학체계와 그 특징(조병활, 성철사상연구원) △초기불교의 중도사상과 퇴옹 성철의 이해(황순일, 동국대) △백일법문에 나타난 퇴옹 성철의 유식사상(김명우, 동의대)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에 나타난 '대반열반경'의 이해(조위유, 북경중의학대학 대만중의약연구기지) △왕양명과 퇴옹의 심성론 · 수행론 비교-퇴옹의 양명학 논의를 단서로 한 시론(최재목, 영남대) △현대 한국불교 고승연구의 흐름과 성찰(오경후,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게재됐다. 부록으로는 퇴옹학 논저목록이 수록됐으며, 운영회칙 · 논문작성 · 운영진 · 2020년도 학술활동 일지 등이 담겼다.

성철사상연구원 편집위원회는 "복간된 '퇴옹학보'는 성철 스님의 수행 · 사상을 조명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를 목표로 논문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고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 원문을 제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남장사 괘불 · 대둔사 경장 보물된다

문화재청, 1월 7일 지정예고돼
문경 봉암사 마애여래좌상 등
불교 문화재 3건은 보물 지정



보물로 지정예고된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사진 왼쪽)와 구미 대둔사 경장(사진 오른쪽).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와 구미 대둔사 경장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문경 봉암사 마애여래좌상 등 조선시대 불교문화재 3건은 보물 지정이 확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과 '구미 대둔사 경장'을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1월 7일 밝혔다. 또한, '문경 봉암사 마애여래좌상' 등 조선시대 불교문화재 3건은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은 높이 11m에 이르는 대형 불화 1폭과 각종 복장물을 넣은 복장낭(腹藏囊), 복장낭을 보관한 함을 포함한 복장유물로 구성됐다. 불화와 함께 복장유물을 놓은 복장낭이 온전하게 일괄로 남아 있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남장사 괘불도는 1776년(정조 1) 조선 후기 대표적 수화승 유성(有誠)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한 화승 23여 명이 참여하여 제작한 18세기 후반기 불화의 기준이 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17 · 18세기 제작된 괘불이 여러 번 보수를 거치는 동안 원래의 모습을 상실한 것과 달리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은 이 괘불만의 독보적인 가치로 꼽힌다.

문화재청은 "화면 중앙에 압도적인 크기로 배치된 건장한 체구의 석가여래는 마치 앞으로 걸어 나오는 듯 다른 존상들보다 돋보이게 표현했다"며 "보살과 사천왕, 용왕과 용녀 등의 모습 또한 권위적이지 않은 친근한 얼굴에 존격(尊格)에 따라 신체의 색을 달리 하여 강약을 조절한 점 등 18세기 불교회화 연구에 중요한 참고가 된다"고 평가했다.

함께 지정 예고된 '구미 대둔사 경장'은 1630년(인조 8)에 조성된 경장(불교경전을 보관한 장)으로, 조선시대 불교 목공예품 중 명문을 통해 제작 시기가 명확하게 파악된 매우 희소한 사례다. 경장으로서는 국보 제328호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를 제외하면 처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되는 것이다.

조선 후기 불교 목공예품으로 경장을 비롯해 목어(木魚), 불연(불연, 의식용 가마), 촛대 등 다양한 종류가 제작됐으나, '구미 대둔사 경장'처럼 제작 연대와 제작자를 알 수 있는 작품은 매우 드물다. 이러한 점에서 '구미 대둔사 경장'은 왼쪽 경장의 뒷면과 밑면에 제작 시기와 제작자, 용도 등을 두루 알려주는 기록이 남아 있어 조선 후기 목공예를 연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문화재청은 "구미 대둔사 경장은 좌우 경장의 문짝 안쪽에 각각 2구씩 그려진 사천왕상을 배치해 원래 한 쌍으로 제작돼 대웅전의 불단 좌우에 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문 안쪽 불화는 제작 당시의 문양과 채색 기법을 상실하지 않고 대부분 간직하고 있어 17세기 채색기법 연구와 선묘불화(線描佛畵)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문화재청은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좌상과 '미륵원'명 청동북,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을 각각 보물 제2108호, 제2109호, 제2110호로 지정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한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과 '구미 대둔사 경장'을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2021 謹賀新年 신축년

동행승가단



승가동행단 총재
무송스님

船過水無痕 (선과수무흔)
烏飛不留影 (오비불류영)
後悔是煩惱 (후회시번뇌)
懺悔是修行 (참회시수행)
佛意眞不俗 (불의진불속)

배가지나간물위에는흔적이남지않으며
새가날아간허공에는자취도남지않는다
후회는번뇌요뉘우침은수행이라
부처님의참뜻은속되지않는구나

새해元旦

한국불교관음조계종 종정 鶴山堂茂松

법륜불자교수회

회 장 장호경 (대구한의대학교)
명예회장 조현춘 (전 경북대학교)
김성규 (전 영남대학교)
부 회 장 이동석 (동국대학교, 경주)
이정희 (대구한의대학교)
김한철 (영남대학교)
감 사 전재강 (안동대학교)
서상곤 (영남대학교)
총무이사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무이사 이윤호 (대구대학교)
편집이사 손정식 (경운대학교)
복지이사 성희자 (경북대학교)
불교역사위원회 김남경 (경북대학교)
불교문화위원회 김경회 (대구대학교)
불교사회위원회 이준일 (대구보건대학교)

법륜 불자 교수회 일동

21세기 새로운 불교 수행 공동체

사단법인 통섭불교원

원장 김성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월 8일, 15일,
23일, 30일 사재일에는 오계를 꼭 지키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불법을 배우고 수계를 받고 사재일에
오계를 지킴으로 스스로 불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 불교강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명상·힐링 상담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참선수련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참선 철야 수련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www.tongsub.com

대구 남구 대명역 1길 11 통섭불교원
Tel 053) 621-2256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②

▶ **3회 예고**
보름날 밤, 다르마는 빠딸리뿌뜨라 궁으로 가고자 강가강 나루터에서 부모와 이별한다. 그러나 브라흐민은 딸 다르마를 못잊어 함께 자나사나를 따라나선다. 브라흐민은 밤새 딸의 앞날을 위해 기도한다.



자나사나의 예언

석양은 바로 지지 않았다. 강가강 건너편 너른 모래밭 위를 굴렁쇠처럼 구를 듯 한동안 떠 있었다. 새떼가 석양을 비껴 숲속으로 점점이 날아갔다. 아지비카교 수행자 자나사나는 석양을 등지고 나타났다. 석양 때문에 자나사나의 마르고 작은 몸집이 도드라졌다. 몸집에 걸친 도티 옷자락이 펄럭였다. 브라흐민이 잰걸음으로 나가 자나사나를 맞아들였다.

자나사나는 발 앞에 떨어진 붉은 꽃잎을 피해 다가왔다. 발걸음을 호흡하듯 조심스럽게 떼는 것으로 보아 신중한 수행자임이 분명했다. 말투도 호흡에 따라 느리고 조용했다.

"나의 친구 빵갈라바뜨사는 떠나고 없소."

"알고 있다오. 빠딸리뿌뜨라로 가시고 없다는 것을."

베란다 앞에는 다르마와 브라흐민의 아내가 나와 자나사나를 맞이했다. 다르마가 한 걸음 먼저 나아가 자나사나 목에 한낮에 만든 꽃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방문을 환영한다는 의식이었다. 그러자 브라흐민의 아내가 강물이 담긴 항아리를 내밀면서 합장한 뒤 자나사나의 발에 입 맞추는 시늉을 했다.

"나마스떼!"

자나사나도 나직한 소리로 인사했다. '당신 안의 신에게 경배를 드린다.'는 뜻이었다. 자나사나가 항아리의 물로 손과 발을 씻는 사이 브라흐민의 아내는 베란다로 꺼내온 식탁에 음식을 날랐다. 다르마가 흰 수건을 들고 자나사나 옆에 서 있는 동안 브라흐민은 휘파람을 불었다. 자나사나를 환영하는 휘파람이었다. 휘파람은 브라흐민의 특기이기도 했다. 브라흐민은 기분이 좋아지면 어느 자리에서나 휘파람 소리를 내고 콧노래를 불렀다.

식탁에는 목을 축이는 코코넛 물이 먼저 나왔다. 브라흐민이 거친 밀로 만든 짜파티를 접시에 날랐다. 누런 빛깔의 국물인 카레도 나왔다. 브라흐민 아내가 샛노란 빛깔의 강황, 후추, 계핏가루, 생강, 마늘 등을 넣고 조금 전에 만들었으므로 모락모락 김이 났다.

자나사나는 대나무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아지비카교 주문을 외웠다. 그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브라흐민 식구들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그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자나사나가 눈을 뜨고 꽃목걸이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브라흐민 아내가 조급하게 말했다.

"다르마야, 너는 여기 앉거라."

브라흐민 아내가 자나사나 맞은편 대나무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제야 다르마가 식탁 귀퉁이에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자나사나가 다시 말했다.

"부인,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르마를 다 보았어요. 그러니 두 분이 맞은편 자리에 그대로 앉으세요."

"아, 그러겠습니다."

브라흐민 아내가 더듬거리며 대나무의자를 식탁 쪽으로 끌어당기며 앉았다. 브라흐민은 아내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웃고만 있었다. 자나사나가 염소 같은 검은 수염을 가지런히 쓸면서 말했다.

"나는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르마의 운명을 보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다르마의 운명을 먼저 이야기하겠소."

"아내가 오후 내내 준비한 음식이오. 시장하실 테니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셔도 되오."

브라흐민이 손사래를 치며 말하자, 그의 아내가 자나사나에게 고개를 흔들며 합장했다.

"구루시여, 편하실 대로 말씀하세요. 저희 부부 마음이 조급했나 봐요."

다르마는 자신이 준비한 커리에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자 섭섭했다. 모두가 꼼짝을 않고 있기 때문인지 짜파티의 구수한 냄새가 콧속을 더욱 자극했다. 강바람에 정원의 꽃향기도 언뜻언뜻 실려 왔다. 자나사나가 입을 열었다. 그의 수염이 날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다르마는 빠딸리뿌뜨라 궁 안에서 살 운명이오."

자나사나의 한 마디에 브라흐민 식구들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특히 다르마는 비명처럼 한 마디 했다.

"구루시여, 저는 짬빠성을 떠나기 싫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살고 싶습니다."

브라흐민 아내는 합장한 채 자나사나의 입을 주시했다. 브라흐민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궁에서 누구와 산단 말이오?"

"궁의 주인과 살 운명이오. 축하드리오."

이번에는 자나사나가 일어나더니 다르마의 얼굴을 그윽하게 쳐다보며 합장했다. 브라흐민이 다시 물었다.

"대왕님과 살 운명이란 말이오?"

"그렇소. 왕비가 될 운명이오."

브라흐민 아내가 울상이 되어 애원하듯 말했다.

"다르마야, 넌 빠딸리뿌뜨라 궁으로 가야 행복해지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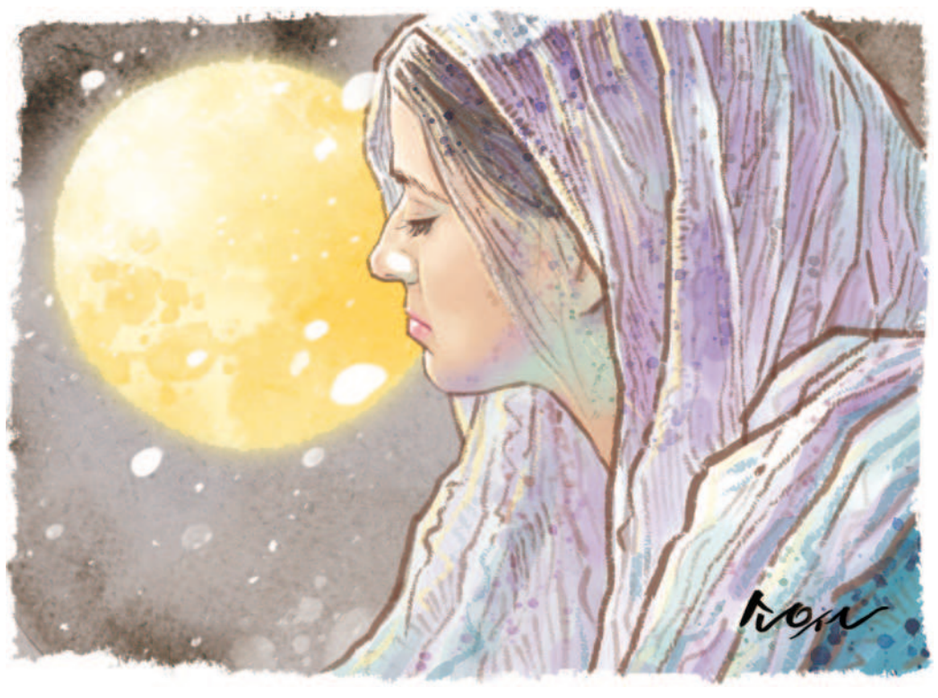
"난 아버지가 정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러나 브라흐민은 아무 말도 못했다. 당장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자나사나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했다. 날이 시나브로 어두워졌다. 브라흐민 아내는 베란다 양쪽 벽에 걸린 호롱불을 켰다. 두 개의 호롱불빛이 밖에서 밀려오는 초저녁의 어둠과 섞이면서 신비스런 분위기를 자아냈다. 식탁에 마주앉은 사람들도 방금 전의 모습과 달리 보였다. 화병에 꽂힌 파파벨라가 작은 새처럼 '파파벨라 파파벨라!' 하고 소리를 내는 듯했다. 자나사나가 말했다.

"무얼 망설이시오. 다르마가 빠딸리뿌뜨라로 가게 되면 나의 친구 빵갈라바뜨사가 도와줄 것이오."

"구루시여, 다르마의 앞날을 더 이야기해주시오."

자나사나는 갑자기 다르마가 마치 왕후라도 당장 된 듯 예를 갖추었다. 브라흐민 부부를 바라볼 때와 달리 다르마를 조심스럽게 쳐다보았다.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고 약간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다르마가 궁으로 들어가면 왕비와 후궁들의 견제가 심할 것이오. 감수해야만 하지요."

"구루시여, 왕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열다섯 명이오."

"그렇다면 다르마가 열여섯 번째가 된다는 말이오?"

"대왕의 총애를 받고자 다르마를 견제하겠지만 다르마는 결국 왕비가 되고 말 것이오."

다르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브라흐민의 아내도 물었다.

"왕자가 없어서 새 왕비를 맞이하는 것입니까?"

"아니오. 정식 왕비는 물론 후궁이 낳은 왕자까지 아흔아홉 명이오."

브라흐민이 낙심한 목소리로 물었다.

"왕자가 아흔아홉 명인데 또 왕비를 맞아들인다는 말이오?"

"내가 볼 때 아흔아홉 명의 왕자들은 모두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운명이오."

"그럼, 누가 왕위에 오르는 왕자란 말이오?"

자나사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비밀을 토로하듯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없소. 그들은 모두 죽을 운명이오."

브라흐민 식구들은 또 놀랐다. 아흔아홉 명의 왕자들이 죽을 운명이라니 믿어지지 않았다. 정말로 모두 죽는다면 마우리아왕조의 크나큰 비극이었다. 자나사나도 발설하지 말아야 할 비밀을 누설한 듯 움찔했다. 브라흐민 식구들과 자나사나는 한 동안 침묵했다. 침묵하는 순간에도 브라흐민은 다르마의 운명을 헤아리는 듯했다. 눈꺼풀을 파르르 떨면서 중얼거렸다.

"구루시여, 그렇다면 다르마가 낳을 대왕의 아들도 죽을 운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나사나의 말에 브라흐민 식구들 모두가 안도했다. 마치 사지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같았다. 브라흐민 아내 얼굴에는 자애로운 기운이 돌았고, 브라흐민 눈에는 기쁨이 가득 찼다. 자나사나가 말했다.

"다르마는 두 명의 아들을 낳을 것이오."

"오! 인드라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브라흐민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호롱불빛에 눈물이 반짝였다. 브라흐민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구루시여, 오늘 밤 저는 더 없이 행복하오.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최고의 선물이지요. 그대의 손자는 왕위를 이어받는 대왕이 될 것이오."

"다르마야, 어서 구루께 경배를 드려라."

"아니오. 경배는 내가 드려야지요. 다르마가 왕비로 점지돼 있기 때문이오."

자나사나는 조용히 일어나 다르마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그러더니 다르마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브라흐민 부부도 무엇에 홀린 듯 다르마 앞으로 가 자나사나와 같이 행동했다. 다르마가 어리둥절해 하며 말했다.

"저는 왕비가 아니예요!"

"다르마야, 언젠가는 왕비가 된다고 구루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미리 네 발에 입을 맞추는 것도 틀린 행동은 아니다."

"아버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란 말예요."

자나사나도 한 마디 했다.

"다르마여, 그대는 왕비가 될 운명인 데다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까지 낳을 분이니 경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오."

브라흐민 아내까지 거들었다.

"다르마야, 나는 행복하다. 네 발에 입을 맞출 생각을 언제 해보았겠느냐. 이런 날이 올 줄 내가 어찌 알았겠느냐. 여보 당신도 행복하지요?"

"행복하고 말고요. 오늘 밤 다르마가 우릴 기쁘게 해주는구려."

비로소 자나사나는 짜파티를 찢어 먹기 시작했다. 따뜻한 짜파티가 식어 딱딱해지기는 했지만 구수한 맛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였다. 자나사나는 짜파티를 커리에 묻히지 않고 먹었다. 식은 카레를 게걸스럽게 먹어치웠다. 브라흐민 부부는 식사를 하지 않아도 기쁨이 충만해 배가 불렀다. 다르마는 여느 때처럼 매운 칠리소스를 밥 위에 얹어 우아하게 먹었다.

브라흐민이 콧노래를 부르며 화덕에서 짜이를 만들었다. 홍차에 소젖과 사탕수수 물을 넣고 끓인 짜이는 달달했다. 수드라 여인들이 만든 토기잔은 시장에서 사온 것이었다. 브라흐민은 토기잔을 식탁 위에 여러 개 놓고 짜이를 따랐다. 당연히 첫잔은 자나사나에게 갔다. 짜이를 마신 자나사나는 매우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기를 보시오. 보름달이 떴소. 이런 밤에 짜이를 마시지 못한다면 불행한 일이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소?"

"보름달이 우리의 행복을 시샘하는 것 같소. 하하하."

브라흐민이 유쾌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브라흐민 아내가 말했다.

"구루시여. 그래도 저는 다르마의 앞날이 불안해요. 빠딸리뿌뜨라 궁에 갔을 때 왕비들이 우리 다르마를 못살게 굴면 어떡하지요?"

"행운의 여신은 불행의 여신과 늘 함께 하지요. 그러니 염려할 것은 없어요. 시련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으니까요."

자나사나는 짜이를 다 마시고 일어나면서 한 마디 했다.

"다르마 왕비는 두 아들을 낳을 것이오. 한 아들은 대왕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아들은 수행자가 될 것이오. 그러니 다르마는 왕도와 법도를 보게 되는 유일한 왕비가 될 것이오."

자나사나가 툭 던진 한 마디는 한 왕자가 권력의 길을 간다면, 또 다른 왕자는 진리의 길을 간다는 말이었다. 브라흐민 부부는 자나사나가 어둔 숲 저편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합장을 했다. 강바람이 조금 세게 불어왔다. 보름달빛에 희끗거리며 날리는 것은 부겐빌리아 흰 꽃들이었다. 바람결이 다르마의 코끝을 간질였다. 바람결에는 꽃향기가 묻어 있었다. 다르마는 보름달빛과 바람결에 헐떡이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계속〉

靈영通통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모집대상** : ① 특별시·광역시 각 도별 종무원장
② 미륵보살(돌할머니) 역할 각 1명
※ 참고사항 : 모집②번에 속하는 역할은 소정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모집자격** : ①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모실 분.
② 개인 사찰이나 공찰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가능하신 분. (미륵보살 〈구,돌할머니〉)

▶ **종무원장에게 드리는 혜택** :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고질병 등 가정의 우환, 질고, 병고, 액란 완치법(상담결과에 따라)을 전수해드립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거제도, 울릉도 등
19개소 종무원장님을 초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10-7321-0404

대한불교문수종 종 정 지광 / 총무원장 동진 합장

2021 謹賀新年 신축년
대한불교조계종
남 장 사
대종사 정강성웅
주 지 종호
사부대중일동



•영산회괘불도보물 제2007호
지정 : 야외 불교행사인 영산재에 사용된 불화
•범패 최초 전래지
•상주시 종합 사회복지관 부설 보광어린이집 운영

경북 상주시 남장1길 259-22
054-534-6331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❶ 禪, 한반도에 전하다



▶ 불교인재원 교수, 조계종 총무원에서 20년간 종무원으로 일하다 선지식을 인연으로 선을 만나 마음이 편해졌다. 선의 대중화를 원력으로 불교인재원에서 생활참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건립에 참여하고 있다. 〈태백산 선지식의 영원한 행복〉 등 여러 저서가 있다.

도의스님, 조사가 되어 오다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서기 821년), 신라 도의(道義) 스님이 중국으로 구법을 갔다가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깨치고 조사가 되어 귀국한다.

당시 한반도에는 불교가 전해진 지 500년이나 되어 불교가 국교의 위상이었고, 자장, 의상, 원효와 같은 고승들이 나와 승려의 위상도 높았으나 선(禪)과 조사(祖師)는 생경하였다.

이런 신라의 분위기는 최치원이 지은 봉암사 지증대사비문에 잘 기록되어 있다.

"그 (불)교가 일어남에 있어, 아비달마대비파사론(阿毘達磨大毘婆娑論)이 먼저 이르자 우리나라에 사제(四諦, 사성제)의 법륜이 달렸고, 대승교가 뒤에 오니 전국에 일승(一乘)의 거울이 빛났다. 〈중략〉 장경(長慶) 초(서기 821년)에 이르러, 도의(道義)라는 스님이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 중국에 가서 서당 지장(西堂 智藏)의 깊은 법력을 보고 지혜의 빛이 서당 지장선사와 비등해져서 돌아왔으니, 선종을 처음 말한 사람이다.

그러나 원숭이의 마음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남쪽을 향해 북쪽으로 달리는 잘못을 감싸고, 메추라기의 날개를 자랑하는 무리들이 남해를 횡단하려는 대붕의 높은 소망을 꾸짖었다. 이미 외우는 말에만 마음이 쏠려 다투어 비웃으며 '마어(魔語, 마구니 말)'라고 한 까닭에 빛을 지붕 아래 숨기고, 종적을 협소한 곳에 감추었는데, 동해의 동쪽에 갈 생각을 그만두고, 마침내 북산에 은둔하였으니, 어찌 〈주역(周易)〉에서 말한 "세상을 피해 살아도 근심이 없다"는 것이겠는가.

꽃이 겨울 산봉우리에서 빼어나 선정의 숲에서 향기를 풍기매, 덕을 사모하는 자가 산에 가득하였고, 착하게 된 사람이 골짜기를 나섰으니, 도는 폐(廢)해질 수 없으며 때가 그러한 뒤에 행해지는 것이다."



봉암사 지증대사비(국보 315호). 최치원의 유명한 사산비문 중 하나로 통일신라 경애왕대(924년)에 세워졌다. 선의 전래와 구산선문 선사 행장을 가장 자세히 기록한 비문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한국선 역사학계 논쟁 있지만
역대 선사, 남종선 정통 시각
〈육조단경〉 속 '돈오' 선 입장
한국불교 선의 전승에 근간돼
현대적인 가치와 대안 전할 터



봉암사 지증대사비.

신라 도의 스님이 중국에 가서 마조 선사의 상수제자인 서당 지장(735~814)선사를 만나 마음을 밝히고 돌아와 선(禪)을 처음으로 전했다는 기록이다. 그런데, 당시 한반도에는 불교가 전해진 지 약 500년이나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익숙해 있었을 때임에도 '외우는 말에만 쏠려 비웃으며 마구니말(魔語)'이라 선은 비난 받았다. 까닭에 도의 스님은 당시 서울인 경주로 가지 않고 저 변방인 설악산 진전사에서 은둔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6세기경 중국에 달마대사가 처음 선을 전한 분위기와 같다.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을 때에는 불교가 전해진 지 500년이나 지난 시기였으나, 양무제를 비롯한 중국 사람들은 복을 구하려 불교를 믿었지만,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선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마는 양자강을 건너 북방 숭산 소림굴에서 9년 동안이나 은둔하면서 시절인연을 기다려야 했다.

도의 스님과 구산선문,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

그러나, 설악산 골짜기로 은둔한 도의 스님의 도와 덕이 얼마나 빼어났던지 '개미가 고기가 있는 곳에 모여들듯이 도를 사모하는 이들이 산을 매웠으며, 교화를 받고는 마침내 기러기 떼처럼 산을 떠났다' 하니, 삽시간에 선은 확산되었다.

한반도에 선을 처음 전한 도의 스님은 선종의 초조 달마에 비유하여 '해동 초조'라 하고 그의 법은 2조 염거(?~844, 선림원) - 3조 보조 체징(804~880) 스님에 이르러 신라 국왕의 지원으로 장흥 보림사에 가지산문이 정식으로 개창하게 된다. '마구니말'로 배척받던 선은 도의의 손제자인 보조국사대에 이르면, 국왕이 스님을 국사(國師)로 추대하고 본래 화엄종 사찰이었던 절을 중국 6조 혜능대사가 주석한 보림사와 같이 신라 보림사라 개명하여 국찰로 정했으니 가히 천지개벽의 큰 변화가 있었다.

도의 스님을 조사로 설악산 진전사에서 출발한 해동 선은 3조대에 이르러 가진산문에 800명, 소백산 진공대사 문하에 400명에 달하는 선승들이 수행하였고, 후삼국시대에는 왕건의 스승이었던 강진 무위사 형미대사, 고려 개국 뒤 구산선문의 좌장으로 국사였던 〈삼국유사〉의 일연 스님, 화두 참선으로 중국 임제종 조사에게 깨침을 인가받아 온 태고 보우국사의 법맥으로 이어져 지금의 대한불교조계종의 전통과 역사가 되었고, 도의 스님은 근대 조계종의 종조로 모셔지게 되어 명실상부한 해동 초조로 정립되었다.

해동 초조, 도의인가? 법랑-신행 스님인가?

도의 스님이 처음 선법을 전할 때, 이미 한반도에는 불교가 있었다. 초기에는 사성제의 비파사나(위빠사나, 관법) 수행과 이어서 의상대사를 초조로 대승교학의 최고봉이라는 화엄종이 광범하게 뿌리내렸고, 또한, 북종선 선맥도 이미 들어와 있었다.

특히 신라 법랑(法朗) 스님은 중국으로 가서 선종 4조 도신선사의 인가를 받고 돌아와 신행(神行, 愼行, 704~779)스님에게 선을 전하였다. 그런데, 신행 스님은 스승이 입적하자 중국으로 가서 남종이 아닌 북종선의 신수대사의 법맥을 이은 보적의 제자 지공 스님 문하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지리산 단속사에서 교화하다 입적하였다.

813년에 세운 단속사 신행선사탑비 등에 남겨진 기록으로 보건데 '해동 초조'는 도의가 아니라 법랑과 신행 스님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째서 최치원은 '도의라는 스님이 처음 선을 말한 이'라 기록하였고, 고려시대 이규보와 이제현 같은 대학자들과 조계종의 역대 선사들이 한결같이 '해동 초조 도의국사'라 하였는가? 이 문제는 지금도 시비가 있는 선종의 역사 문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국 선종의 5조 홍인의 제자, 신수(?~706)대사의 북종(北宗)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다.

만약, 북종선을 선종으로 본다면 해동 초조는 법랑과 신행 스님이 되어야 하나, 당시 신라 최치원의 기록도 그렇고, 역대 한국 선사들이 한결 같이 북종을 선(禪)의 정통으로 보지 않고 6조 혜능대사의 남종(南宗) 돈오선을 선의 정통으로 보았기 때문에 해동 초조는 도의 스님이 된 것이다.

선의 종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선이란 무엇인가? 선의 정체를 어떻게 보느냐하는 안목과 직결된다. 즉, 6조 혜능 대사를 중심으로 한 남종 돈오선을 선의 정통으로 보게 되면, 북종의 점수설은 선이 아니고 교학과 가깝다. 왜냐하면, 육조 혜능대사 이래 역대 조사들은 선의 종지를 돈오(頓悟, 단박 깨침), 직지(直指), 교외별전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북종은 점수점오(漸修漸悟, 점차 닦고 깨침)를 주장했다.

남종 돈오선의 입장은 〈돈황본 육조단경〉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 〈육조단경〉에는 5조 홍인 대사의 전법을 두고 교수사 신수와 행자 혜능의 게송 대결이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다. 결국, 대단한 학식의 교수사 신수대사의 '먼지와 티끌을 닦고 닦아서 깨달음에 이른다'는 점수점오 게송은 무식한 나뭇꾼 오랑캐 출신의 8개월 행자 혜능의 '먼지와 티끌이 본래 없다'는 본래성불의 돈오 게송에 밀려 인가를 받지 못한다(이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이 〈육조단경〉의 조작설을 주장하지만, 선종의 조사들 중에서 이를 정통으로 보지 않은 이는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북종 점수설의 신수-보적-지공의 선맥을 이었다는 신행 스님을 선종에서는 선사의 법맥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최치원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구산선문 중 유일하게 남종 돈오선 법맥이 아닌 희양산문 봉암사의 개산조 지증대사 비문을 지으며, 지증대사의 선조되는 신행 스님의 '신수-보적-지공' 법맥(신행대사비문에는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은 빼고, '4조 도신-법랑' 법맥만 기록하였던 것이다.

선, 인류 문명 위기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1200년 전 도의 스님이 전한 선이 구산선문 이후 지금까지 한국불교의 중심 동력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도의 스님 당시나 지금 한국불교에서도 선은 언제나 '마구니말'이나 '신비주의', '선정주의' 등으로 끊임없이 비판받아 왔다.

하지만, 선은 전래 당시 평등사상으로 신라의 골품신분제사회의 폐단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고, 후삼국시대에는 고려 왕건을 중심으로 사회통합에도 힘이 되었다. 고려 중기에는 승풍 추락에 맞서 간화선을 도입한 결사운동으로 수행 종풍을 되살렸고, 조선조 숭유억불시대에는 서산-사명 선사들이 파계행이라는 비판에도 도탄에 빠진 국가와 백성 구제를 위해 일본의 외침을 막는 전쟁에 참여하여 불법을 지켰다.

특히 근세에는 걸출한 경허와 용성선사의 활약과 선풍 진작은 만공, 한암, 만해, 효봉, 동산, 청담, 금오, 성철, 향곡, 전강, 서옹 등 기라성 같은 선승들을 배출하여 선학원과 조선불교조계종의 재건, 그리고 광복 후 봉암사 결사와 승단 정화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불교조계종의 통합 재건을 성취하였다.

한반도 전래 1200주년을 맞는 지금 과연 선이란 무엇인가? 코로나19사태와 지구 기후 변동으로 일대 위기를 맞고 있는 인류에게 선은 어떤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가? 이번 "선, 세상과 만나다"의 연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위빠사나 명상과 티벳불교와 달리 한국선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어떤 가치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탁마해 보고자 한다.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무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회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수 천만원 대형 사찰 소리보다
1/10 가격, 본사의 소리가 월등한 이유 : 그들은 단가를 높이려 불필요한 부속들을 잔뜩 채움으로
1. 앰프다루기 복잡 2. 기능 분산으로 잦은 고장은 음질저하로 나타남
본사의 장점 : 1. 최신 간결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2. 부드럽고 파워있는 소리! 3. 외부스피커 16개까지 연결
주의 : 주위의 전문가 행세하는 반식자들 말 보다 본사의 견본으로 법당서 확실하게 소리비교! 장난감 수준의 차이를 확인 후 1/10 가격으로 시설!
대상 : 전국사찰 · 교회 (제주도 포함)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50만원부터~,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방송시설 전문
Projector EPSON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NK Sound NK사운드 대표 박공희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1.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지만 동시 사용은 2개
2. 헤드셋 사용 염불시 자유로운 두 손으로 목탁 요령, 북 사용
시중에 없음
▣ 한국사찰 각종 제 필수품으로 가격 ₩58만원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각종 제 전문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58만원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❶ 〈석보상절〉, 조선불교의 시작



▶ 국문학과 불교학을 모두 전공한 팔방미인. 그래서 연구 주제도 〈월인석보〉와 〈삼국유사〉다. 현재는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로 활동 중이다. 이번 연재를 통해서는 국문학 대표 작품으로만 알고 있는 〈석보상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살핀다. 격주 연재.

부인 · 어머니 극락왕생 기원하며 쓰다



그림 · 강병호

우리에게 아스라히 잊혀진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첫 사랑 같은 책이 있었으니 바로 〈석보상절〉이다. 조선시대 훈민정음을 창제(1443년)하고 반포(1446년)한 후 첫 번째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열과 성을 다하여 만든 작품이 유교 국가 조선에서 조선불교를 주제로 쓴 〈석보상절〉(1447년)이었다는 것이다. 가히 금지된 첫사랑이라 할까.

왜 유교 책이 아니라 불교 책인 것일까. 그렇다면 누가 그 위험하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일까. 바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이다. 고려시대의 불교를 선교양종으로 혁파하고 대대적으로 불교를 박해했던 임금이다. 그 책을 쓴 저자는 다름 아닌 그의 아들 수양대군이었다. 이것이 〈석보상절〉을 읽는 관전 포인트이자 내내 들고 있어야 할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 세종의 명을 받들어 수양대군은 갓 태어난 문자 훈민정음으로 일필휘지 써내려간다. 반포 10개월만의 쾌거 〈석보상절〉 24권이라는 대작을 단숨에 완성한다. 세계 불가사의에 속할 조선불교 대장경의 효시이다. 이 대단한 첫사랑의 결실을 받을 주인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의 이름과 위엄을 아는 이 계실까.

세종 부인 · 세조 母 '소헌왕후'
왕후 서거하자 세종의 명으로
수양, '석가모니 일대기' 지어
24권 대작 〈석보상절〉 완성해

세종·세조 '훈민정음' 육성이자
'지식의 극락정토' 실현을 기원

석보상절 주인공은 소헌왕후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소헌왕후의 별세였다. 만일 소헌왕후가 없었다면 〈석보상절〉도 〈월인천강지곡〉도 없었을지 모른다. 있다고 해도 지금과 달라졌거나 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나왔을지도 모른다. 과연 〈석보상절〉의 탄생은 소헌왕후와 어떤 시절 인연이 되었던 것일까.

세종(1397~1450)의 왕비이자 수양대군(세조)의 어머니, 소헌왕후(1395~1446)를 만나보자. 시호는 '소헌왕후(昭憲王后)'로 그 삶을 요약하면 '뛰어나고 깊이 깨달아(昭), 선을 행하여 기록했다(憲)'는 뜻에서 '소헌'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그녀는 시호만큼 통찰력과 굳은 강단 그리고 평생 검소하고 선을 행하던 왕비였다.

곧 세종이 성군이라면 그 성군 노릇을 잘할 수 있게 한 내조의 여왕이 있으니 그가 바로 소헌왕후이다. 필자의 지론대로 항상 영웅 뒤에는 그보다 몇 배 훌륭한 여성이 있기 마련이다. 세종과의 사이에서 무려 8남 2녀를 낳은 그는 정 깊은 부부이자 다복한 어머니였다. 이뿐 아니라 세종은 두 살 연상인 아내 소헌왕후를 맞이할 때마다 반드시 일어서서 예를 갖추었다고 한다.

세종이 왕이니까,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이니까 부부 사이도 역시 좋았으리라고 지레짐작해서는 안 된다. 소헌왕후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들여다보노라면 세종을 세종답게 만든 그이의 인품과 지혜가 한참 윗길에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먼저 가족의 비극. 그의 부모와 형제들은 그가 왕비가 됐다는 기쁨도 잠시, 왕비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외척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시아버지 태종의 명으로 멸문지화를 당해야 했다. 그것도 세종이 1418년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일어난 일이다.

상왕이었던 태종은 먼저 소헌왕후의 아버지 심온에게 죄를 씌워 죽이고 어머니와 동생들은 관청의 노비로 만들었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벌이는 그 참담한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아야만 했다. 새로 등극한 왕이면 무엇하랴. 무능하기 필부만도 못한 남편과 그 끔찍한 가족의 비극을 소헌왕후는 묵묵히 견뎌야만 했던 것이다.

이미 태종에 의해 시어머니 원경왕후의 친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목도한 전례가 있었기에 당시 4남매의 어머니였던 소헌왕후는 자신과 자녀들의 안위 또한 살얼음판에서 지켜내야만 했을 것이다.

게다가 역적으로 몰린 친정아버지로 인하여 소헌왕후는 폐비까지 거론되었지만 이미 정의 공주와 두 아들(문종, 세조)을 낳고 셋째 안평을 임신 중이었기에 이를 모면할 수 있었다. 태종도 외척 세력을 없애는 것이 목표였지 새 왕비를 뽑아 또다시 외척 세력이 생기는 악순환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조선시대 초기 건국의 기틀을 다질 당시에 왕비가 되는 일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무섭고 끔찍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모진 세월을 함께 이겨낸 세종이 아내를 대하는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자 세종' 소헌왕후와 훈민정음

세종은 모두 2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후궁이 무려 12명이었다. 소헌왕후는 이들을 잘 거느려서 조선 역사상 내명부를 가장 안정적으로 다스린 왕비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것이 세종의 업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시대 왕비의 롤 모델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종이 산행을 간 사이 궁궐에 화재가 났을 때는 직접 진두지휘해 불을 끄는 등 통솔력과 순발력도 뛰어나 부창부수, 여자 세종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이 정도면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이라는 조선 최고 걸작 탄생의 주인공이 될 만하지 않은가.

그러한 소헌왕후가 훈민정음 반포를 6개월 앞둔 1446년 3월에 세상을 떠났다. 반포는 모두가 아는 한글날로 음력 9월 상순을 양력으로 환산한 10월 9일이다.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순탄한 40대를 보낸 소헌왕후에게 1444년부터 엄청난 일이 닥친다. 딸이 왕비가 된 탓에 한 많은 인생을 살다간 친정어머니 순흥 안씨가 1444년 11월에 별세한다. 그로부터 생때같은 20살 안팎의 5남 광평대군(1425~1444)이 12월에, 7남 평원대군(1427~1445)이 이듬해 1월에 연달아 세상을 떠났다. 굳건했던 소헌왕후도 상심하여 건강을 잃고 말았다. 정인지(1396~1478)가 쓴 '소헌왕후 영릉지'에는 이렇게 소헌왕후를 기리고 있다.

왕후는 나서부터 정숙하고 완만하여 오직 덕을 행하였다. 우리 전하 세종께서 사저에 살고 있을 적, 태종께서 훌륭한 문족 중에서 배필을 구하였다. 인자하고 검소하여 엄숙하고 온화한 아름다움을 이루었다. 왕후가 들어오고 물러갈 때는 전하께서 반드시 일어서시니, 그 공경하고 예로 대하심이 이와 같았다.

평생의 의지처였던 아내와 두 아들을 3년 동안에 잃게 된 세종 또한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을 것이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고 동고동락한 아내이자 어머니 같은, 어쩌면 그 둘을 합한 관세음보살 같은 존재 소헌왕후가 없는 세상이라니….

그러나 엄마를 잃은 둘째 아들 수양대군(1417~1468)도 세종 못지않았다. 소헌왕후는 각별했던 수양대군의 집에서 며느리 정희왕후의 병간호를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수양의 슬픔은 깊디깊었다.

단종을 죽이고 세조가 된 포악한 수양대군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나이 서른의 아들은 엄마 잃은 절절함이 단숨에 24권짜리 〈석보상절〉을 지었다.

12년 후인 1459년 세조가 된 지 5년 째에는 아버지 세종의 〈월인천강지곡〉을 합편한 〈월인석보〉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 슬픔을 〈월인석보〉 서문에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

예전 병인년 1446년에 소헌왕후께서 이승을 빨리 하직하시니 섧고 슬픔에 싸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으매, 세종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극락왕생 발원이 경전을 널리 알리는 것만 한 것이 없으니 네가 석보를 만들어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겠구나. — 〈월인석보〉 서문 中

세종이 어머니를 여의고 어쩔 줄 모르는 아들에게 하는 말이 들리는 것만 같다. "아들아, 너까지 몸 상하면 안 된다. 그러니 어머니의 부재를 잊고 그 부재를 넘어설 뜻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석보상절〉을 짓는 일이고 너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담담하지만 큰 울림으로 아들에게 말하고 있다.

소헌왕후에 바치는 사부곡 · 사모곡

언제나 내 편이었던 부자의 평생 의지처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다. '저세상에 가셔서도 우리를 위해 애쓰실' 소헌왕후에게 당신이 살아서 바라던 대로 잘하겠노라는 서약서가 바로 〈석보상절〉이요, 〈월인천강지곡〉이다. 이 부자의 신들린 신명을 보라. 수양대군이 10개월 만에 완성한 대작 〈석보상절〉 24권을 보고 세종은 금세 노래를 지었다는데 그것이 〈월인천강지곡〉으로 무려 600여 수이다. 낮밤을 잊고 정사가 바쁜 와중에 훈민정음으로 지은 최초의 산문 불경 〈석보상절〉과 운문 불교 게송 〈월인천강지곡〉은 이렇게 탄생하였다.

우리는 이 대단한 책을 이제부터 찬찬히 읽어나가기로 한다. 세종과 세조의 육성이요, 친필로 써내려간 훈민정음이다.

그것이 유교의 나라를 세웠어도 막을 수 없는 운명 같은 사랑 석가모니의 일대기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를 통해 소헌왕후의 극락왕생과 조선의 온 백성과 나누는 지식의 극락정토 실현을 발원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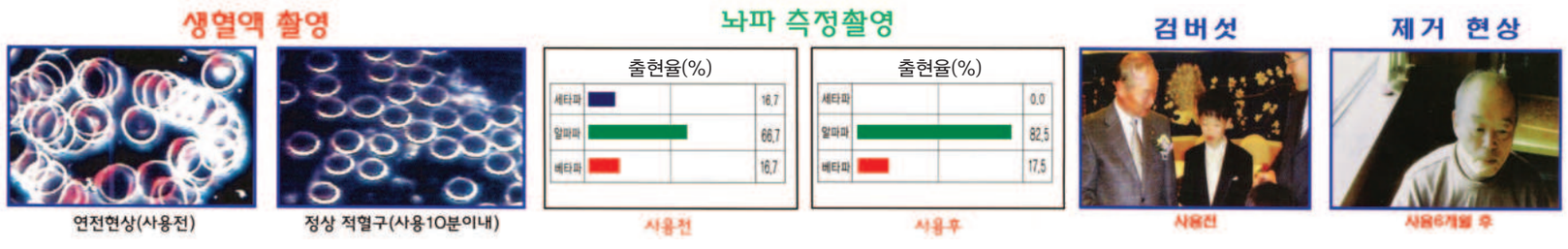
다음 글에서는 〈석보상절〉의 서문을 통해 책의 개요와 현존하는 첫 책 3권의 순서를 소개하기로 한다.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흥미진진한 〈석보상절〉의 세계, 기대하셔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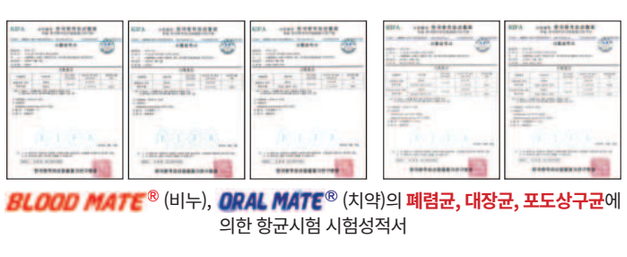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어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가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4개 = 6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9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최재희의 인물로 본 미얀마 ❶ 연재를 시작하며



▶ 지난해 '비긴어게인 미얀마'를 통해 미얀마 불교문화를 소개한 최재희씨가 올해는 인물을 통해 미얀마 국민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한 불교를 이야기한다. 필자는 동국대 불교학과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양곤대 오리엔탈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이다

국민들 불심이 미얀마 이끄는 힘



미얀마에서 열리는 대학생 경전 암송 대회. 미얀마는 일상 곳곳에서 불교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다.



양곤대 복사가게에 봉안돼 있는 불상과 불단.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사람이 모여 집단을 이뤄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곳을 우리는 사회라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불자로써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다. 미얀마에 유학을 가기 전,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고 불려지는 위치에 계신 어른들의 봉사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유독 학생티가 나는 나에게 모 대학의 교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미래의 꿈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재희씨는 앞으로 미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나는 아무런 경계심 없이 "저는 미얀마에 가서 박사과정을 하려고 준비 중이예요!"라며 해맑게 대답했다. "전공이 뭐예요?"라는 물음에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부에서 학·석사를 하고, 현재 미얀마 양곤대학교 오리엔탈학과에 지원 준비중이예요"라고 답했다. 그에 대한 답은 놀라웠다. "그럼, 우리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요! 내가 재희씨를 잘 챙겨 주고 싶어지네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부해 볼 생각이 없나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접해보지 못 해서 재희씨가 기독교를 모르는 것 같아 아쉬워요."

이러한 경우 이외에도, '미얀마 유학생활 전액 장학금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개종할 생각이 없냐는 제안도 많이 받았다. 워낙 우리나라 사회에서 청년 불자가 적을 뿐더러 기독교 신자가 우리나라에 워낙 사회 곳곳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신자'라면 다수의 모임이 형성된다. '불자'는 가끔 1~2명만 마주쳐도 반가울 정도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알 수 없는 고독에 시달렸다. 하지만, 미얀마 유학생활을 하면서 한국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겪게 되었다.

공항에서부터 진하게 느껴지던 불교의 향기

유학을 떠나기 전에도 일년에 한 두번은 방학 때마다 미얀마에 방문했다. 인천에서 미얀마에 가는 비행기 옆자리에 미얀마 사람들이 앉으면 부처님 경전을 꺼내 읽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사람들을 마주 할 때마다 알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그 이후부터 나도 경전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하여, 떠나기 전 모두의 안전을 바라는 기도를 한다. 양곤 국제공항에 내려 입국심사를 하기 위해, 미얀마 입국 심사대에 가면 어김없이 그들의 책상에 놓인 부처님 경전을 볼 수 있다.

제일 놀랐던 점은 택시를 타거나, 미얀마 지인들의 차를 탔을 때였다. 차에는 반드시 부처님 스티커, 염주, 미얀마 고승 스님의 사진 중 하나는 붙어 있었다. 만약에 불교와 관련된 흔적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으면 타 종교를 믿는 미얀마 사람들이었다. 불심이 정말 깊은 택시 운전사의 경우에는 불교 경전 CD를 차에 틀어 놓는다. 간혹 양곤 도로를 달리다 보면 위험한 순간들이 많지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힘이라고 미얀마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럴 때마다 번뜩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식당에 가도 계산대 옆에 작은 불상과 물 공양, 꽃 공양, 촛불 공양을 올려놓은 모습을 어디를 가도 발견할 수 있다. 길을 걷다 가도 큰 나무 옆을 보면 어김없이 불상을 발견할 수 있다. 생활 곳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도록 미얀마 사람들은 불상을 모셔 놓는다. 미얀마 사람들의 집에 놀러 갈 때 마다 놀라운 점은 부처님을 모셔 놓는 공간이 있다는 점이다. 소득차이에 따라 불단의 크기가 작거나, 커지는 차이는 있지만 부처님을 예경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 감동적이었다. 코로나19로 잠시 귀국해 한국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제일 먼저 한 것이 미얀마 사람들처럼 집에도 불상을 모셔 놓는 일이었다.

미얀마 사람들이 삼보(三寶:불·법·승)에 대한 존경심을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점은 스님들을 대할 때이다. 우리나라와 제일 달랐던 점은 교통수단을 탈 때였다. 버스에서도 스님이 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스님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미얀마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도 예외가 없다.

불자가 아닌 한국의 지인분이 어느 날 양곤(예전 미얀마 수도, 현재 미얀마 경제도시)에서 네피도(현재 미얀마 수도)로 출장을 갈 일이 있었다.

> **기독교의 적극적인 선교 많은 한국과는 다른 불교적 분위기 모든 직업군·계층이 불자들 큰스님·정부·사회지도자 등 인물로 미얀마 문화 소개한다**



미얀마 친구의 집에도 불단이 있다. 가정에 불단이 있는 경우는 흔한 일이다.

일찍 티켓팅을 마치고 비행기에서 2번째로 앞좌석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스님 몇 명이 타자 옆자리에 있던 미얀마 고위간부가 벌떡 일어나 스님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것을 보고 '미얀마의 불교 문화'라고 이해했다는 에피소드를 이야기 해 주셨다.

미얀마인들의 최고의 자부심, 양곤대학교에서도 불교는 여전히 중심

미얀마 사람들이 양곤대학교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은 남다르다. 우리나라 대학과 비교하자면, 미얀마의 서울대학교와 같은 곳이다. 군부독재이전 시절 미얀마의 최고의 브레인들, 민주화 운동을 이끈 리더들은 대부분 양곤대학교 출신이다. 양곤대학교에서는 한국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진풍경을 구경할 수 있다. 졸업시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곤대학교의 유명한 건물 앞에서는 학사모를 쓰고 졸업사진을 찍는 수많은 사람을 구경할 수 있다. 처음엔 '졸업을 매달 하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졸업사진을 찍지?' 라고 생각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미얀마 각 대학교 졸업생들이 양곤대학교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얀마 국민들이 양곤대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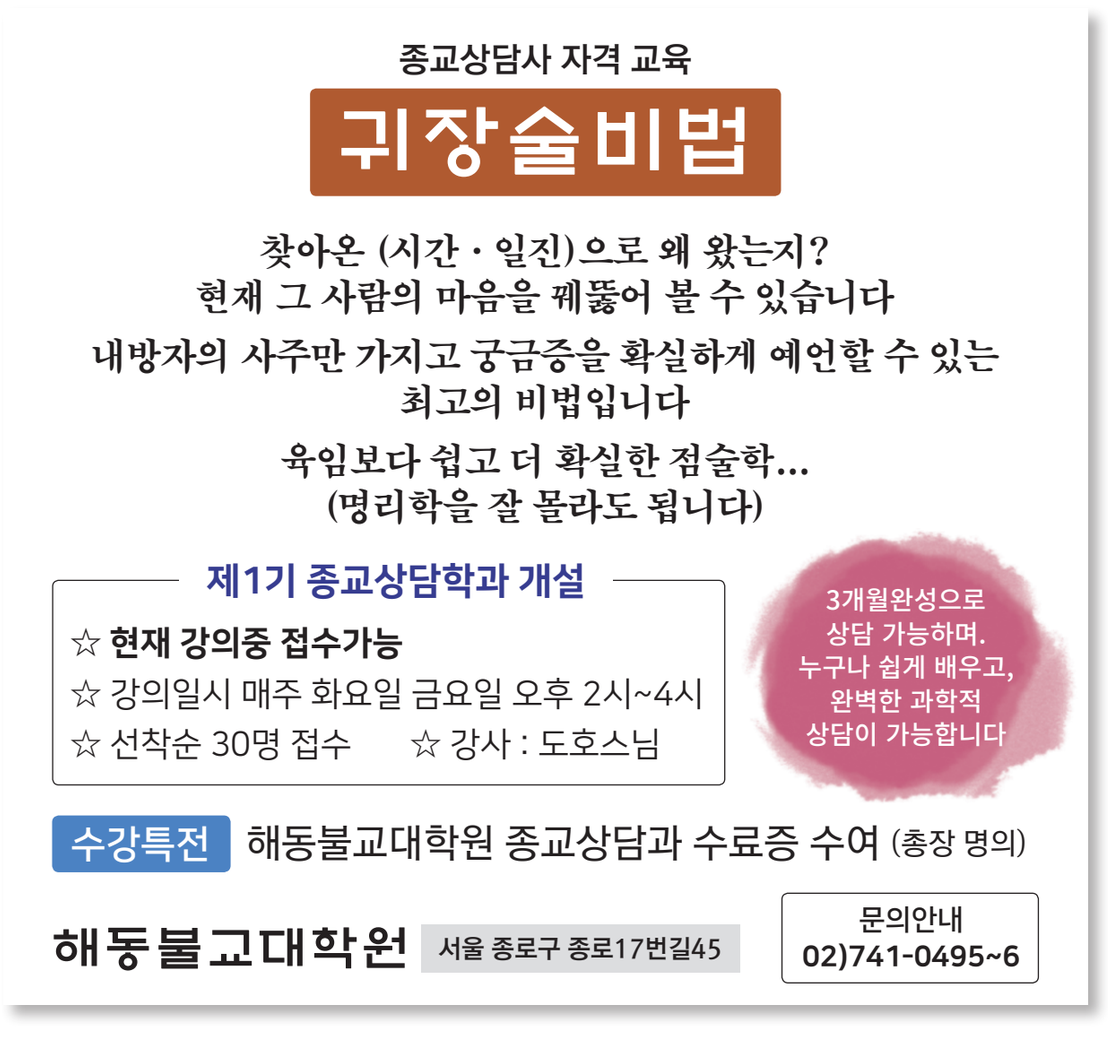
양곤대학교는 2020년도에 개교 100주년을 맞었다. 아웅산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하여 많은 미얀마 정부 고위간부들, 양곤주지사 등은 양곤대학교에 개교 100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놀랐던 점은, 양곤대학교는 동국대학교처럼 종립학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법회를 한 점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줌(Zoom)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교육부 장관님도 참여하셨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담마싸미(Ven.Dhammasami) 스님께서 법문을 해 주셨다. 스님께서 "법문에 시간 제한이 있나요?"라고 묻자, 교육부 장관님은 양손을 합장한 후 "스님께서 끝내고 싶으실 때 마치시면 됩니다"라고 대답하는 모습에 미얀마 사람들의 불심을 느낄 수 있었다. 종립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교 100주년 행사에 기념 법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미얀마 사람들의 삶에 불교가 얼마나 가까운지 느낄 수 있다.

미얀마 사람들이 불자라고 해서 외국인에게도 엄격히 불교의 잣대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얀마 국민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과 하나인 불교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이번 연재에서는 미얀마 사회를 구성하는 스님과 정부 관계자, 정치인, 경제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조망하여 미얀마 현재 사회의 불교적 가치관이 담긴 '인적 인드라망의 그물'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2021년 새로운 연재를 시작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미얀마 교수님이 내가 위축될 때 마다 해주셨던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두려워할 때만 너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 나에게 다시 글을 쓸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미얀마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 불자들의 삶을 마주하며 우리 불자들의 삶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승에서 십여시까지

〈一乘〉 〈十如是〉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② 성불

일승은 일불승으로 중생의 성불을 뜻하는 것이고, 이문은 적문과 본문이다. 삼주는 상근기가 수기를 받는 법설주(法說周)와 중근기가 수기를 받는 비설주(譬說周), 그리고 하근기가 수기를 받는 인연주(因緣周)이다. 사행은 안락행품에 설해진 설법자가 갖추어야 할 신, 구, 의와 서원에 대한 네 가지 행동지침이다. 오사는 오종의 법사로 수지(受持), 독경(讀經), 송경(誦經), 서사(書寫), 해설(解說)하는 법사를 말한다. 육공은 육근공덕을 말한다. 법사공덕품에서 설명되는 〈법화경〉을 통해 얻게 되는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의 공덕이다. 〈능엄경〉에서 설해진 육근 공덕과 같은 수치의 이야기가 나온다.

7유(七喩)는 〈법화경〉 전문에서 설해지고 있는 일곱 가지의 비유를 말한다. 이는 예로부터 법화7유라 하여 〈법화경〉의 중요 내용으로 여겨 왔다.

8보는 종지용출품에 나오는 8항하사 수 보살들로 타방 국토에서 온 이 보살들이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법화경〉을 수호하고 서사, 공양하겠다고 하자 부처님이 그만두라 하면서 이들의 청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온다. 부처님은 그대들이 아니어도 이 경을 수호해 지닐 이들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9유는 앞의 칠유에 두 가지 비유를 추가하여 9유라 한다. 제10 법사품에 우물파는 비유(鑿井喩)가 있는데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기 위해 우물을 팔 때 마른 흙이 나오면 물이 아직 나올 때가 멀었지만 진흙이 나오면 물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듯이 〈법화경〉을 듣지 못하면 불지(佛智)에서 아주 멀고 〈법화경〉을 들으면 가깝다는 비유이다. 9번째 비유 부소유(父少喩)는 제15 종지용출품에 나오는 이야기로 미륵보살이 부처님이 도를 얻은 지 오래 되었다는 말에 25살 밖에 되지 않는 젊은이가 흰 머리에 주름 잡힌 백 세 노인을 아들이라 하면 누가 믿겠느냐 하면서 부처님이 도를 얻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 곧 구원겁 전에 성불했다는 것을 누가 의심하지 않도록 설명해 달라고 청하는 말에서 나오는 비유이다.

여기에 대해 다음 여래수량품에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들은 모두 말하기를 '지금의 석가모니불은 석가족의 궁전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으사 아뇩다라샴막삼보리를 얻었다.' 하지만 선남자여, 내가 실로 성불한 지는 무량 무변 백천만억 나유타 겁이니라."

십여시(十如是)란 여시상(相), 여시성(性), 여시체(體), 여시력(力), 여시작(作), 여시인(因), 여시연(緣), 여시과(果), 여시보(報), 여시본말구경(本末究竟)으로 제법실상을 10가지 측면에서 밝히는 이론이다. 상이란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이며 성이란 안으로 갖추어진 변하지 않는 성품을 일컫는다. 체란 상과 성을 가지고 있는 주질물(主質物) 자체를 말하고 역이란 체에 갖추어져 있는 힘이다. 작은 운동 조작을 말하고 인은 직접적인 원인 또는 습인(習因)을 말한다. 연은 인을 도우는 조인(助因)으로 과(果)를 불러오는 조건이다. 과는 인으로 생긴 결과이며 보는 연으로 생긴 결과이다. 본말구경이란 처음 상에서부터 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3제(諦)의 묘한 이치를 포함해 똑같이 평등함을 말하는 것이다.

〈법화경〉에 의지하여 천태사상을 확립한 천태 지의(天台 智顗, 538~597)는 이 십여시를 의거하여 일념삼천설(一念三千說)을 내세웠다. 일념삼천설이란 사람의 한 생각 속에 삼천의 제법이 내포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설이다. 이는 일종의 관법(觀法)으로 1법을 들어 제법을 갖춘다는 의미로 가장 관하기 쉬운 자기의 망심을 관하여 실상의 이치를 터득한다는 주장이다.

〈법화경〉 방편품에 사리불이 방편이 아닌 부처님의 참뜻을 설해달라고 청하자 부처님은 거절한다. 소위 삼청삼지(三請三止)의 장면이 있는데 세 번을 거절하시다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 까닭을 말씀하신다. 이를 일대사인연이라 하면서 중생들에게 여래의 지견을 열어주고(開), 보여주고(示), 깨닫게 해주고(悟), 들어오게 해주기 위해서(入) 라고 말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계·율 경계와 의미의 차이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② 도덕적 삶과 계율

불교에서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불자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도덕적 삶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불교의 장점이라고 하거나, 도덕적 삶보다 종교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단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자의 궁극적 목표인 깨달음은 도덕적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간혹 불교의 도덕이라고 할 수 있는 계율을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계율(戒律)은 불자가 지켜야 하는 '생활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출가자만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재가자도 일상생활 속에서 계율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출가자든 재가자든 계율을 지켜야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계율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계율의 의미와 성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인도불교와 달리 동아시아 불교권인 한국, 중국, 일본의 불교에서는 계율을 한 단어로 사용한다. 그렇지만 계(戒)와 율(律)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어원과 의미에 차이가 있다. 우선 계(戒, ⓢśīla)는 시라(尸羅)로 음사(音寫)되기도 하는데, 그 의미는 '행위, 습관, 성격, 도덕' 등이다. 이를테면 청정한 습관을 정계(淨戒), 좋은 습관을 선계(善戒)라고 하며, 나쁜 습관을 악계(惡戒)라고 한다. 따라서 계는 마음과 몸에 청정하고 좋은 습관이 붙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율(律, ⓢvinaya)은 비나야(毘奈耶)로 음사되기도 하는데, 그 의미는 '제거하다, 훈련하다, 교육하다' 등이다. 따라서 율은 모든 잘못이나 악행(惡行)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점차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잘못이나 악행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로 인해 율은 출가자의 공동체인 승단(僧團)의 생활규칙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이 인도불교에서는 계와 율이 그 의미에 따라 달리 쓰였지만, 율장(律藏)이 중국으로 전해져 한역(漢譯)되는 과정에서 그 구분이 모호해지게 됐다. 심지어 학처(學處, ⓢsikṣāpada)의 경우에도 산스크리트 원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계(戒)로 한역되기도 했다. 그러나 학처는 율장에 전해지는 구체적인 조항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계조(戒條)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처를 계라는 용어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그 의미상 율(律)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계와 율은 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성격에도 차이가 있다. 계는 자발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율은 타율적인 측면이 강하다. 계는 부처님께서 당시 외도(外道)들의 그릇된 행동을 비판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어서 이를 어긴다고 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율은 실제 수도(修道)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동체의 규칙이어서 이를 어긴 경우 그 경중(輕重)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계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지켜진다는 점에서 율과 구분되지만,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 현실과 타협하기 쉽다. 반면에 율은 강제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계와 구분되지만,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계율을 잘 지키려면 계와 율의 장 · 단점을 상호 보완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도덕적 삶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노력과 공동체 차원에서의 유연한 적용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불자다운 삶은 그 균형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하는 것이리라.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② 마제(馬祭, 말 희생제)

석가모니 시대 제사 존재했나?

고대 인도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들이 치러졌다. 집안에서 간단히 치를 수 있는 제사에서 왕실의 국가적인 의례까지 다양했다. 한나절이면 끝나는 제사도 있었고, 1년에서 수년이 걸리는 제사들도 있었다. 고대 힌두인들은 제사의 규모가 클수록 희생물로 바쳐야할 동물들의 규모도 커지고 그래야만 신으로부터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당연히 왕이 치르는 거대한 규모의 제사에는 수백 마리의 동물들이 피를 흘려야 했다.

불경 여러 곳에는 이러한 당대의 종교풍습을 비판하는 석가모니의 장면이 그려진다. 예를 들어, 〈코살라상윳타〉에는 코살라 국왕인 파세나디(Pasenadi)가 '말 희생제(마제, 馬祭)'를 지내기 위해 오백 마리씩의 말과 황소, 산양, 염소 등을 제사장에 준비하는 장면이 나온다. 수많은 동물이 도살될 상황을 제자들이 석가모니에게 고하자, 석가모니는 제사가 무용하다는 뜻의 게송을 읊으며 이를 힐난한다. 결국 제사는 취소된다. 말 희생제와 같은 베다 의례에 대한 비판은 불경에 적지 않게 등장한다.

그런데 이 제사는 과연 석가모니 시대에 존재했던 것일까. 그 가능성은 꽤나 높다. 초기 우파니샤드에도 말 희생제의 상징성이 노래되고 있으며, 마하바라따나 라마야나에도 매우 구체적으로 이 제사의 절차가 그려지고 있다. 말 희생제는 대표적인 인도-아리아인들의 베다 의례이며, 그 역사는 어찌 보면 인도-유럽피언의 공동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한 형태의 말 희생제가 고대 유럽국가에 퍼져 있었다. 고대 인도에서 이 말 희생제를 지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왕이 늘그막에 자식이 없어 꼭 자식을 얻고 싶을 때, 큰 전쟁을 마친 뒤 백성들을 달래고 민심의 통합을 위해, 또는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도 말 희생제를 치를 수 있다.

석가모니 시대에 말 희생제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제사가 아니라 국왕이나 할 수 있는 왕실의례이며 더 중요하게는 강력한 국력을 갖는 패권 국가에서나 가능한 의례였다. 가령 마가다국이나 코살라국과 같은 나라는 할 수 있어도 석가모니의 아버지같이 작은 왕국을 다스리던 왕은 거의 치르기 힘든 의례였다. 그 이유는 단지 규모가 커서 그런 것만은 결코 아니다. 이 제사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일종의 모험이기 때문이다. 이 제사 절차가 그 이유를 말해준다.

말 희생제라고 부르는 '아슈바메다(aśvamedha)는 왕실에서 신중하게 고른 수컷 말을 잘 씻겨서 고삐를 푸는 것으로 시작한다. 말은 1년 동안 마음껏 대지를 뛰어다니도록 방치된다. 선발된 정예 무사들은 무장한 채로 이 말을 뒤쫓는다. 이 말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보호만 한다. 그러다가 말이 국경을 넘게 되면 무사들은 말을 쫓아가면서 보호해야 하므로 상대방 국가의 영토를 침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상대국가가 인정하게 되면 국가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되겠지만, 이를 영토침공으로 받아들이면 곧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례는 패권국가가 아니면 쉽사리 치를 수 없는 것이다.

무사히 1년 동안 말의 방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무사들은 말을 왕궁으로 데리고 돌아온다. 돌아온 말은 본격적으로 베다 의례의 희생물로 오른다. 사제들은 말을 잘 씻긴 다음 장막 안에서 목을 졸라 죽인다. 클라이막스는 여기부터다. 밤이 되면 장막 안으로 왕비가 들어와 뻣뻣이 죽어있는 말 옆에 누워 동침한다. 이것은 말과의 성적인 합일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절차는 단순한 흑마술적인 장치가 아니다. 수말은 1년 동안 대지를 뛰어다니며 자연의 생기를 마음껏 흡입했을 것이다. 왕비는 죽은 말에 간직된 그 기운을 상징적으로 빨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자연의 힘과 야생성을 왕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말한 바처럼 이 의례의 원형은 본래 고대 인도만의 것이 아니다. 고대 아일랜드의 왕들은 그렇게 돌아온 말을 거대한 통에 넣고 삶아 국을 만들었다. 그다음 옷을 벗고 그 국통에 들어가 자신도 그 국의 일부가 된 다음, 그 국을 백성들에게 시음하게 했다. 이러한 힘의 전이(轉移)에 관한 상징성을 고대 인도의 의례에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II·III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II·III**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2-1949-5544-0 (예금주 : 주식회사 연당)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24호 | 17 | 전면광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지키는 이는
단순히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충북 감곡 봉은사 공양주 모십니다
60세이상 가족같이 지내실분
봉은사에서는 스님분들 염불, 음치교정, 전통가요, 민요, 관음시식, 체계적으로 강의
문의 010-5883-2255
010-5893-3705

★검 색★
GP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 • •
공양주 모십니다.
도심속 사찰
관음사
• • •
010-5736-1835

• • •
행자승 50세 이하, 비구스님 모십니다.
포항 원진사
• • •
010-3517-6099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 • •
010-8721-2198

돈이 들어오는 건강·행운 비법공개
◈ 치우천왕 빨간속옷 ◈
선물 건강·성공·행운 "특수비법 책"
다음카페 : 치우천왕 정담 검색 농협 352-0796-0696-03 남여:3만원
문의 : 010-4500-8234 (정담)

**** 희망소식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우울증, 공황장애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 되는 병
기공, 퇴마, 천도 미륵사 주지 청원
010-3111-9056

기도의 신
원하는 대로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명 리 · 육 효 강 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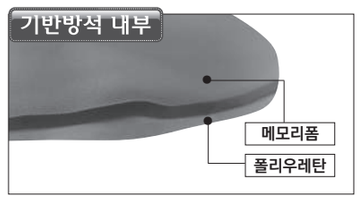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24호 | 18 | 전면광고

성냄을 죽이면 편안히 잘 수 있고 마음에 걱정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300평
◎ 건평 : 100평,외
◎ 시내중심,공원옆,주차가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도
◎ 대지 : 200평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9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입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 최고의 명당, 백두대간 끝자락, 호수전망 최고, 버스 앞마당까지 진입
- 대지1500평, 개발예정지4000평, 개발된것1500평, 건물 36평 2동, 8평 1동 콘테이너 8평

010-4752-0459
010-4492-34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서창
- 대지 200평, 자연녹지 약 930평, 건평 120평 3층, 부속건물 약 20평
- 용왕당, 산신각, 넓은주차장
- 경전철 역세권
- 가액 : 22억중 대출 9억

010-4492-347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0만원
- 시설금 2천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 땅값만 받습니다
- 총 530평, 현재 성업 중
- 법당, 요사채, 공양간, 휴게실, 삼층석탑, 석등 등, 부산 울산간 지하철 역과 5분거리
- 가액 : 6억 2천만원, 스님 직접

010-2702-03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 1층 : 93.3725㎡(방음시공)
- 법당, 방1, 공양실
- 보증금 1000만 / 월 61만
- 권리금 2800만원

010-8752-9477
010-9459-9477

사찰안내 (부동산 절대사절)

- 위치 : 김해, 건물 : 60여평
- 가액 : 37억
- 토지 : 임야(98,100평), (2차선 물고 산속 1km까지 폭 3~4m 포장도로)
- 용도 : 현재사찰, 청소년수련장, 주간 요양보호센터, 요양원, 산림욕장, 버섯 약초재배, 수목장등

- 위치 : 경주, 대지 250여평
- 가액 : 3억 1천
- 건물 : 법당 30여평 1동, 요사채 2동 (2층및 1층), 종무소 1동
- 편의 : 버스정거장 도보 3분, 동대병원 차로 10분, 2차선에서 200m, 민가 4채 끝자락의 산 밑, 정남향, 마르지않는 1급 청정수, 수도 有

특기 : 김해 물건 매입시, 경주 물건은 기부함(단, 법인체에 한함)

010-5460-6503

사 찰 안 내

- 서울 구로구 고척2동
- 작은법당(반지하)
- 혼자 기도하고 상담하기엔 안성맞춤
- 보증금2백, 월세15만 권리금3백

010-2204-8375

포 교 원 할 분

- 서울 강서 화곡동 소재
- 2층건물에 2층, 20평, 정남향코너 시장옆
- 보증금 2백, 월 40
- 권리금, 부가세 없음
- 건물주가 협조함

010-5381-14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783-2번지
- 대지110평, 전354평
- 가격 절충
- 심명암 심오 합장

010-3340-653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55평 ● 요사: 75평
- 대지: 500평 ● 임야: 4천평
-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0023

토 지 안 내

- 위치 :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 절터적합, 남향, 긴동굴 있음, 계곡접함
- 총17,470평, 전900평, 산16,570평
- 가액 5억5천만원
- 상담환영

010-3618-6200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목요일 정오12시~6시 [월 4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세종시 상가안내

◈ 사찰·토지·임야와 교환도 가능 ◈
정부청사앞 인기 급상승자리

7층(E/V有) 분양138.6㎡
가액 6억(절충가)
융자1억8500, 실가액4억
현재 레스토랑 운영중
(보2천-월138임대중 23년만기)

업종변경가능·임대업최적·투자가치최상급
시세대비저렴함·주인 직거래

010-6892-3999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불자의 긍지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장(지사명)	연락처
손문철 (대구지사)	T 053-768-8008 H 010-2813-8008
이도경 (부산지사)	T 051-405-9402 H 010-5640-888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T 062-512-5003 H 010-2629-1508
조동제 (전북지사)	T 063-910-8977 H 010-8642-7733
성낙두 (경남지사)	T 051-512-1761 H 010-3860-7008
박영애 (영주지국)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Just do it!

새해에 새롭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게으름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한해를 살기 위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 지극히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하루에 1시간 명상하고 싶으면 15분을 목표로 하세요. 1년 후엔 1시간 넘게 매일 명상할 수 있습니다.
* 시발점에 초점을 두세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90%예요. 좌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엉덩이를 방석에 붙이는 게 어려워요. 운동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헬스클럽 입구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 쉬어가요.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안 좋아요. 충분히 자고 충분이 쉬면 더 효율적으로 더 오래 일과 수행을 할 수 있어요.
*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세요. 병이 생기고 나서 마음의 평화와 몸의 건강을 찾지 말고 지금 큰 병이 생긴 것처럼 생각하고 당장 몸과 마음에 신경을 쓰세요.
* 길게 보세요. 현명한 사람은 지금의 작은 희생으로 장기적인 큰 행복을 가져요. 길게 보고 생각을 끝까지 하면 지금의 작은 즐거움을 희생할 수 있어요.

올해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냥 하고 그냥 살아요! Just do it!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① 함박꽃녹차

녹차향과 함박꽃향 미묘한 줄다리기

차 한 잔 하지요.

1월의 아침에는 무슨 차가 어울릴까요? 자그마한 차도구들을 오밀조밀 늘어놓고 무슨 차를 마실까 즐거운 고민을 하여 봅니다.

겨울잠 자는 곰처럼 뒹굴뒹굴 갇혀 지내는 나날입니다. 겨울의 한 복판에서 봄날의 향기가 그리워집니다. 작년 봄 지리산 차밭에서 찻잎을 따고 덖어 만든 작설차가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녹차는 새봄에 만든 햇차가 가장 감미롭고 겨울이 되면 조금 꿉꿉해지지요. 오늘은 아끼고 아껴 마시다가 아직까지 남아있게 된 지리산 녹차에 마법의 재료를 블랜딩해 볼까요?

한라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백두산에 가고 싶었는데 한라산을 오른 것이었지요. 어느 날, 식물학전공 교수님으로부터 백두산의 식물 분포 종이 한라산 1500m 고지 이상의 식물 분포 종과 상당수 일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의 식물 분포 종을 관찰하려고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속내는 따로 있었지요. 우리나라 고대 역사서이며 위서라고 대접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단고기〉에는 '한화'라는 꽃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한화, 옛 한국의 꽃, 이것이 도대체 무슨 꽃인지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옛 한국의 꽃이 지금의 무궁화일까?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진달래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한라산 중턱을 오르다가 저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 나와 "얼음!" 하고 순간을 정지시켜 버리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다잖아요. 그 사람 주변으로 후광이 둘러지며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사람

지리산 녹차+한라산 함박꽃 꽃잎 양에 따라 미묘한 차이

만 보인다잖아요. 나는 한라산에서 그러한 꽃을 만났습니다. 초록의 잎사귀 사이에 숨어 있는 하얀 꽃, "하얀 꽃"이라고 부르기에는 섭섭해서 글자 사이에 하이픈을 넣어 "하-이-얀-꽃"이라고 불러야만 할 것 같은, 단아한 꽃이 그 산 속에 있었습니다. 탐스러우면서도 수줍고, 우아하면서도 단정하고, 고귀하면서도 순박하고, 여린듯하면서도 속이 꽉 찬 듯 신비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인의 미의식이 한 송이 꽃에 오롯이 농축적으로 담긴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꽃, 옛 한국의 꽃이 바로 이 꽃일지도 모르겠어. 누구든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겠는 걸."

산을 내려와 식물도감을 찾아 보고나서 이 꽃나무 이름이 '함박꽃나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깊은 산 중턱 청정한 환경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토종 꽃나무이며, 북한의 김일성이 좋아해서 북한의 국화가 되었다는 둥, 북한의 국화로 지정된 후 우리나라 산에 심지 못하게 했다는 둥, 산목련이라고도 부르며 한방에서 약재로 쓰이는 꽃이라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도 그 후에 알았습니다.



녹차에 차로 말려둔 함박꽃을 블랜딩한 함박꽃녹차

차 한 잔 하지요.

마법의 레시피는 차로 말려 둔 함박꽃입니다. 맑은 정기를 품은 지리산 녹차에 하늘에서 내려온 하얀 함박꽃 한 송이를 블랜딩해서 겨울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늘과 사람을 잇고, 역사와 현재를 잇고, 자연과 사람을 잇는 차 한 잔을 우립니다. 첫 잔에는 함박꽃잎을 한 장만 블랜딩해서 녹차의 향을 즐기고, 두 번째 잔에는 꽃잎을 두 장 블랜딩해서 녹차향과 함박꽃 향의 미묘한 줄다리기를 음미하다가, 세 번째 잔에는 함박꽃 한 송이를 다 넣습니다. 깊고 맑고 기운이 생동하는 녹차향 사이로 살풋한 꽃 향이 휘어감깁니다. 신선하고 우아하다가 폭포처럼 꽃향기가 휘몰아칩니다. 마주 앉은 사람은 눈동자가 휘둥그레지며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겨울의 한 복판에서 봄날의 향기를 마음껏 음미합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에, 차 한 잔이 놓이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따뜻한 차가 입술을 적시고, 입안에 잠시 머물다가 향기를 남기며 저 아래 단전까지 후욱 내려가면, 온 몸에 번지는 따뜻한 위로, 입가에 번지는 미소, 둘만 아는 기쁨.

밤하늘의 달님은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며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산도 바다도 구름도 바람도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인간세상만 요지경인 듯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자기는 태어나서 제1차 산업혁명에서 제4차 산업혁명까지를 온 몸으로 다 겪고 있다고요. 전깃불도 없는 산골서 태어나 도시로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갖고 중년이 되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살게 되었다고요. 맞아요. 어쩌면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어두운 동굴 속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각. 자. 도. 생. 각자 알아서 살기를 도모하라. 전시와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어려운 이 시절에 어떤 비밀병기를 가지고 있나요? '차(茶)'라는 취미생활은 어떠신가요?

현대의학도 차의 효능에 대해 연구했지요. 차에는 폴리페놀, 미네랄, 카테킨, 갈산이 풍부하여 신체 면역력을 높여준다. 자연치유력을 강화한다. 바이러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암세포의 세포사멸을 유도한다. 뇌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한다. 내장지방을 분해한다. 피부를 맑게 한다. 마음을 고요히 안정시킨다. 등 차의 의학적 효능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병이 낫고 마음이 편안하고 단정하고 맑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안개 속을 거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젖듯이 차를 매일매일 꾸준히 마시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피부도 광이 나고 조금은 맑아지는 것, 차츰 신선을 닮아가는 것, 또 인간관계도 물 흐르듯 편안해 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차는 현대인의 비밀병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잇다it茶 대표〉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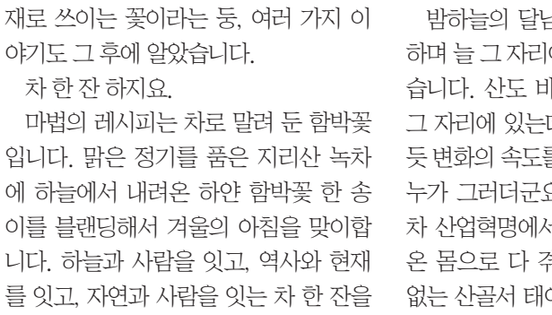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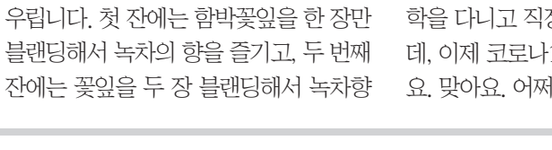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검색창에서 현대불교신문 을 쳐보세요

마음책 다시 읽기 **부처님의 감정수업** 분노는 나의 스승이다 ❶ 분노관리

▶ **한줄 써머리**
분노지수 높은 사람은 50대 사망율이 7배 높다.

풍요 속 화를 잘 관리하자



분노를 양산하는 사회

과거 시대와 비교해 볼 때 현대사회는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경쟁적인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쟁의 결과로 얻게 되는 부의 편차가 점차로 심화되고 있어서 경쟁에 더욱 더 매달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등수로 서열을 부여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습니다. 상대적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그나마 과거에 대학은 상대평가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대학을 평가하는데 교수들이 엄격한 상대평가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 대학을 평가할 때 낮은 점수를 줍니다. 예전에는 교수가 볼 때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하고 잘했다면 전원 A+를 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모두 못했다면 전원F를 줄수도 있었지요.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성적 등급마다 줄 수 있는 인원의 퍼센티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 90점 이상을 받아도 0.1점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로 줄을 세우고 C학점도 주고 D학점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적 입력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아서 기업에 취업을 해도 그 안에서 또 끊임없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평가 역시 대체로 상대평가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는 C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연공서열도 있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업적에 대한 냉정한 상대평가로 연봉과 승진이 결정됩니다.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어떤 관점을 갖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 생존해야 하고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경쟁에 뒤처지면 안되고 늘 이겨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게 됩니다. 사회구조가 경쟁적이다 보니 마음에 평화가 없고 여유가 없습니다. 늘 남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이 뒤처졌다는 좌절감, 혹은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좌절되면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 강한 화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강한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결과의 원인을 개인에게 귀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화가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절된 결과를 가져온 자신의 무능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우울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산업화된 사회일수록 우울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보이는 연령이 점차 내려가서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화가 분출해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대상이나 상황에서 강한 공격성을 띄고 표출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쌓인 화를 집에 와서 가족에게 풀기도 합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 게시판에서 악성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또 사회제도나 정부 정책에 대해 과도하게 공격적인 비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화가 양산되어 우울과 분노가 만연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화의 가스가 꽉차 있어서 어느 때든 작은 불씨로도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이나 상대를 죽이는 살인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의 무한 경쟁적인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변화가 당장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사회구조가 변화할 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사회구조에서든 자신의 화에 대한 조절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평가와 경쟁 만연 시대
우울과 분노가 사회 곳곳에
분노표현 · 억제표현 두갈래
화(火) 조절 능력 양성 필요

분노와 경험과 표현

물론 화에는 분명히 긍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경험하는 좌절에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상대가 잘못한 경우에는 화가 나야 하고, 상대가 바르게 행동하도록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시적으로도 잘못된 사회제도나 사회현상이 제대로 깨어 있지 못하면, 느껴야 할 분노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분노를 느끼고, 분노의 힘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변화시켜야 사회가 바르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제대로 분노를 느끼고 바르게 사용하면 나와 환경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분노의 경험과 분노의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분노를 느끼는 것과 분노에 대한 반응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경험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내 욕구가 좌절되었음을 알려주는 정보적 측면이 있습니다.

분노의 표현은 다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분노표출은 화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분노억제는 화를 바깥으로 표출하지 않고 안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분노표출은 당장 효과적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의 잘못된 분노표출로 인해 관계가 나빠지고 분노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분노억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분노를 부정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보고 이해해서 분노의 정보적 기능을 잘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분노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분노를 나타내지 못하게 엄하게 가르치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무조건 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직자 중에 분노의 표현을 굉장히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님, 신부, 목사로서 어떻게 신도들 앞에서 화를 내느냐고 분노표출을 극도로 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화를 억제하다보면 화를 있는 그대로 느끼는 능력, 나아가 정서를 있는 그대로 느끼는 능력을 퇴보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화만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 자체를 잘 못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상대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잘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직자 한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신도들 앞에서 화를 내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 그러다보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화를 안내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오랜만에 옛 동창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 동창으로부터 "너 왠지 목석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억압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 체계 전체에 문제가 생기고 감정을 제대로 소통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아무 때나 느끼라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 느끼라는 겁니다 분노 자체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경외시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잘 관찰해서 나를 포함해서 분노의 구성에 관련된 주변환경이나 주변사람들을 이해하는 단초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분노의 억제와 관련해서 감정이 둔화되는 경우를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관련된 현상으로 억눌린 감정의 신체화 현상이 있습니다. 신체화는 심리적인 문제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게 몸이 많이 아픕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을 비교할 때 여성에게 신체화 증상이 조금 더 많습니다. 생물학적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 화의 표출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으로 더 제약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성의 경우 때로는 분노의 표현이 남자다움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화의 표출이 극도로 억압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화의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억누른 감정이 해소된 게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서 몸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어딘가 몸의 아픔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검사를 해보면 우울이나 불안은 높지 않은데 신체화 점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느낀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장기적으로 신체 어딘가가 고장이 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결국 화를 억압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바르게 이해하는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 관리의 필요성

분노의 감정을 잘 알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땅히 느껴야 하는 분노라도 바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를 과하게 표출하면 관계를 그르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공감을 얻지 못하여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분노를 느껴야 할 때 느낄 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소한 일에도 과민하게 분노를 느낀다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울 겁니다.

분노는 관리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분노연구를 많이한 밴더빌트 대학의 윌리암 래드포드 교수는 'Anger Kills' 라는 책에서 분노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학을 다닐 때 측정한 분노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0대가 됐을 때 사망할 확률이 4~7배 높다고 합니다. 분노가 죽음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는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해를 입힙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개인은 자신의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저자 : 김정호(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
서광 스님, 전현수(정신과 전문의)
〈불광출판사 펴냄〉







대행 스님

이 몸 안에서 움쭉 못하는 마음을 툭툭 좀 던져 봐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항상 이날까지 설법을 해 왔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질문을 해서 서로 응대가 있어야만 알아지는 데 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오늘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1(여) 큰스님! 질문 올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선원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조금씩 체험이 되는 과정을 시나 글로 적어서 스님께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스님께서 "백지 편지를 써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지 편지라는 편지 아닌 편지를 쓰기 위하여 저는 한 일 년여를 몸부림을 치면서 참구에 참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 갈래 만 갈래, 들어가는 길은 천 갈래 만 갈래지만 나오는 길은 한 길뿐이라는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참으로 경이로움의 세계였습니다.

여태까지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있음에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 길이 한 길임을 알고 나면 무슨 별천지 세계가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평상심,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별것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기고만장한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법회도 조금 빠져 먹고 옛날 그림책 구경도 조금조금 하면서 그럭저럭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지원의 스님께서 질문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었는데 산이 산이 아니며, 물이 물이 아니라는 그 말씀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산이 산이 아닌 도리, 물이 물이 아닌 도리를 참구하기 위하여 두 달여를 몸부림을 쳤습니다. 참구에 참구를 거듭하고 보이지 않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문 아닌 문에 부딪치면서 너무나 답답한 가슴을 이길 길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헤매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전입니다. 증조모님 제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을 장만해서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데 지방을 써 가지고 상 위에 탁 올리는 순간, 큰스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큰 바다에 파도가 일어 한 줄기 물방울로 나투어진 것이 옴이요, 파도가 멎어 물방울이 가라앉음이 가는 것인데 언제까지 하나가, 큰 바다에 하나가 돼 있는 그 조상을 어느 물이 내 조상이라고 붙잡고 늘어지려 하는가!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그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너무나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느끼고 '아, 이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정된 관념을 깨면, 증조모님이라는 그 고정관념만 깨서 절대의 바다로 보낼 수만 있다면, 아, 그렇다면 그 절대의 바다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절대의 바다는 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됨과 동시에 상이 휙 돌려져서 저를 향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증조모님을 향하여 절을 올리고 밥을 올리고 수저를 올렸던 그쪽의 상이 나에게로 휙 돌아서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저는 관념적으로 알았던, 이론으로 알았던 그런 모든 것보다 너무나 가슴이 시원해짐을 느끼면서 그 순간 번개같이 번쩍 번쩍 번쩍, 그 느낌의 의식들이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를 스쳐 갔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산이 산이라는 그 관념만 깨고 물이 물이라는 그 고정관념만 깬다면, 산으로 물이 흐르는 소식과 진흙소가 강물을 건널 수 있는 그 소식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며칠이 또 흘렀습니다. 그런데 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큰스님 말씀이 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법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무심코 들어 넘겼던 그 말씀이 그 순간 너무나 아프게 저를 찔러 댔습니다.

큰스님! 말로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굳이 말로 이렇게 질문을 올려야 하고 대답해야 하는 큰스님의 고통을 정말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스님의 그 말씀, 떠오른 그 말씀이 도저히 제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큰스님께서는 그 절대의 바다마저도 마셔야 하고, 마신 것을 토해야 하고, 토한 것을 함께 더불어 먹여 살려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 절대의 바다에 오기까지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절대의 바다마저 삼키고 토하고 더불어 먹여 살리라는 그 엄청난 도리를…. 가도 가도 너무나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현상계에, 큰 바다 위에 한 방울의 물로 나투어진 저희들이 현상계에 머무는 이 짧은 기간에 그 엄청난 도리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알고 갈 수 있을는지 큰스님의 높으신 법문을 바랍니다.

큰스님 우리는 지금요, 시공을 초월해서 살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고 있다구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생각을 해 본 예가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산다. 넘어서서 산다. 우리가 정신이 아니라면 몸을 어떻게 이끌어 가지고 가겠습니까. 저 언덕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정신계거든요. 그리고 내가 항상 말했죠?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툰다. 고정된 게 없이 화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생활을 한다. 걸어오는 발자취가 앞으로는 걷지 않았으니깐 없고, 뒤는 자꾸 가니깐 없고, 현재에도 공해서 떠벅떠벅 떼어 놓고 올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생활을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대로 아까 말마따나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이만하면 아주 족한 것을…." 하는 그런 말이나 똑같은 얘깁니다. 그리고 또 고가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하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을 하려고 애쓰고 가는 이 마당에서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 조금도 손색이 없다. 또 천차만별의 만 가지 일을 연구를 한다 해도 손색이 없다. 지금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발명해서 발표를 하고 이랬지만, 이 부처님 법이란 아주 심오하고도 묘하고 광대하고도 무변해서, 즉 말하자면 내가 누구든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연구해서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느 거 하나 건지지 못하는 게 없다. 왜냐.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도, 하다못해 물 한 방울도 안 돼 보신 분이 아니다 이거야. 물 한 방울조차 돼 봤던 분이기 때문에 물 한 방울에도 그 이름이 거기에서 솟아오른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그 천차만별의 이름들을, 천차만별의 모습들을, 천차만별의 마음으로써 연구하고 사는 그 모습들이 모두가 부처님 한마음에 들어 있으니, 그 마음 하나에서 다 천차만별의 가지가, 가지가지마다 거기에서 풀리고 나온다. 우리가 뭐를 한 가지를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해서 남들이 다 알게 하는 그 어떤 조그마한 걸 하나 만들어서 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본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살기 때문에 본래 정수에 콤퓨타로, 자동적인 콤퓨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거든지 능히 주어지니까 내 마음을 마음대로, 내 마음이 마음대로 넘어서라 이거예요. 내 마음이 주저주저하지 않고 마음대로 넘어설 줄도 알아야 된다. 걸을 줄도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이 깊은 물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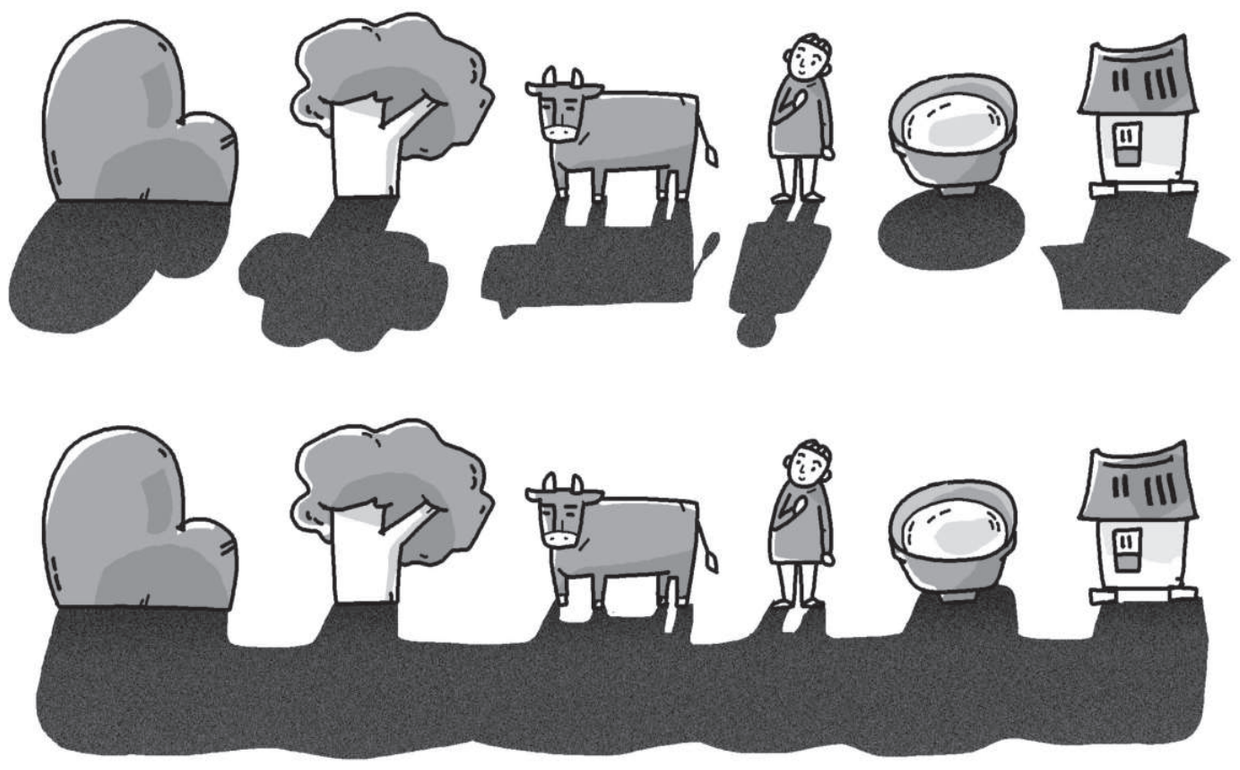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실천을 하나하나 해 나가 보세요

☞ 21면에서 계속

속에도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이 우주 법계를 돌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다섯 가지 오신통이라는 거를 그냥 굴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모두가 전체, 바로 그 도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그대로 합류화돼서 돌아가는 수레와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오신을 다 한데 합친 통을 굴려서 마음대로 적응하고 마음대로 연구하고 마음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문제도, 그것을 못 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연구해서 내놓을 줄 알았지,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주의 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건당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주에도, 이 우주 삼라만상에도 생명들이 꽉 찼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1(여)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3층 법당에 새벽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꽃꽂이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까 어떤 거사님은 화엄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서 거대한 불바퀴를 보았습니다. 큰스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신 그 불바퀴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각양각색의 색깔로 나투어진 그 큰 하나의 나툼, 그 어마어마한 나툼의 도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꽂으신 분이, 뭐, 여러 가지 각자의 보는 차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큰스님께 무시이래로 물 한 방울도 보태짐도 줄어짐도 없는, 움직임도 없는, 그런 언어도단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의 나툼이, 굳이 우리 현상계로 생각을 한다면 감도 있으며 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아무 작용이 없을 것 같지만 무한한 작용으로 그렇게 나툼의 세계를 펼쳐 보일 수 있는 그 성품의 묘한 작용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허허, 댁이 알아듣기만 하면 될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실천을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먹어 봐라." 하는 뜻이죠. 즉 말하자면 보고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는 말들은 모두 잘해요. "물이 컵으로 하나 가득 들어 있으니 이거를 먹어 봐라." 하고선 말들은 잘하시는데, 아무 말 없이 말을 하면서…, "이거를 갖다 먹고 갖다 먹일 줄은 모르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내가 잘났다는 사람 잘난 거 하나도 없죠. 못난 거든지 잘난 거든지 부처님께서는 일체를 다 다복하게 인연을 지었으니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알고 보고 듣고 했다면 실천을 하라." 실천을 하기 위해서 육조 스님은 십여 년을 노고를 했다 이거야. 그게 점수야. 면벽을 하는 것도 그냥 면벽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천지에서 내가 나를 던질 줄 알고 행할 줄 알고, 늘 일 줄 알고 줄일 줄 알고, 그렇게 굴릴 줄 아는 바로 이름 없는 이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살이 지금 그렇게 안다면 마음이 뛰어넘어서 "실천을 하는 데에 노력을 해라. 말만 앞세우지 말라. 알았으면 해 봐라. 길을 걸을 줄 알면 뛰어 봐라. 뛸 줄 알면 날아 봐라. 날아 보면 두루 돌아봐라."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났다 잘났다, 여자다 남자다 이걸 떠나서, 권세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것은 마음공부니까, 하여튼 아무 말 없이 그냥 실천을 하나하나 해 나가 보세요.

질문자1(여) 큰스님,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스님!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스님 뒤에 계시는 불상이 보기 좋아 선원에 다녔고, 그다음에는 스님의 모습이 좋아서 선원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더디더라 그거예요. 왜? 모습과 상은 분명히 내 생각을 만드는 것뿐이고, 마음을 밝혀 주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계속 스님께서 설해 주시는 그 법문을 되뇌다 보니 "눈 뜨고 보는 것 이전의 마음을 봐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계속 마음으로 돌리다 보니까, 지금은 뒤에 계시는 부처님 상과 앞에 계시는 스님의 모습 이전에 제 마음속에 있는 한 분의 스님과 제 마음속에 있는 한 분의 부처님이 생각이 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계시는 스님과 그 마음속에 계시는 부처님께 진심으로 계속 공양하다 보니 더불어 제 마음 또한 밝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제 상(相)을 떼는 그런 모습을 또한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야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정진해 나가고 있지만, 그렇게 제가 정진해 나가는 제 모습이 잘못됐다면 가르침 바랍니다.

큰스님 모습을 또한 무시해도 안 되죠. 허허허. 자기 마음으로 하여금 이 모습도 있어야 바로 상대성의 이론이 되니깐요. 그래서 모습이 안 보여도 무효고, 또 몸이 만약에 죽는다면, 없어진다면 무효다. 정신만 있으니 남들이 보지 못하니까 무효다 이 소리예요. 또 정신이 없으면 몸이 송장이 되니깐 무효고.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과 둘이 아니게끔 이렇게 움죽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대로 여여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 가지를 들이고 내서 만 가지를 연구할 수 있고, 만 가지라는 숫자보다도 천차만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말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과학자가 한 가지를 연구한다면 마음공부하는 분들은 만 가지 천 가지 천차만별로 다 할 줄 안다, 다 할 수 있다, 이게 나와요. 그런데 자기 마음 도가니 속에서 뛰어넘질 못해요, 여러분이. 마음도 몸뚱이 체 안에 딱 갇혀서 마음이 벗어날 줄을 몰라요.

내가 차 타고 가다가 말입니다, 저기 그 담벼락에 그림 그린 거, 어디쯤이지? 그, 한양아파트. 거기에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려 놨는지 몰라요, 돌아가면서 벽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벽에다 그려 놨는데 넓게 보이게끔, 나무도 넓게 선 것대로 그렇게 잘 그려 놨더라구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이 거기를 들어가 봤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대로 철철 물 흐르는 바다였어요. 그리고 나무들이 우죽우죽 같이 들어서고 푸르르고 말이에요.

> 말만 앞세우지 말고 알았으면 해 봐라.
> 길을 걸을 줄 알면 뛰어 봐라.
> 뛸 줄 알면 날아 봐라.
> 날아 보면 두루 돌아봐라.

그것은 내 안에서 만드는 작업입니다, 순간. 그러니까 어느 어느 할 수 없는 일도 내 마음이 나를 수만 개를, 큰 일에는 수만 개를 내놓고 작은 일에는 조금, 거기 용도에 따라서 좀 던져 봐라 이 소립니다. 이 몸 안에서 옴쭉을 못 하는 마음을 좀 툭툭 던져 봐라 이겁니다.

옛날에 어느 사람이 그랬대요. 병원에 가서 무엇을 잘라 내는데 그거를 마취를 하고 자를 수가 없다고 하더래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앞에 나무가 우거진 그림이 있고 물이 내려가는 개천이 있고 배 한 척이 있고 그렇더래요, 그림에. 그래서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배를 타고 앉았었대요. 그랬더니 수술을 다하고 나서 깨우더래요.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을 못 하리까." 하는 소리예요. 무엇인들 못 하리까. 이 내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된다면 무엇인들 못 하리까. 분리가 됐다가 같이했다가 하면서 하는데도 그냥 분리되지 않고도 이렇게,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고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많아서, 나 아님이 없는 것이 그렇게 많아서,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또 꺼내서 쓸 때에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는다. 그 마음에서 큰 군사를 일으켜도 해당되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과학자들하고는 정반대의 크나큰 부처님의 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지만, 지금 내가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묘한 도리가 돼서, 사람들이 몇 생을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보기가 어렵다, 하기가 어렵다, 느끼기가 어렵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있는지를 아십니까? 어디 서 있는 사람인지? 하치않은 스님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 못 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이건 가지각색으로 나투는 까닭에 어떤 거라고, 위에 앉았다 아래 앉았다, 천하다 고귀하다, 지위가 높다 이런 것도 묵살되는 자립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럽죠? 때로는 아주 속상하고, 갇혀 있으면 '아, 새처럼 좀 날아가 봤으면….'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는 자유로 날아다닐 거 다 날아다니고,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니 구족하죠. 그러니까 함이 없이 그렇게 천차만별의 뜻을 가지고 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걸음을 걸어서 올라왔는데 걸어옴이 없이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걸어오는 사이가 없이 걸어왔습니다.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면서 걸어왔습니다. 그 당시 당시 없어지는데 뭐 걸어온 자리가 있겠습니까? 한번 이해를 잘해 보십시오. 걸어오면서 한 발 한 발 없어지는데 뭐가 남아서 고가 있으며, 뭐가 남아서 업이 있겠습니까?

이 마음 하나만, 아주 정말 시쳇말로 점프를 해서 내가 응용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이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냥 지금이라도 벗어나서 한번 실험을 통해서 실천을 해 보는 것이 마음공부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런 말을 해도 알아들으실 수 있겠지만 전자엔 그 뭐, 이런 말도 못 했습니다. 알아듣질 못하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마음을 벗어나서 던져 봐라." 이래도 알아들으실 수 있죠? 허허허.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묘한 것입니다. 여름에 무척 무더워서 목욕을 좀 해야 할 텐데, 바다가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한 찰나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면 땀이 다 걷힙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만날 고가 많고 업이 많고 팔자 운명이 있어서 만날 아프게 울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볼 때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북하면 "고는 없다." 이랬겠습니까.

사실은 고는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일거수일투족 살림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걸어온 발자취 없어지듯 하거든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보면 딴 거 또 봐야 하고, 들으면 딴 거 들어야 하고, 이렇게 고정된 게 없이 자꾸 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을 게 뭐 있어서 고라고 합니까?

고라고 말씀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어서 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자 운명이라는 소리도 여러분이 지어서 "아이구, 내 팔자야!" 하고 이러는 거고요. 그거를 굴릴 줄만 안다면 "내 팔자야." 할 것도 없죠.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흐르겠지.' 하면은요. 하지만 나 아님이 없는데 딱 나로만 생각한다면, 허, 조금 좀 그래요. 마음이 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발 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맘대로 왜 못 합니까? 왜 도가니 속에서 찌들려서 살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은 그러시겠죠. "그럼 거기서 마음을 벗겨 내면 뭘 어떻게 하느냐?" 이러겠죠. 마음을 던질 줄 알고 마음을 벗어나게 할 줄 안다면, 자기가 지금 생활하고 가는 그것이 모두 뭡니까? 지금 마음의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라." 이 소립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몸을 이끌어 가면서 이 모두를 행하면, 함이 없이 생활을 하니 고가 없고, 세상에 남이 뭐래도 이 천지를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군사를 늘려야 할 텐데 늘릴 수가 없거든요. 옛날 얘기 책에 있었던 얘기인데 다 모릅니다만 "박씨부인전"이라던가 뭐, 예전에 얻어들은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를 해서 초당에 죽 둘러서 노간주나무를 심었죠. 그 이파리 하나하나를 군사로 다 만들었답니다. 그러니 그것이 딴 사람이 볼 때는 환상이지만 그냥 기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다 물러가더랍니다. 이게 방편 아닌 방편이다 이 소립니다. 책에 방편이라고 해 놓고도 "방편 아닌 방편" 이렇게 썼죠. 실천을 하면서도 그게 방편이고 방편이면서도 실천이다 이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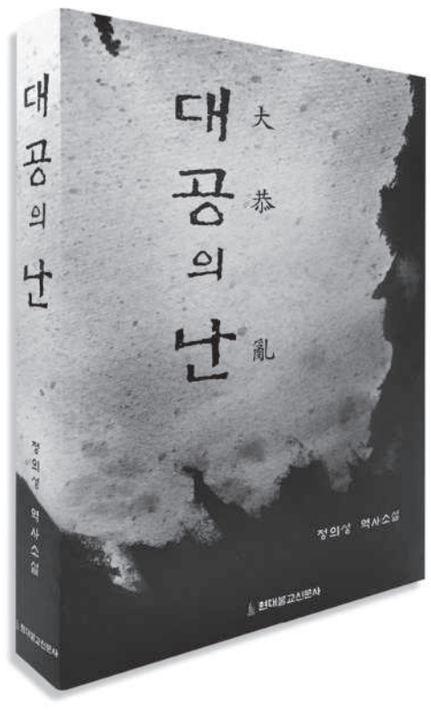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97년 1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02)732-1520

현불 논단

'虎視牛步'로 신년 맞이하자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흰소는 '성스러움 · 평화' 상징
禪家에선 소를 불성에 비유해
길들이는과정 '심우도'로 그려

코로나의시대, 세상은 변화 중
세계 종교 단체도 언택트 영향
변화 적응 못하면 결국엔 도태

미래 준비하는 사람이 주인공
'호시우보'의 마음가짐 가져야

신축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신축년은 육십갑자 중 38번째로 '신(申)'은 '흰색'을 의미하고, '축(丑)'은 '소'을 뜻한다. 그래서 올해를 '흰 소(白牛)의 해라고 한다. 흰 소는 평화를 상징하고, 성스럽다 하여 인도에서는 백우(白牛)를 성우(聖牛)라고 한다. 인도를 여행하면 흰 소가 도로 가운데 한가롭게 누워서 잠자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선가(禪家)에 소를 우리의 마음(불성)에 비유하여 소를 찾아가고, 발견해서 잘 길들여서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는 과정을 마음을 찾고 닦는 수행에 비유하는 '심우도'가 있다.

〈법화경〉 화택의 비유에는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 즉 대백우거(大白牛車)가 일불승(一佛乘)을 상징하여, '삼승(성문 · 연각 · 보살)'을 통합하여 하나의 부처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부처님의 방편설법을 설하고 있다. 〈한비자〉에 '검은 소가 흰 송아지를 낳는 일화'가 있다.

"어떤 집에서 검은 소가 흰 송아지를 낳자, 공자님께 그 이유를 물으니 공자님은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눈이 멀었다. 얼마 후에 또 그 집에서 검은 소가 흰 송아지를 낳자, 다시 공자님께 그 이유를 물으니 공자님은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아들이 갑자기 눈이 멀었다. 그 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남자들은 대부분 전쟁터에 나가 죽었으나 그들 부자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이 일화는 인생은 새옹지마와 같아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준다. 길흉과 행복과 불행은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칠전팔기로 다시 일어선 자가 승리한다.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사람이 모이면 안되는 비대면 사회, 언택트 문화가 도래하였다.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종교의식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생겼다. 모든 종교는 엄청난 타격과 위축을 받았다.

코로나는 갑자기 전 세계의 종교집단의 법회와 예배 행위를 중단시켰다. 로마 교황청은 크리스마스 의식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예배로 진행했다. 한국불교도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연기하였다. 종교는 모임의 조직(전도)이 세력이고 재정이다. 종교의 생명은 전도이고 교화이다.

〈열반경〉에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공덕천과 흑암녀의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가 사는 현실세계는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불안전하고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실의 변화에 대처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만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수십 년 기업이나 개인이 이룬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항상 현재는 위기이며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의 삶이나 종교 조직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역병이 세력이 너무 크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닥친 일이라 당혹감도 크다는 점이다.

불교 교단은 시급히 대중과의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학교는 이번에 일제히 온라인 수업방식을 구축했다. 이웃종교도 우리보다 큰 충격 속에서 위기를 돌파하고자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구축하고 있다. 위기나 역경을 잘 극복하면 그 만큼 성장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 길을 만들고, 역경을 즐기면서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다.

미래는 부지런히 준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호랑이 눈처럼 살피고, 소처럼 뚜벅뚜벅 행동으로 실천하는 호시우보(虎視牛步)를 하자. 지혜의 눈은 '호시(虎視)'이고, 실천은 소의 발자국처럼 '혜목행족(慧目行足)'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자. 깨달음은 정견이고 지혜이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社 說

해외포교, 종단 의지에 달렸다

해외사찰이 11년 만에 급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2009년 142개였던 사찰은 11년이 지나 82개로 감소했다. 무려 57% 수준이다. 2009년 이후 11개 사찰이 새롭게 창건된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수의 사찰이 폐사되거나 조계종과의 연관성이 단절된 셈이다.

모든 사찰의 상황이 천차만별이고 코로나19 상황으로 미처 연락이 닿지 않은 사찰도 있다는 점에서 단편적인 통계 수치로만 그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해외사찰 현황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조계종은 2011년 해외포교 활성화와 체계화를 위해 해외특별교구법을 제정했지만, 이후의 감소세는 그 미비한 성과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관계자들은 "해외 현실과 법령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해외사찰은 상당수 해당국 가법에 따른 법인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종법상 사찰 등록이 쉽지 않거나, 주신도층인 교민사회의 특성상 조계종 소속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또 종단 차원에서 해외사찰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시스템이 전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외사찰 사례는 종법상 예외로 축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해외사찰에 대한 종단 영향력이 점차 미비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희망은 있다. 종단 차원의 관심과 변화가 해답이 될 수 있다. 해외특별교구법에 따른 사무국 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업무를 일원화해 구체적인 현황을 토대로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다.

숨겨진 성보 가치 개발하자

경기도 안양시의 산속 작은 공원에는 보호각 속에 갇힌 한 성보가 있다. 바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2호인 안양 석수동 마애종이다.

그동안 우리는 마애불에 대해서는 성보로 여기며 보존 등에 힘썼지만 마애종은 그러한 성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수준에 불과했다.

안양 석수동 마애종만 하더라도 2007년까지 안양시가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제대로 된 발굴과 정비조차 없었다.

마애종은 스님이 범종을 타종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안양 석수동 마애종의 경우 고려시대인 11세기 전반에서 중반 무렵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 유일의 마애종상으로 신라부터 고려 때까지 이어지는 범종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이 어떻게 걸리고 타종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하지만 높은 가치에도 불교계의 인식은 저조하다. 석수동 일대는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마애종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될 경우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결국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안양시는 이를 고려 할 수밖에 없어 불교계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곁에는 뛰어난 가치를 지닌 성보지만 사실상 방치돼 사라진 것들이 많다. 국보나 보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차이는 이루 말할 것도 없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학술포럼 등을 개최한 안양시가 오히려 지정을 준비하는 지금,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마애종이 마애불과 같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을 불교계가 인식하는 것부터 마애종의 진정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운동이 시작돼야 할 것이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우연 같은 호의

"스님, 저 조금 더 살게 부처님께 기도 해주세요. 고비 넘기기 힘들어요. 욕심 많은 중생, 고맙습니다. 스님 성불하세요."

노(老)거사의 문자를 보고 깜짝 놀라 전화를 드렸다. 거사는 반가워하며 방문하겠다는 내게 주소를 불러주셨다가 금방 다시 취소해버리신다.

"저 있는 곳까지 100리길입니다. 제가 살아나서 우리 스님 꼭 찾아뵙고 좋은 법문 잘 받겠습니다."

반가움과 미안함과 불안 등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노거사님의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다.

거사와의 인연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내가 입원하여 일반병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가게 되었다. 딸의 요청으로 중환자실에 몇 번 들러 의식 없는 아내를 위해 치유를 발원하며 기도를 하였었다. 아내의 임종 전과 후, 그리고 입관을 도와드리고 49재 막재 때 의식에도 함께 참석하여 기도했었다. '일부러 시간을 맞추기도 어려운데 참 지중한 인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때까지 거사



그림 · 최주현

는 그저 인사만 건넬 뿐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거사는 불교법당에 종종 오셔서 부처님 전에 참배하고 차 한잔하며 담소를 나누다 가곤 하였다. 아내는 승가사를 다니던 신심 깊은 불자였다고 한다. 아내의 불심에 대해 한동안 추억한 후엔 조용히 자리를 뜨곤 하였다. 워낙 말씀이 없고 고요한 사람이었다.

한번은 거사에게 안부전화를 드렸는데 "스님 제가 입원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때도 마침 설 무렵이었다. '얼마나 적적하실까' 싶어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도 병원 복도에서 병원장과 마주쳤다. 병원장은 반가워하며 노거사의 호실을 묻고 병동 수간호사에게 특별히 부탁 전화까지 넣었다. 노거사는 나의 방문과 병원장님의 호의를 느끼시며 삶의 용기와 의욕을 갖게 된 것 같았다. 며칠 후 퇴원 소식을 접하고 안심했다.

이 글을 쓰고 보니 노거사의 전화의 의미를 알 것도 같다. 시기도 그때와 비슷하고 노거사가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상황도 비슷하다. 그 당시도 위험한 고비였는데 잘 넘겼듯이 이번의 고비도 잘 넘기고 싶은 거사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

노인 불자들의 외로움에 대해 어떻게 공감하는 것이 좋을지를 많이 고민하는 요즘이어서인지 거사의 말과 문자가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그때 병원장의 우연한 호의처럼, 그런 우연같은 느낌의 용기와 의욕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윌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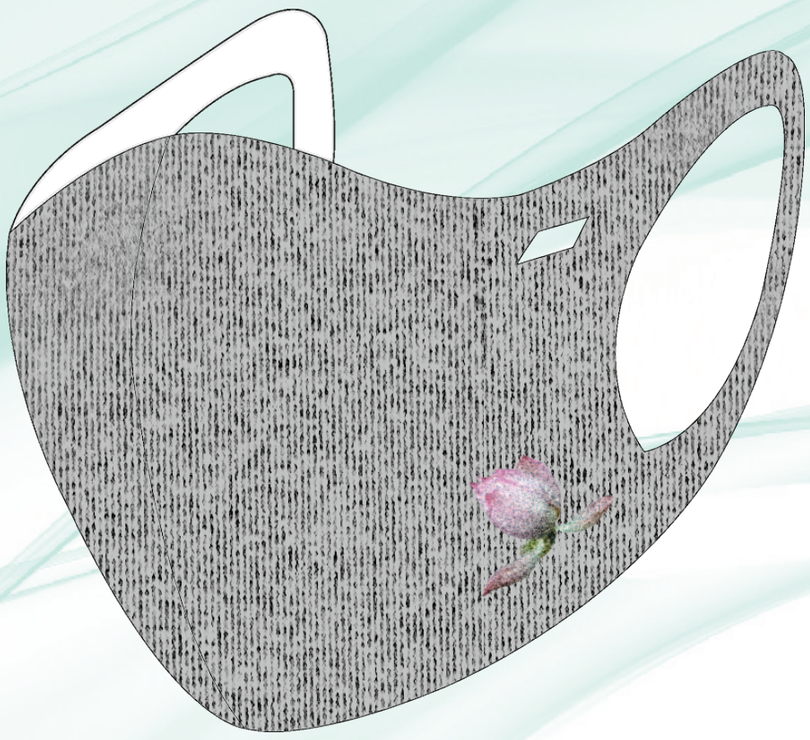
ANTI-BACTERIAL · DEODORIZATION · 항균&소취

FDA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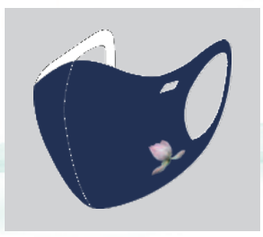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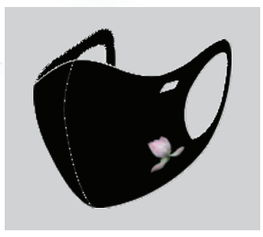
KOVI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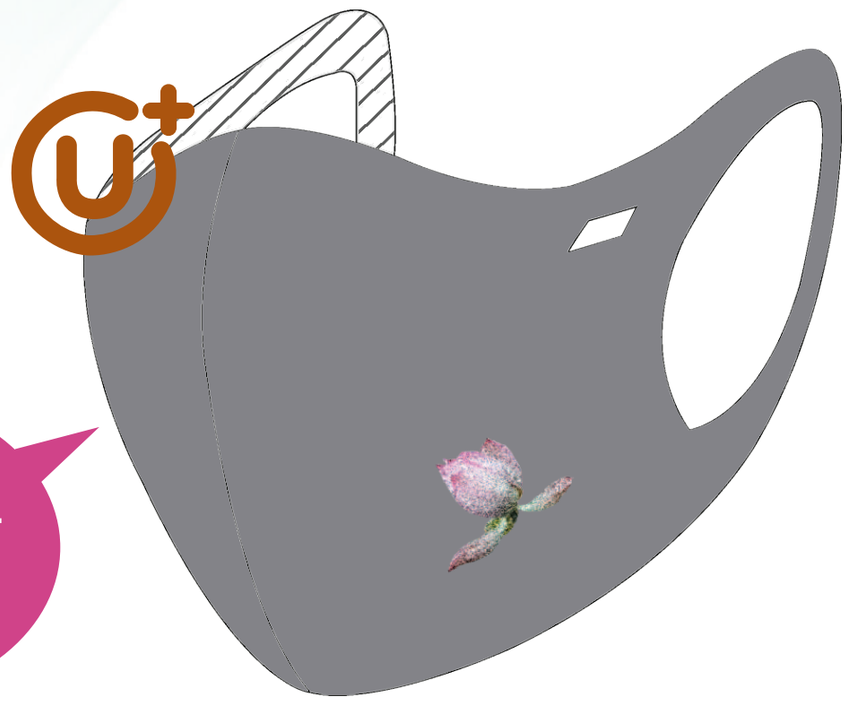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구리마스크는
일반마스크보다
항균력이
탁월합니다.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